

RR - 2023 - 14 - 738호

한국 대학의 교양 기초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실태

Composing and Operating of Liberal Arts
Education Curriculum in Korean Universities

2023. 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한국 대학의 교양 기초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실태

Composing and Operating of Liberal Arts
Education Curriculum in Korean Universities

연구책임자 : 김선영(경남대학교)

공동연구자 : 윤승준(단국대학교)

김인영(위덕대학교)

홍수진(우석대학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이 연구는 2023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한국 대학의 교양 기초 교육 과정 구성과 운영 실태'에 관한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입니다. 본 연구에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This work was funded by 2023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연구결과 요약

I. 연구 목적

한국 대학의 교양기초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는 1967년 중앙교육연구소의 ‘대학교육 내용에 관한 종합적 연구’ 이후, 최근의 ‘대학 교양교육 국제 비교 연구’ (신중호, 2022)에 이르기까지 문교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한 정부나 기관, 또는 개인 연구자를 통해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교양기초교육 전반에 관한 개괄적 조사연구에 그친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광범위하면서도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대학 교양기초교육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 수요의 급속한 변화는 교양기초 교육과정에 대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바,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과 필요에서 출발하여 한국 대학의 교양기초교육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교양기초교육의 개선방안과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 방법

이번 연구는 문헌 연구 및 설문조사, 그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자료는 2022년 기준 1) 대학 요람 2) 교양교육과정 이수체계도 및 편람표 3) 교양교육 운영 현황 엑셀자료(대학 정보, 교과목 리스트 등)이며, 이밖에 직접 홈페이지(대학 본부, 교양 담당 기관 등)에서 자료(대학 요람 또는 교양교육 과정 이수체계도)를 내려받아 최종 140개 대학 요람 또는 교양교육과정 이수체계도/편람표, 60개 대학의 교양 교과목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대학은 교육통계(2022) 기준 종합대학 190개교(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제외) 가운데 140개교였다. 140개교 가운데 본교는 138개교(98.6%)였고 분교는 2개교(1.4%)였으며, 설립유형별로는 국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 27개교(19.3%)였고 사단 혹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립대학은 113개교(80.7%)였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역 대학이 54개교(38.6%)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역 대학이 28개교(20.0%), 대경강권역 대학이 20개교(14.3%), 그리고 호남제주권 권역과 부울경권역 대학이 각각 19개(13.6%) 대학이었다. 대학 규모별로는 재학생 기준 5천 명 이상에서 1만 명 미만의 대학이 51개교(36.4%)로 가장 많았고, 1만 명 이상에서 2만 명

미만의 대학이 40개교(28.6%), 2천 명 이상에서 5천 명 미만의 대학이 23개교 (16.4%) 순이었다.

Ⅲ. 연구결과

1. 대학 교양교육 목표

대학이 설정한 교양교육의 목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윤승준 외, 2019)에서 사용했던 키워드 빈도 분석 방식을 준용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140개교는 2개 이상 교양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으며, 기존 선행연구의 교양교육 목표와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범주에서, ‘창의융합, 미래사회, 문제해결’ 키워드(28.20%)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소범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창의, 창의성, 창의적, 창조, 창의인재, 창의적 인재 혁신’ 키워드는 88개(9.09%)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봉사·공동체·민주시민·국가’와 관련한 교양교육 목표가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동체나 집단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다양성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확대되어 온 우리 사회의 변화가 대학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에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교양기초교육 과정의 구성 현황

2022학년도 대학의 평균 졸업 요구학점은 129.42점이었다. 그 가운데 학위 취득을 위해 전공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수학점은 평균 65.48학점(50.63%)이었고, 교양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수학점은 평균 34.60학점(26.82%)이었다. 그리고 전공 이수학점과 교양 이수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선택 교육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평균 29.34학점(22.61%)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9학년도에 비해 졸업 요구학점이 줄어들면서 전공 이수학점과 교양 이수학점도 줄어들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교양 이수학점 비율은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에서 권장하는 졸업요구학점의 35%에 미달하는 수치일 뿐 아니라 졸업 요구학점의 36~39%를 교양 이수학점으로 이수하게 하는 미국 대학과도 커다란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계열별 교육과정의 학점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공학 및 자연계열의 졸업 요구학

점이 인문·사회 계열에 비해 1~2학점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졸업학점 대비 교양학점 비율은 평균 26.82%(계열별 26.33~27.24%), 전공학점 비율은 평균 50.63%(계열별 49.77~52.70%), 일반선택학점 비율은 평균 22.61%(계열별 20.06~23.90%)였다. 이와 같은 계열별 교양 이수학점의 정도는 대학 설립유형이나 소재지, 대학 규모별로 분석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국공립 대학의 교양 이수학점 비율이 사립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수도권 지역 대학에 비해 여타 지역 대학의 전공 이수학점 비율이 최소 2%p에서 최대 7%p 이상 높았다.

교양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수학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기초문해 교육 과정에 대한 이수학점은 평균 10.19(29.65%)학점, 자유학예교육 과정에 대한 이수학점은 평균 12.72(37.10%)학점, 그리고 체험소양 및 기타교육 과정에 대한 이수학점은 평균 11.82(32.72%)학점이었다. 대학의 교양기초 교육과정은 자유학예교육이 중심을 이루어야 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기초문해교육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지만 모든 영역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체험소양 및 기타 학점이 교양 이수학점의 30%가 넘으면서 자유학예교육이나 기초문해교육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자유학예교육이나 기초문해교육의 학점은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이나 해외 주요국의 교육과정을 참고할 때, 현재의 평균 이수학점보다 각각 5학점 이상, 3학점 이상 늘릴 필요가 있다.

교양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체계는 대학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만, 대부분 대학 교양 교육과정을 대분류 체계와 하위 분류체계로 구분하였다. 대분류 체계에서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교양 교육과정을 구분하는 대학이 89개교(63.6%)로 가장 많았으며, 이수방식을 기준으로 하는 대학이 30개교(21.4%)로 뒤를 이었다. 하위 분류체계에서도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대학이 106개교(75.7%)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부분의 대학이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교양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양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체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75.7%에 해당하는 106개 대학이 자유학예 교육과정을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과 같이 학문중심으로 분류하고 있었고, 17개 대학(12.1%)은 주제중심으로, 5개 대학(3.6%)은 역량중심으로, 그리고 6개 대학(4.3%)은 학문과 주제 혹은 학문과 역량 등을 혼합하여 자유학예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었다.

3. 교양기초교육 과정 운영 현황

가. 교양기초교육 전담 조직 및 구성

분석 대상 140개 대학 중에서 교양교육 전담 조직이 설립되어 있는 대학은 132개교(94.3%)였으며, 132개 대학 중 99개교(70.7%)는 교양교육 전담 조직의 부서장이 교무위원급으로 보임되었다. 그리고 교양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가 존재하는 대학은 129개교(92.1%)였고,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대학은 10개교(7.1%)였으며, 대학의 교양교육 관련 위원회는 평균적으로 1.63개가 구성되어 있었다. 2019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교양교육 전담 조직을 설치한 대학의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고(89.66%→94.29%), 부서장을 교무위원급으로 위촉한 대학의 비율도 다소 증가하였다(66.67%→70.71%). 다만, 교양교육 관련 위원회의 설치 대학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94.25%→92.14%).

나. 교양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현황

60개 대학의 39,890개 교과목을 7개 영역(기초문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험소양, 융복합, 기타)으로 분류했을 때,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19,004개(47.6%)로 가장 많았으며, 체험소양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7,953개(19.9%)로 뒤를 이었다. 융복합 교과목의 경우 227개(0.6%)로 가장 적었고, 자연과학 교과목 역시 1,194개(3.0%)로 적은 수를 보였다.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의사소통Ⅱ 영역의 교과목이 8,921개(46.9%)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소통Ⅰ 교과목이 3,629개(19.1%), 기초과학과 수학 및 양적 추론 교과목이 2,392개(14.5%), 정보문해 교과목이 2,392개(12.6%), 사고 교과목이 766개(4.0%), 계열기초 성격의 BSM 교과목과 공학수학 등 전공기초교육을 위한 교과목이 534개(2.8%) 순으로 많았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비판적·논리적 사고 교육이 의사소통 교육이나 정보문해 교육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및 수학과 계열기초 성격의 BSM 교과목 3,296개 가운데 76.51%에 해당하는 2,510개 교과목이 10개 대학에서 개설되고, 나머지 786개 교과목이 50개 대학에서 개설되고 있다는 편향성을 고려하면, 현재 대학에서의 기초과학 및 수학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유학예 교육과정으로 개설한 교과목은 총 9,031개로 22.64%에 해당하였다. 이 중 인문학 교과목은 3,828개(42.39%), 사회과학 교과목은 4,009개(44.39%), 자연과학 교과목은 1,194개(13.22%)로 자연과학 분야의 교양 교과목이 상대적으로 적게 개설

되었다. 인문학 영역에서는 역사학 교과목이 1,051개(27.5%)로 가장 많았고, 예술학 교과목이 943개(24.6%), 철학 교과목이 883개(23.1%), 문학 교과목이 795개(20.8%), 종교학 교과목이 156개(4.1%)였다. 사회과학 영역에서, 사회학 교과목과 문화학 교과목이 1,375개(34.3%)와 1,377개(34.3%)로 가장 많았으며, 정치학 교과목이 478개(11.9%), 심리학 교과목이 434개(10.8%), 경제학 교과목이 345개(8.6%) 순으로 파악되었다. 자연과학으로 분류되는 교과목 중에서는 물질과학 교과목이 541개(45.3%)로 가장 많았고, 생명과학 교과목이 400개(33.5%), 수리과학 교과목이 253개(21.2%)였다.

마지막으로, 체험소양으로 분류되는 교과목 중에서는 대학 적응 및 진로 교과목이 39.3%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체험 교과목이 18.4%, 대학 교시 구현 교과목이 12.3%, 사회적 체험 교과목이 6.3%, 정서적 체험 교과목이 4.7% 순이었다.

교양기초 교과목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좌규모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31~50명의 수강인원으로 구성되는 교양교육 교과목이 14,862개(37.3%)로 가장 많았으며, 1~20명 수강인원 교과목이 10,948개(27.4%), 21~30명 수강인원 교과목이 7,660개(19.2%)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기초문해와 체험소양 영역의 교과목은 소규모 강좌로 개설되고 있으며,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의 자유학예 교과목과 융복합 교과목은 중대형 강좌로 개설되고 있었다. 특히 자유학예 교과목과 융복합 교과목은 31~50명 규모의 강좌가 가장 많이 개설되었으나 51~100명 규모의 강좌도 많이 개설된다는 점은 자유학예나 융복합 교과목이 강의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교양 교과목의 이수 방식 분석 결과, 전체 39,890개 교과목 가운데 필수 교과목이 16,031개(40.2%), 선택 교과목이 19,004개(47.6%), 선택적 필수 교과목이 4,289개(10.8%)로, 필수와 선택 교과목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기초문해와 체험소양 영역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필수 교과목 비율이 각각 56.3%와 54.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과는 달리 자유학예 및 융복합 영역과 기타 영역의 교과목들은 70% 이상이 학생들에게 선택 이수하도록 하고 있었다.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이 23,493개(58.9%)로 가장 많았으며 영역별 교양 교과목의 담당 교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기초문해 영역(58.2%), 자유학예 영역(53.9%), 체험소양 영역(65.2%), 융복합(65.6%)로, 모든 영역에서 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강좌가 50%를 넘었다. 교양기초 교과목을 수업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대면 교과목이 26,334개(66.0%)로 가장 많았고, 비대면 교과목이 3,849개(9.6%), 블렌디드 교과목이 2,565개(6.4%) 순으로 많았다. 교양 교과목의 평가방식을 분석한 결과, 상

대평가 교과목이 22,921개(57.5%)로 가장 많았으며, 절대평가 교과목 8,382개 (21.0%), P/F(Pass or Fail) 교과목 4,693개(11.8%) 순으로 나타났다.

다. 기초문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이번 조사에서는 기초문해 교육 내용을 유형화하기 위해 교과목 명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기준으로 하위분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 I 영역에서는 글쓰기 강좌(2,287개, 63.0%)가 가장 많이 개설되고, 고전/명저 읽기 교육을 위한 강좌(755개, 20.8%), 말하기 교육을 위한 강좌 287개(7.9%), 의사소통 일반 교육을 위한 강좌(49개, 1.4%) 순으로 개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 글쓰기 강좌는 전체 개설 강좌 2,287개 가운데 76.3%에 해당하는 1,746개 강좌가 필수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선택적 필수로 운영하는 강좌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개설 강좌의 90%가 필수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강좌규모에 있어서 31~50명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4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교원신분의 경우 비전임교원 비율이 더 높았다. 의사소통II 영역에서는 영어 교과목이 6,770개 (75.9%)로 가장 많았으며, 75% 이상이 필수로 개설되었다. 또한 영어 회화나 생활 영어를 비롯한 영어 교과목은 20명 미만의 소규모 강좌로 운영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담당 교원의 신분은 전임 비율이 높았다.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하위영역 가운데 강좌 자체가 가장 적게 개설된 분야는 사고 영역이다. 개설된 교과목은 766개이며 기초문해 전체 강좌의 4.0%이다. 사고 영역의 강좌들은 31~50명 규모의 강좌로 개설되어 대면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로 비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와 함께 기초문해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은 학점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문해 영역은 컴퓨터 언어와 이를 활용한 프로그래밍에 초점을 맞춘 강좌가 518개(21.7%)로 가장 많았다. 31~50명 규모의 강좌로 개설되어 대면 강의로 진행되는 2학점 필수 교과목으로,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대부분 전임교원이 담당했다.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강좌는 총 2,762개였다. 그러나 기초문해 교육과정에 편성된 10.19학점 가운데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영역에서는 평균 0.47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영역에 개설된 2,762개 강좌를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면, 수학 강좌가 1,055개(38.2%), 물질과학 1,303개(47.2%), 생명과학 308개(11.2%), 통합과학 및 과학 일반 89개(3.2%) 등이었으며, 개설되는 강좌의 대부분이 수학과 물질과학 분야이고, 생명과학이나 통합과학 및 과학 일반 강좌는 매우 적었다. 주로 3학점

또는 0.5~1학점 강좌로 개설되었으며, 수학이나 확률통계 같은 수학 강좌는 비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선택 교과목으로 31~50명 규모의 강좌로 개설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물리학 및 실험이나 화학 및 실험 등 실험 강좌는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필수 교과목으로 20명 미만의 소규모 강좌로 개설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문해 교과목을 설립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좌규모와 설립유형에 따라 분석했을 때, 국공립대학의 의사소통 I 교과목은 21~30명으로 운영되는 강좌(42.8%)가 가장 많았고 사고, 정보 문해,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의 경우 31~50명의 중소규모의 강좌가 많이 개설되었다. 사립대학의 경우 의사소통 I (48.8%), 사고(53.8%), 정보 문해(54.9%),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41.9%)에서 31~50명의 강좌가 가장 많았고, 의사소통 II의 경우 1~20명의 강좌(56.2%)가 가장 많았다. 둘째, 이수 방식과 설립유형에 따라 분석했을 때, 국공립대학의 의사소통 I 교과목은 이수 방식이 필수인 교과목이 58.7%로 가장 많았고, 사립대학의 경우 의사소통 I (76.8%), 의사소통 II (62.0%), 사고(52.1%), 정보 문해(65.0%),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62.1%) 교과목의 이수 방식이 필수인 교과목이 가장 많았다. 셋째, 평가방식과 설립유형에 따라 분석했을 때,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상대평가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넷째, 수업 유형과 설립유형에 따라 분석했을 때, 국공립대학의 의사소통 I (42.3%), 의사소통 II (42.7%), 사고(82.1%), 정보문해(40.0%),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22.1%) 교과목은 대면 강좌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섯째, 교원 구성과 설립유형에 따라 분석했을 때, 국공립대학의 의사소통 I (84.9%), 의사소통 II (81.4%), 사고(88.6%), 정보 문해(52.7%) 교과목은 비전임 교원 강좌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51.4%)과 계열기초(56.1%) 교과목은 전임 교원 강좌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사립대학의 경우 기초문해 전 교과목에서 전임 교원의 강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기초문해 교과목을 소재지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강좌 규모와 소재별로 분석했을 때, 비수도권 지역 대학의 의사소통 II 교과목의 강좌 규모는 1~20명이 58.9%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소통 II를 제외한 기초문해 교과목은 31~50명의 강좌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수방식과 소재지별로 분석했을 때, 수도권 지역의 경우 기초과학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필수가 가장 많았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이수 방식은 의사소통 I (70.1%), 의사소통 II (60.0%), 정보 문해(56.6%) 교과목에서 필수가 가장 많았고 사고(49.7%) 및 기초과학 등 (55.6%) 교과목은 선택 이수방식이 가장 많았다. 셋째, 교원구성과 소재지별로 살

펴보았을 때, 수도권 지역 대학의 의사소통 I 과 정보 문해 교과목은 비전임 교원 구성 비율이 각 66.8%와 59.8%로 가장 많았고, 의사소통 II(47.6%), 사고(57.3%),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54.9%)은 전임 교원 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비수도권 지역 대학의 경우 의사소통 I (51.4%), 의사소통 II(74.8%), 정보문해(63.6%),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54.5%) 교과목은 전임 교원 구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고 교과목의 경우 비전임 교원의 비율이 54.7%로 가장 높았다. 넷째, 평가방식과 소재지에 따라 분석했을 때, 수도권 지역 대학의 의사소통 I (48.9%), 의사소통 II(55.2%), 사고(77.1%) 교과목 평가방식은 상대평가 비율이 높았으며, 기초과학 등(53.8%)의 경우 절대평가 비율이 높았다.

다음은 기초문해 교과목을 대학 규모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대학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규모의 대학에서 의사소통 II 교과목이 가장 많았다. 강좌 규모와 대학 규모에 따라 분석했을 때, 2천 명 미만 규모 대학의 의사소통 I 교과목은 21~30명의 강좌가 34.7%로 가장 많았고, 2천 명 이상에서 5천 명 미만 규모 대학의 의사소통 I (42.4%), 사고(53.3%), 정보문해(39.1%),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교과목(52.2%)은 31~50명의 강좌 규모가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 5천 명 이상에서 1만 명 미만 규모 대학과 1만 명 이상에서 2만 명 미만 규모 대학의 의사소통 II 교과목은 1~20명의 강좌가 가장 많이 개설되었으며, 2만 명 이상 규모 대학의 의사소통 I 교과목은 21~30명의 강좌가 64.9%로 가장 많았다. 기초문해 교과목을 평가방식과 대학규모에 따라 분석했을 때, 2천 명 미만, 2천 명 이상에서 5천 명 미만, 그리고 5천 명 이상에서 1만 명 미만 규모 대학의 기초문해 교과목의 평가방식은 상대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세계시민교육 및 융복합교육

교양교육으로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는 대학사례는 다음과 같다. 동국대학교는 교양교육과정에서 공통교양의 ‘전 지구적 사고와 문제’라는 대영역을 설정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필수이수 영역인 공통교양으로 ‘전 지구적 사고와 과제’라는 영역에 하위 범주로서 ‘21세기 시민’, ‘미래위험사회와 안전’, ‘지역연구’가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범주마다 4개의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 ‘동국 108 리더스’는 학생들이 스스로 프로젝트 팀을 꾸려 단체 봉사활동, 리더십 교육, 창의성 교육, 진로탐색 교육 등 다양한 행사를 자체 기획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

다. 이 교과목은 교양필수(2학점) 과목으로, 자신의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여 자연스럽게 전 지구적 이슈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수업에서는 자기성찰과 다양성, 인권, 정의 등 기본소양을 익히고 문제의식 함양을 위해 이론 및 경험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자아성찰보고서(30점), 글로벌이슈보고서(40점)이 중요한 평가요소가 된다.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시티즌십 페어’ 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매 학기 운영하고 있다.

교양교육으로서의 융복합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대학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하대학교는 융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크로스오버’ 교과목을 중점교양(전교생 필수 지정: 2학점) 영역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크로스오버 교과목은 자신의 전공과 다른 학문 분야를 교차 수강함으로써 창의 융복합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크로스오버 1: 인간의 탐색’, ‘크로스오버 2: 자연의 탐색’, ‘크로스오버 3: 사회의 탐색’ 으로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중심학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주대학교는 주도적이고 통합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강의 페어링’ 을 교양 선택(1학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강의 페어링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강의에서 학습한 지식, 방법, 기술 등을 활용하여 하나의 과제를 생성하고 해결하는 융복합 강의 또는 통합 활동 수업이다. 강의 페어링 수업은 ‘기존 수업에 기초한 융복합’, ‘학생주도성’, 그리고 ‘문제 발견’ 이라는 3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문제발견을 통해 융복합 교육을 지향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주도적 연구 프로젝트, 지도교수 멘토링 4회, 포스터 전시 등의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목표 문제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대학의 교양교육 목표가 시대변화와 사회 요구에 따라 변경되거나 새롭게 수립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주체적 인간의 형성이라고 하는 교양기초교육 본래의 목적보다는 창의 융합 미래사회의 문제해결이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도구적인 목적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교육을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내지 도구로 간주하는 관점은 결국 교육이 도구적 인간을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의식과 시민정신의 함양이라

는 대학의 교양기초교육 목표가 과거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난 것 역시 그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둘째, 교양 이수학점의 문제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한 140개 대학의 평균 졸업 요구학점은 평균 129.42학점이었고, 그 가운데 교양 이수학점은 평균 34.60학점으로 졸업 요구학점의 26.82%였다. 졸업 요구학점의 3분의 1 이상을 교양기초교육과정에서 이수하게 하는 미국 대학의 경우와 견주어보면 한국 대학의 교양기초교육과정 이수학점은 지극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국내 상황에서는 교양교육 이수학점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2023년 12월에 공개된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안)에 따르면, 교양교육 이수학점을 기존의 졸업 요구학점의 30% 내외에서 25% 내외로 축소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지표는 대학의 교양 이수학점을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하도록 하는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무전공 입학 확대하고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 대학 및 전공 학과(간) 장벽 허물기를 유도하는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교양기초교육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양 이수학점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양교육과정 구성의 편향성 문제이다. 이번 연구결과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60개 대학에서 개설하는 39,890개의 교양 교과목 가운데 교양기초교육의 본령에 해당하는 자유학예교육을 위한 교과목(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 교과목)은 9,031개 교과목으로 전체 교양 교과목의 22.64%에 불과했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에 개설되는 교양 교과목 수가 전체 교양 교과목의 3.0%에 불과하다는 사실, 기초문해교육을 위한 교양 교과목은 전체 교양 교과목의 47.6%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상 기초문해교육은 의사소통 I, II가 66%를 차지하고 사고 교육을 위한 교과목은 4%에 불과하다는 사실, 체험소양교육의 본질에 해당하는 정서적·사회적·신체적 체험교육은 연성화한 채 전체 체험소양교육 교과목의 절반을 대학 적응 및 진로 교육에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통해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교양교육과정의 편향성을 바로잡는 일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세계시민교육은 전 지구적 문제와 이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중심으로 하며, 참여와 연대에 기반한 행동적 실천을 촉진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세계시민교육은 여전히 개념 정립이 미흡하며, 가치와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강조되었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들이 세계시민교육으로 변모하거나,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교

육으로 외국어 교육이나 다문화 체험교육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접근은 ‘글로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세계시민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중층적이고 다원적인 개념과 특성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세계시민교육은 단순히 개인의 글로벌 경쟁력이나 역량 제고만을 의미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의 가치와 개념 등에 대해 숙고하고 본질에 부합하는 교육내용과 방법들이 개발되고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시대의 초연결성, 융복합 사회에서 대학교육도 학과 간,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융복합교육을 해야 하는 시대다. 특히 직업생태계 변화에 따라 대학의 학사구조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신입생을 무전공, 무학과로 선발하고 전공의 경계를 허물어 학생들이 스스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개혁을 가속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실제 대학 신입생부터 저학년 시기에 해당하는 교육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의 교양교육 체계가 신입생 무전공 입학 및 융복합교육의 체제 도입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면서 위상을 정립할지, 혹은 교양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변모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해야 할 시기다. 특히 기초문해교육 및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이 새로운 융복합 교육 체제 속에서 어떠한 모형으로 적용하는가에 대한 연구개발 및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융복합과 통섭의 시대에 대학의 교육도 융복합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이는 학문과 전공의 경계만 허물어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무전공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경계를 허물되, 학문의 토대인 기초학문들을 집중 편성하여 이를 학생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중요하다.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을 통해 학문 간 장벽을 뛰어넘는 융복합 교과목들을 폭넓게 경험함으로써 기초교육의 기반을 다지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 초연결의 사회를 살아가는 미래 인재들이 전 지구적 세계 속에서 인류 보편의 문제들을 규정하고 해결하는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정형화된 교양교육이 아니라 환경과 구조의 변화에 따른 유연하고 유기적인 교양교육과정과 운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양교육의 편성 및 이수 방식을 대학 전 학년에 걸쳐서 전공과 관계없이 적용되도록 체계를 바꾸고, 특히 전공과 교양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난 통합적 교육으로서 교양교육의 새로운 운영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대학 교양기초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 현황	4
II. 연구 방법	10
1. 자료수집	10
2. 자료분석	11
3. 참여대학	14
III. 연구 결과	16
1. 대학 교양교육 목표	16
2.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구성 현황	19
가. 대학 교육과정 체계와 학점 구성	19
1) 교육과정 구성 체계	19
2) 교육과정의 학점구성 비율	20
나.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체계와 구성 현황	23
1)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구성 체계와 분류 기준	23
2) 자유학예 교육과정 구성과 이수 체계	26
3) 기초문해 교육과정 구성과 이수 체계	28
4) 체험소양 교육과정 구성과 이수 체계	34
3. 교양기초교육 과정 운영 현황	41
가. 교양기초교육 전담 조직 및 구성	41
나. 교양기초 교육과정 편성 및 내용	42
1) 교과목 분석대상 대학 현황	42
2) 교양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 현황	43
- 교양 교과목의 강좌 규모와 이수 방식	47
- 교양 교과목의 담당 교원과 수업 및 평가 방식	49
3) 영역별 교양 교과목 운영 현황	50

- 자유학예 교과목의 운영 현황	50
- 기초문해 교과목의 운영 현황	55
- 체험소양 교과목의 운영 현황	57
다. 기초문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59
1)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60
- 의사소통 I 영역의 교육 내용과 운영 현황	60
- 의사소통 II 영역의 교육 내용과 운영 현황	63
- 사고 영역의 교육 내용과 운영 현황	65
- 정보문해 영역의 교육 내용과 운영 현황	67
-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영역의 교육 내용과 운영 현황	69
2) 설립유형별/지역별/규모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운영 현황	72
- 기초문해 교과목의 개설 현황	72
- 기초문해 교과목의 강좌 규모	74
- 기초문해 교과목의 이수 방식	79
- 기초문해 교과목의 담당 교원	82
- 기초문해 교과목의 평가 방식	86
- 기초문해 교과목의 수업유형	89
라. 세계시민교육	91
1) 세계시민교육의 패러다임과 개념	91
2) 세계시민교육의 내용	95
3) 세계시민교육 사례	100
- 동국대학교	100
- 숙명여자대학교	106
4) 세계시민교육 발전 방향	108
마. 융복합교육	109
1) 융합과 융합교육의 개념	109
2) 대학의 융합교육 형태	111
3) 교양 융복합 교육내용	112
4) 융복합교육 사례	115
- 인하대학교	115
- 아주대학교	119
5) 융복합교육 발전 방향	120

IV. 논의 및 제언	123
V. 참고문헌	127

표 목 차

〈표 II-1〉 대학교양교육 현황조사 설문 문항.....	10
〈표 II-2〉 세계시민교육/융복합교육 운영사례 질문문항.....	11
〈표 II-3〉 코드값 조정 예시.....	11
〈표 II-4〉 교양교육 과정 구성 현황 분석 항목.....	12
〈표 II-5〉 교양기초교육 교과목 내용분석 항목.....	14
〈표 II-6〉 참여대학 현황.....	15
〈표 III-1〉 대학의 교양교육 목표.....	18
〈표 III-2〉 대학의 교양교육 목표(2019).....	18
〈표 III-3〉 교양교육 목표의 소범주.....	18
〈표 III-4〉 대학의 교육과정 구성 체계 현황.....	20
〈표 III-5〉 대학 교육과정의 학점구성 현황.....	20
〈표 III-6〉 계열별 교육과정의 학점구성 현황.....	21
〈표 III-7〉 설립유형별/권역별/대학규모별 교육과정 학점구성 현황.....	22
〈표 III-8〉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 구성 체계.....	23
〈표 III-9〉 설립유형별 교양기초 교육과정 영역 분류 기준.....	24
〈표 III-10〉 권역별 교양기초 교육과정 영역 분류 기준.....	24
〈표 III-11〉 대학 규모별 교양기초 교육과정 영역 분류 기준.....	25
〈표 III-12〉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학점 구성 현황.....	26
〈표 III-13〉 자유학예 교육과정의 현황.....	27
〈표 III-14〉 자유학예 교육과정 구성 방식.....	27
〈표 III-15〉 기초문해 교육과정 학점.....	29
〈표 III-16〉 설립유형별 기초문해 교육과정 이수학점 구성 현황.....	29
〈표 III-17〉 권역별 기초문해 교육과정 이수학점.....	30
〈표 III-18〉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하위영역별/권역별 이수학점.....	31
〈표 III-19〉 대학 규모별 기초문해 교육과정 이수학점 구성 현황.....	32
〈표 III-20〉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하위영역별/대학 규모별 이수학점.....	33
〈표 III-21〉 체험소양 교육과정의 구성 및 이수방식.....	35
〈표 III-22〉 설립유형별 체험소양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방식.....	37
〈표 III-23〉 권역별 체험소양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방식.....	38

<표 III-24> 대학 규모별 체험소양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방식.....	39
<표 III-25> 대학의 교양교육 전담 조직 현황.....	41
<표 III-26> 교과목 분석대상 대학 현황.....	43
<표 III-27> 교양 교과목 분류 대영역과 하위영역.....	44
<표 III-28> 교양기초 교육과정 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44
<표 III-29> 기초문해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45
<표 III-30> 인문학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46
<표 III-31> 사회과학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46
<표 III-32> 자연과학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47
<표 III-33> 체험소양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47
<표 III-34> 교양 교과목의 강좌 규모: 수(비율:%).....	48
<표 III-35> 교양 교과목의 이수 방식: 수(비율:%).....	49
<표 III-36> 교양 교과목의 담당 교원: 수(비율:%).....	49
<표 III-37> 교양 교과목의 수업 유형: 수(비율:%).....	50
<표 III-38> 교양 교과목의 평가 방식(수, 비율:%).....	50
<표 III-39> 자유학예 인문학 분야 교과목 운영 현황.....	51
<표 III-40> 자유학예 사회과학 분야 교과목 운영 현황.....	53
<표 III-41> 자유학예 자연과학 분야 교과목 운영 현황.....	54
<표 III-42> 기초문해 교과목의 영역별 운영 현황(수, 비율:%).....	57
<표 III-43> 체험소양 교과목의 하위영역별 운영 현황.....	58
<표 III-44> 의사소통 I 영역의 교육 내용.....	60
<표 III-45> 의사소통 I 영역의 주요 교과목 운영 현황.....	62
<표 III-46> 의사소통 II 영역의 교육 내용.....	63
<표 III-47> 의사소통 II 영역의 주요 교과목 운영 현황.....	64
<표 III-48> 사고 영역의 교육 내용.....	66
<표 III-49> 사고 영역의 주요 교과목 운영 현황.....	66
<표 III-50> 정보문해 영역의 교육 내용.....	68
<표 III-51> 정보문해 영역의 주요 교과목 운영 현황.....	68
<표 III-52>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영역의 교육 내용.....	70
<표 III-53> 계열기초 성격의 BSM 교과목 현황.....	71
<표 III-54>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교과목의 운영 현황.....	71
<표 III-55> 설립유형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개설 현황.....	73

<표 III-56> 권역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개설 현황.....	74
<표 III-57> 대학 규모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개설 현황.....	74
<표 III-58> 설립유형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강좌 규모.....	75
<표 III-59> 권역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강좌 규모.....	76
<표 III-60> 대학 규모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강좌 규모.....	78
<표 III-61> 설립유형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이수 방식.....	79
<표 III-62> 권역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이수 방식.....	80
<표 III-63> 대학 규모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이수 방식.....	82
<표 III-64> 설립유형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담당 교원.....	83
<표 III-65> 권역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담당 교원.....	84
<표 III-66> 대학규모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담당 교원.....	85
<표 III-67> 설립유형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평가 방식.....	86
<표 III-68> 권역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평가 방식.....	87
<표 III-69> 대학 규모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평가 방식.....	88
<표 III-70> 설립유형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수업유형.....	89
<표 III-71> 권역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수업유형.....	89
<표 III-72> 대학 규모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수업유형.....	90
<표 III-73> 세계시민성의 유형과 핵심개념 및 주안점.....	94
<표 III-74>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개념틀.....	95
<표 III-75> 세계시민교육의 세 가지 영역에서의 핵심개념.....	96
<표 III-76> 동국대 글로벌시민역량 개념 정의 및 학습성과.....	101
<표 III-77> 동국대 ‘전 지구적 사고와 과제’ 영역의 교양 교과목 구성.....	102
<표 III-78> 동국대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과목 강의개요 및 강의목표 주요 키워드	103
<표 III-79> 동국대 세계시민교육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105
<표 III-80> 숙명여대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교과목 개요와 교육목표.....	107
<표 III-81> 교양 융합교과목 주제 및 내용.....	113
<표 III-82> 크로스오버 교과목 내용.....	115
<표 III-83> 크로스오버 운영 및 개설 현황.....	116
<표 III-84> 크로스오버 대주제.....	117
<표 III-85> 크로스오버 세부주제.....	117
<표 III-86> 강의페어링 교과목 개요.....	120

<표 III-87> 주제중심형 자유학예 교육과정 예시 121

그림 목 차

<그림 Ⅲ-1>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체계	98
<그림 Ⅲ-2> 인하대학교 융합교육모델(안)	118

부 록

〈부록 1〉 대학 교양기초교육 구성 및 현황 조사 설문 문항.....	132
〈부록 2〉 대학 교양교육 구성 및 현황조사 대학 명단.....	136
〈부록 3〉 대학 교양교육 교과목 분석 대상 대학 명단.....	140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 대학의 교양기초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 대학의 교양기초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는 1967년 중앙교육연구소의 『대학교육 내용에 관한 종합적 연구』 이후, 최근의 『대학 교양교육 국제 비교 연구』(신중호, 2022)에 이르기까지 문교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한 정부나 기관, 또는 개인 연구자를 통해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12년부터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연구과제로 수행한 일련의 대학 교양기초교육 현황조사 연구는 1995년 자율화를 명분으로 한 ‘5·31 교육개혁 방안’ 이후 표류하던 대학의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대학 교양기초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조사 대상 대학 수가 제한적이었고 교양기초교육 전반에 대한 개괄적 조사연구에 그친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 구성과 운영 실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면서도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대학 교양기초교육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 수요의 급속한 변화는 교양기초 교육과정에 대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도 한국 대학의 교양기초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실태에 대한 보다 정확하면서도 객관적인 조사와 연구가 전면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과 필요에서 출발하여 한국 대학의 교양기초교육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교양기초교육의 개선방안과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한국 대학의 교양기초 교육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고등교육의 보편화·대중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의 보편화·대중화 문제는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80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7.2%였으나 2022년 대학 진학률은 73.3%로(한국교육개발원, 2022), 1990년대 중반부터 30년 가까이 고등교육의 보편화·대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OECD 평균 대학 진학률이 44%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보편화·대중화 현상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의 보편화·대중화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기초학업능력 수준이 낮아지면서 대학교육에 적지 않은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신입생뿐 아니라 기초학업능력 수준이 떨어지는 편입생들에 대한 교육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인구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이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뿐 아니라 향후 더 커다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학업능력 수준과 학습 의욕이 보장되지 않는 ‘대학 전입 시대’를 맞아 교양교육의 보습 교육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가네코 모토히사, 2008; 요시다 아야, 2020).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글로컬대학30 사업 등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 수요의 변화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대학의 대응, 특히 신입생의 전공 선택권 강화와 무전공 선발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도 교양기초교육의 체계적 정비와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한국 대학의 대응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본 연구는 한국 대학의 교양기초교육 구성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전공-직업 적합성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일반능력(generic skills)을 함양하는 데 기여해 온 교양기초교육의 중요성을 주목하게 한다. 대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전공과 담당하는 일이 잘 맞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인문계열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사회계열은 45%, 자연계열은 50%, 공학계열도 55% 정도에 그쳤다(박철성, 2021; 홍성기, 2019). 의학계열(75%)을 제외하면, 전공-직업 적합성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졸자 취업률이 63.5% 내외임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응답 결과는 3분의 2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자신의 전공과는 무관한 분야에서 일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향후 기술의 진보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고 환경 변화가 심해지면 전공-직업 적합성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에서 대학교육에서 차지하는 교양기초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AI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처리 방식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까지 바꾸어 놓으면서 우리 사회를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로 접어들게 하였다. 디지털 전환은 직업의 변화만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다. Gig Economy가 가속화되면서 비정형 근로 형태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퀵서비스나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체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민원기, 2023).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가 폭증하고 정보 가공이 쉬워지면서

딥 페이크(Deep-fake)와 탈진실(post-truth)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챗GPT의 등장으로 정보 가공을 넘어 생성까지 가능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함께 윤리의 문제를 심각하게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송하석, 2023).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본질과 가치, 정체성에 대한 성찰과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한국 대학의 교양기초교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미국이나 유럽 대학에서는 특정 학문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융합교육 또는 통합교육이 교양기초교육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신중호, 2022). 현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가 대학 교양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융합교육 또는 통합교육은 대학 교양기초교육 혁신의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융합전공이나 연계전공을 통해 융합인재 양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특정 분야로 한정된 융합교육만으로는 미래 사회의 예측 불가능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전공·학과(부)·단과대학 간 장벽 없애기를 추진하겠다는 서울대학교의 중장기발전계획(2022)은 그런 점에서 기대해 볼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실행 여부는 지켜보아야 한다. 오히려 특정 전공을 막론하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교육인 교양기초교육에서 융합적 사고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융합교육 내지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더욱 긴급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융합교육 내지 통합교육이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는 그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대응 방안의 마련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지난 3년간 인류사회 전체를 커다란 혼란 속으로 빠뜨렸다. 수많은 피해를 낳은 코로나19 팬데믹은 특정 개인이나 국가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었으며, 또 특정 개인이나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인류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자각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팬데믹만이 아니다. 환경, 전쟁, 식량, 자원, 질병 등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종합

보고서(2023)는 앞으로 10년 안에 탄소 감축을 위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기후재난, 팬데믹, 식량난, 동식물 멸종 등 여러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고 경고하였다.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책무 역시 대학에서는 교양교육이 감당해야 할 과제인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교육 현황은 체계적으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한다.

2. 대학 교양기초 교육과정 에 대한 선행연구 현황

대학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는 일찍이 이영덕(1967), 강무섭(1976), 정혜령(1999) 등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었다.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학문분야별 평가(2001)가 이루어진 바 있었을 뿐, 대학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 현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9년 국책교양이 폐지되고 1995년 「교육법시행령」 제119조 ③항이 폐지되면서 대학의 교양기초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으나, 안타깝게도 전공교육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학술성을 결여한 흥미 위주의 소양교육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갔다. 대학에 교양기초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자율화라는 명분 아래 교양기초교육의 설 자리를 보장해 주던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게 되자 교양교육은 그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온전히 구현할 기회마저 잡지 못한 채, 전공교육 중심의 대학 구조 속에서 더욱 위축되어 갔던 것이다. 강창동(2012)의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다행히 2011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설립되어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가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자료에 기초한 교양기초교육 개선 정책들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손동현 외(2012), 박주호 외(2013), 유기웅 외(2014), 윤승준 외(2019) 등의 연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에서는 현재 한국 대학의 교양기초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한국교양기초교양교육원 설립 이후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성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 대학 교양교육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성과가 강창동(2012)의 연구이다. 강창동(2012)은 국립 및 사립 대학 각 10개교씩을 선정하여 교양교육의 목적, 이수학점과 비율, 이수 구분과 개설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논자는 해방 이후 한국의 대학 교양교육은 주로 미국의 일반 교양교육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1954년부터 졸업학점의 약 30% 정도의 비

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교양교육보다 전공교육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 대학은 교양교육의 목적으로 통합적 지식, 도덕성, 세계화 등을 강조하고 있었다. 졸업학점 대비 교양 학점은 국립대 25%, 사립대 26%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과 사립대학의 구분에 관계없이 대규모 대학들은 300개 과목 이상, 소규모 대학들은 200개 과목 정도를 교양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을 실제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발족한 이후, 비로소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과 변천 과정에 관한 통합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손동현 외(2012)는 대학 교양교육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고찰하면서 교양기초교육의 정체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198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의 전국 41개 대학 교양교육과정 현황을 조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양교육에 대한 교수, 학생, 직장인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구조, 교육행정, 교육지원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내용 측면에서는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기초지식 습득의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균형 잡히고 심화된 교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교육과정은 전공 학업과 동시에 전 학년에 걸쳐 실행되어야 하고, 교양기초교육은 전체 대학 교육의 30%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기초학문 교육의 토대 위에 응용학문 교육이 부가되는 교육구조를 가져야 하며, 행정적으로는 교양기초교육을 담당하는 독자적인 기관을 설치하고 전담교수들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 교양기초교육 선진화를 위한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의 역사와 변천과정을 고찰하여 교양기초교육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에 따라 실제 대학들에서 이루어지는 교양교육의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교양교육의 문제를 진단하였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향후 대학 교양기초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교양교육의 시각에서 교양교육을 구성하는 제반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첫 번째 연구 결과였다고 하겠다.

박주호 외(2013)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제시한 ‘교양기초교과목 영역 분류체계를 토대로 대학별 교양교육 교과목을 비교·분석하였다. 총 100개 대학의 교양기초교육 교과목을 분석한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 대학의 교양기초교육 교과목은 기초교육 32%, 심화교양교육 41%, 비학술적 체험교육 7%, 도구적 실용교육 18%의

편성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의 교양기초 교육과정은 교양기초 영역이 균형적이고 보편적으로 편성되지 못한 채 각 대학의 독자적인 교육 목적과 이념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취업률이 높은 대학일수록 교양기초교육에서 기초교과 비중이 높고 심화교양교육 교과 편성 비중이 낮았으며, 수도권 대학들은 심화교양교육의 비중이 높고 지역 대학들은 도구적 실용지식 교육의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전문지식 중심의 전공과 실무직업 교육 중심의 교양교육 구조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제시한 교양기초교육의 개념과 분류체계에 따라 100개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편성과 교과목 운영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라 하겠다.

한편 유기웅 외(2014)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교양교육 목표, 교육과정 편성, 교육내용, 교원, 교수·학습방법, 행·재정 운영 등 교양교육의 현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양교육 질 개선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 근거와 개선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국내 67개 4년제 대학에 대해 분석한 결과, 교양교육 목표는 주로 인격 형성, 인성 함양, 국제적 역량 강화, 기초소양 획득, 창의성 제고, 지성 및 교양 형성, 문화시민 육성, 봉사정신 함양 및 봉사활동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설 교과목 비율은 전공 69.3%, 교양 18.6%, 기타 4.5%로서 전공에 매우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율은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대학보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교양교육 총량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나아가 교양교육이 3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한편 온라인 교양교육 실태 점검 및 효과성 검증, 교양교육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기능과 역할 정립 및 유효성 규명, 신규 교양 교과목 개발 및 연구 지원,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교양기초교육 내실화, 대학 교양교육 정보공시지표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임 외(2017)는 2015년도 중앙일보 평가에서 1위에서 10위를 차지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여 교양교육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조사 대상 10개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을 모두 수집하여 보여주고 있다. 교양교육의 개념 및 목표, 비전 및 추진전략, 교양 교육과정 운영, 교과목 내용, 조직 및 지원체제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훈에 입각한 기초교양교육 운영, 대학 인재상 구현을 위한 기초교양교육과 전인적 인격과 지성 교육의 특성, 기초필수 교양 교과목으로서 글쓰기와 영어 교육, 오프라인 방

식 수업 운영 양상, 기술·인간·예술·문화·경제 주제의 융복합 기초교양 교과목 운영 등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윤승준 외(2019)는 전국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문헌 연구와 기초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학 교양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교양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대학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대학 요람과 교양교육과정표를 수합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문항은 대학 기본 정보, 교양교육의 목표,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내용,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등 6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대학 116개교와 전문대학 88개교의 교양교육 현황을 조사한 이 연구에서는 대학 교양교육의 정상화와 진흥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교양교육의 인적 토대 구축, 교양교육의 물적 토대 구축, 고등직업교육 교양교육 모델 개발, 고등교육 분야 평가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의 현황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모두 조사 분석함으로써 국내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였을 뿐 아니라 교양교육 목표,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과 내용, 운영, 질 관리, 전담조직 등 교양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 대학의 교양기초교육 현황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는 정승원 외(2020)의 연구다. 이 연구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4년제 대학의 교양기초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기초교육, 교양교육, 소양교육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총 132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대학의 교양기초교육 편성 비율은 26.2%(기초교육 10.4%, 교양교육 12.1%, 소양교육 3.6%)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교양기초교육 편성 비율이 부족하고 대학 간 교양기초교육과정 편성의 차별성 또한 미흡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제안은 그 전제조건에서부터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모델에서 제시한 교양기초교육의 영역별 구분은 현재 교양기초 교육과정 편성의 근거가 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교양기초교육 목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기초교육, 교양교육, 소양교육의 목표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 부족하고 한정된 교양기초교육 편성 비율 안에서 교육과정을 조절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개선하는 것은 편성 비율 확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확대는 교양기초교육의 영역별 목표를 지향하는 교육과정을 독립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2022년에는 세계 주요 나라의 대학 교양교육을 비교 연구하여 대학 교양교육의 국제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우리나라 대학 교양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신중호 외, 2022). 이 연구에서는 자체 개발한 교양교육 비교 준거틀을 적용하여 일본과 유럽 각국의 교양교육 현황을 우리나라 대학 교양교육 현황과 비교 분석하고, 한일 대학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교양교육 목표 교육과정 정책 수립, 이수기준, 개설/편성/운영, 질 관리, 의사 결정 조직, 전담조직 및 교원, 교양교육 변화 수준 및 계획의 요소 등 총 28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학은 교양교육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교양 교육과정의 기획과 편성, 교양 교과목의 개설과 운영, 교양교육의 성과 관리 및 환류에 이르는 모든 사항을 전담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반면, 일본 대학은 1991년 대강화 이후 기존의 교양교육 전담기관을 폐지하고 전학체제(全學體制)로 전환하여 새로운 교양교육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은 교양교육 전담기관을 독립시킴으로써 교양교육의 안정적인 기획과 운영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의 전학체제는 교양교육 담당 교원의 신분 불안 문제를 해소했다고 보고하였다.

2010년 이후 대학평가와 정부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서 교양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특히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ACE: Advanced in College Education) 사업에서 교양교육 지표 점수를 전공교육 지표보다 높게 설정하여 그간 교양교육에 소홀했던 것에서 벗어나 집중적 투자를 유도하였다(윤승준, 2021). ACE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명명되면서 대학 재정 확보 및 홍보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학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교양교육의 체계를 갖추면서 내실화를 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이 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학부교육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성공요인을 진단한 변기용 외(2015: 2017)의 연구에서는 총 8개 대학의 학부교육 성공모델 사례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대학 기본 특성, 학부교육 특징, 성공요인과 특징 등을 분석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교양교육은 각 대학의 설립목표와 이념, 교육목표와 인재상 구현 등을 위해 각 대학의 특성을 부각하여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10여 년간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평가와 사업이라는 외재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대학 자체적인 개선 노력과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교양기초교육 표준안에 대한 이해도 확산 등을 통해 교양기초교육의 개념과 정체성을 정립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시도를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은 앞의 논의에서와 같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분석 대상 대학 수가 많지 않았고, 대학정보공시 자료와 대학요람 등 피상적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실질적인 대학 교양교육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대한 많은 대학의 실제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자료를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교양교육의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이 본 연구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II.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대학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연구는 문헌 연구 및 설문조사, 그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연구팀은 교양기초 교육과정 구성 및 현황 분석을 위해 2023년 7월 1일 ~ 2023년 8월 31일까지 각 대학에 설문 응답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 자료는 2022년 기준 1) 대학 요람, 2) 교양교육과정 이수체계도 및 편람표, 3) 교양교육 운영 현황 엑셀표(대학 정보, 교과목 리스트 등)였으며, 총 66개 대학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료를 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 연구팀이 직접 홈페이지(대학 본부, 교양 담당 기관 등)에서 자료(대학 요람 또는 교양교육 과정 이수체계도)를 내려받아 최종 141개 대학 요람 또는 교양교육과정 이수체계도/편람표를 확보하였고, 이 중 140개 대학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¹⁾. 또한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66개 설문자료(교과목 리스트 포함) 중 60개 대학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²⁾

〈표 II-1〉 대학교양교육 현황조사 설문 문항

1. 대학 기본 정보	2. 교양교육 과정 구성 및 학점	3. 2022년 개설 기준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명 • 설립 유형 • 학교 소재지 • 대학 규모 • 전담 조직 • 전담 조직명 • 전담 조직의 부서장의 위상 • 교양교육위원회 설치 여부 • 교양교육위원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구성 • 교육과정 학점 • 교양교육 과정 구성 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명 • 학점구성 • 수강인원 • 이수방식 • 교원신분 • 평가방식 • 수업유형

1) 자료를 통해 충분한 정보 수집이 어려운 1개 대학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정보수집이 어려운 1개 대학의 설문자료를 분석에서 제외,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대학(2개 대학), 특수대학(1개 대학)을 제외하였다. 분석에 포함되는 63개의 대학 설문자료 중 2개 대학의 경우 교과목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세계시민교육과 융복합교육 운영 현황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학사례 조사를 위해 대학 관계자와 컨택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세계시민교육 사례: 숙명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융복합교육 사례: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이를 통해 1) 연구팀이 제공한 설문지에 대한 응답, 2) 설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표 II-2〉 세계시민교육/융복합교육 운영사례 질문 문항

구분	세부 내용 예시
1. 목표와 핵심 가치	세계시민교육/융복합교육 목표, 목적, 핵심가치, 비전 등
2. 교과목 개설 및 운영 현황	세계시민교육/융복합교육 개설 영역, 이수 구분, 이수학점, 등
3. 교과목 주제 및 내용	교과목명, 주차별 학습주제 및 내용 등
4. 운영조직 및 프로그램	세계시민교육/융복합교육 운영조직, 담당교원, 교재 개발 등
5. 교육 연계 비교과	세계시민교육/융복합교육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내용, 특징 등
6. 교육 운영 성과	학생만족도, 교육효과 등
7. 향후 발전 계획	개선 방향 및 확대 방안 등

2. 자료 분석

연구팀은 교양기초교육 과정 구성 현황 통계분석을 위한 데이터 가공(코딩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 수집된 대학의 대학요람, 교양교육과정 편람, 이수체계도 외 대학 홈페이지(예: 학칙, 학사규정, 교육과정 편람, 교양 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코드값을 입력하였다. 교양기초 교육과정 구성 현황과 관련하여, 코딩을 위한 44개의 항목을 개발하였으며, 항목별 세부 내용을 추가하여 분석 결과를 다층화하였다. 특히 코드값 입력 시, 1차 샘플 코딩을 한 다음,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연구진 전체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조정한 후 코딩을 최종 완료하였다.

〈표 II-3〉 코드값 조정 예시

코드값 조정 예시	
각 대학 구성 현황의 차이로 인한 코드값 입력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이 범위로 제시되어 있으면 최소값으로 입력 • 학과별로 구분되어 있으면 학과의 해당 계열을 연구자가 판단하여 계열의 최빈값 입력 • 최빈값 산출이 불가할 경우는 최소값 입력 • 계열이 존재하지 않으면 999로 입력

〈표 II-4〉 교양교육 과정 구성 현황 분석 항목

구분	코딩 항목(내용)
대학기본정보	1. 본교/분교 구분
	2. 대학구분
	3. 학교구분
	4. 설립유형
	5. 소재지
	6. 대학규모
	7. 전담조직 유무
	8. 전담조직 명칭
	9. 전담조직 부서장 위상
	10. 교양교육 운영 지원 위원회 유무
	10-1. 교양교육 운영 지원 위원회 개수(10번 문항에서 ①에 답한 경우)
	10-2. 교양교육 운영 지원 위원회 명칭
교양교육과정 구성 및 학점	11. 전공 교육과정 구성체계 유무
	12. 교양 교육과정 구성체계 유무
	13. 일반선택 교양과정 구성체계 유무
	14. 인문계열 전공 졸업 최소학점
	15. 인문계열 교양 졸업 최소학점
	16. 인문계열 졸업 최소학점
	17. 사회계열 전공 졸업 최소학점
	18. 사회계열 교양 졸업 최소학점
	19. 사회계열 졸업 최소학점
	20. 자연계열 전공 졸업 최소학점
	21. 자연계열 교양 졸업 최소학점
	22. 자연계열 졸업 최소학점
	교양교육과정 편성체계
24. 공학계열 교양 졸업 최소학점	
	25. 공학계열 졸업 최소학점
	26. 교양 교육과정 편성체계 대분류 방식
	27. 교양 교육과정 편성체계 하위분류 방식
기초문해	28. 기초문해교육 이수학점 총합 ()학점
	29. 교양 교육과정 편성체계 하위영역에서 기초문해교육 ① 의사소통(국어, 글쓰기, 말하기, 독서, 토론, 듣기 등)에 해당하는 영역의 이수학점
	30. 교양 교육과정 편성체계 하위영역에서 기초문해교육 ② 의사소통II (영어 등 외국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에 해당하는 영역의 이수학점 수
	31. 교양 교육과정 편성체계 하위영역에서 ③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에 해당하는 영역의 이수학점 수
	32. 교양 교육과정 편성체계 하위영역에서 ④ 정보문해(컴퓨팅적 사고, 데이터 문해, 디지털 문해)에 해당하는 영역의 이수학점 수
	33. 교양교육과정 편성체계의 하위영역에서

	⑤ 기초과학, 수학 및 양적추론에 해당하는 영역의 이수학점 수
자유학예	34. 자유학예교육과정 편성은 어떤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가? → 위의 문항에서 ①학문중심분류(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답한 경우
	34-1. 자유학예교육과정에 인문학이 설정되어 있는가?
	34-2. 자유학예교육과정에 사회과학이 설정되어 있는가?
	34-3. 자유학예교육과정에 자연과학이 설정되어 있는가?
	34-4. 자유학예교육과정에 융복합 분야가 설정되어 있는가?
	35. 자유학예교육과정 편성체계의 하위 영역 수는?
	36. 자유학예교육과정 이수방식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가?
	37. 자유학예교육과정 총 이수학점은 몇 학점인가?
체험소양	38. 교양교육과정 편성체계의 하위영역에서 ① 대학교시구현(종교 및 건학이념)에 해당하는 영역(교과목)이 있는가?
	38-1. 위의 38.의 항목에서, ① "있음"이라고 답한 경우, 이수방식은 어떠한가?
	39. 교양교육과정 편성체계의 하위영역에서, ② 대학적응 및 진로(신입생 세미나, 학사지도, 진로설계, 생애설계)에 해당하는 영역(교과목)이 있는가?
	39-1. 위의 39.의 항목에서 ① "있음"이라고 답한 경우, 이수 방식은 어떠한가?
	40. 교양교육과정 편성체계의 하위영역에서 ③ 정서적 체험(예술실기, 미적·정서적 체험중심교육)에 해당하는 영역(교과목)이 있는가?
	40-1. 위의 40.의 항목에서 ① "있음"이라고 답한 경우, 이수방식은 어떠한가?
	41. 교양교육과정 편성체계의 하위영역에서 ④ 사회적 체험(사회봉사 등)에 해당하는 영역(교과목)이 있는가?
	41-1. 위의 41.의 항목에서, ① "있음"이라고 답한 경우, 이수방식은 어떠한가?
계열기초	42. 교양교육과정 편성체계의 하위영역에서, ⑤ 신체적 체험(의지강화훈련, 심신단련, 체육 등)에 해당하는 영역(교과목)이 있는가?
	42-1. 위의 42.의 항목에서, ① "있음"이라고 답한 경우, 이수방식은 어떠한가?
	43. 교양교육과정 편성체계의 하위영역에서, ⑥ 취업창업(현장실습, 인턴십, 취업특강, 벤처창업 등)에 해당하는 영역(교과목)이 있는가?
	43-1. 위의 43.의 항목에서 "① 있음"이라고 답한 경우, 이수방식은 어떠한가?
계열기초	44. 계열기초 이수학점 ()학점

연구팀은 각 대학이 운영 중인 교과목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2022년 한국교양 기초교육원 표준안’을 기준으로 교양 교과목을 재분류하고 각 영역의 비율을 산출했다. 이를 위해,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에 경험이 많은 자문위원 16명을 위촉하여 대학으로부터 받은 60개 대학 교과목 리스트에 대한 분류를 의뢰했으며(예: 각 대학=2인 자문위원+연구진 분석), 연구팀에서 최종 검토 및 조정(예: 융복합 항목

추가, 계열기초(전공기초) 성격의 BSM 항목 추가) 후 코딩을 완성하였다.

<표 II-5> 교양기초교육 교과목 내용분석 항목

구분	코딩 항목(내용)				
기초문해	① 의사소통 I	② 의사소통 II	③ 사고	④ 정보문해	⑤ 기초과학, 등
인문학	⑥ 문학	⑦ 예술학	⑧ 역사학	⑨ 철학	⑩ 종교학
사회과학	⑪ 정치학	⑫ 경제학	⑬ 사회학	⑭ 문화학	⑮ 심리학
자연과학	⑯ 수리과학	⑰ 물질과학	⑱ 생명과학		
체험소양	⑲ 대학 교시 구현(종교 및 건학이념 구현) ⑳ 대학적응 및 진로(신입생세미나, 학사지도, 진로설계, 생애설계 등) ㉑ 정서적 체험교육(예술실기, 미적·정서적 체험 중심 교육) ㉒ 사회적 체험교육(사회봉사 등) ㉓ 신체적 체험교육(신체적 활동 중심 체육) ㉔ 취업·창업(현장실습, 인턴십, 취업특강, 벤처창업 등)				
기타	㉕ 기타(실용상식, 취미, 자격증 등)				
융복합	㉖ 융복합(2개 이상 학문 융합 교과 등)				
계열기초 BSM	㉗ 계열기초(전공기초) 성격의 BSM 교과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1.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일원분산분석,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증을 수행하였다. 연구팀은 대학별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빈도와 비율을 산출한 후 대학 맥락 변인별(대학설립유형, 계열, 권역별, 대학 특성 등) 교차분석을 통해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변인별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참여대학

이번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대학은 교육통계(2022) 기준 종합대학 190개교(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제외) 가운데 140개교였다. 이들 대학의 현황은 <표 II-6>과 같다. 140개교 가운데 본교는 138개교(98.6%)였고 분교는 2개교(1.4%)였으며, 설립유형별로는 국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 27개교(19.3%), 사단 혹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립대학은 113개교(80.7%)였다. 소재지별로는 서울특별시·경기도(이하 수도권) 지역 대학이 54개교(38.6%)로 가장 많았고,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이하 충청권) 지역 대학이 28개교(20.0%), 대

구광역시·경상북도·강원도(이하 대경강원권) 지역 대학이 20개교(14.3%), 그리고 광주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전라남도·전라북도(이하 호남제주권)과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이하 부울경) 지역 대학이 각각 19개(13.6%) 대학이었다. 대학 규모별로는 재학생 기준 5천 명 이상에서 1만 명 미만의 대학이 51개교(36.4%)로 가장 많았고, 1만 명 이상에서 2만 명 미만의 대학이 40개교(28.6%), 2천 명 이상에서 5천 명 미만의 대학이 23개교(16.4%) 순이었다.

〈표 II-6〉 참여대학 현황

내용	빈도	비율	내용	빈도	비율
① 본교/분교 구분			② 설립유형		
- 본교	138	98.6	- 국공립	27	19.3
- 분교	2	1.4	- 사립	113	80.7
전체	140	100.0	전체	140	100.0
③ 소재지			④ 대학규모		
- 수도권	54	38.6	- 2천명 미만	16	11.4
- 대경강원권	20	14.3	- 2천명 이상~5천명미만	23	16.4
- 충청권	28	20.0	- 5천명 이상~1만명미만	51	36.4
- 호남제주권	19	13.6	- 1만명 이상~2만명 미만	40	28.6
- 부울경	19	13.6	- 2만명 이상	10	7.1
전체	140	100.0	전체	140	100.0

Ⅲ. 연구 결과

1. 대학 교양교육 목표

교육과정의 구성 및 교과목 편성은 교육 목표 실현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각 대학이 설정한 교양교육의 목표는 해당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구성이나 교양 교과목 편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학의 교양기초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각 대학의 교양교육 목표를 조사하였다.

대학 요람 및 교양교육과정 편람표 등을 통해서 140개교의 교양교육 목표를 조사한 결과, 교양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대학은 135개 대학(96.43%)이었다. 나머지 5개 대학은 교양교육 목표 대신 학과의 교육 목표만 제시하고 있는 2개 신학대학과 교양교육 목표를 확인할 수 없었던 2개 대학, 그리고 교양교육의 목표 대신 교양교육과정의 목표를 제시한 1개 대학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2019년 조사 결과(96.55%)와 비교하면, 교양교육 목표 설정 대학의 비율은 0.12%p 감소한 것이나, 조사 대상교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특수대학(신학대학교)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차이는 유의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선행연구 결과나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이 대부분 교양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교양교육과정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이 설정하고 있는 교양교육 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22)에서는 교양교육의 목표를 ①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가치관 정립 ② 학문 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 능력 함양 ③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 ④ 융합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 ⑤ 공동체 의식과 시민정신 함양 ⑥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 등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이 설정한 교양교육의 목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윤승준 외, 2019)에서 사용했던 키워드 빈도 분석 방식을 준용하였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실천, 생태주의, 행복, 참여, 포용, 합리성, 성장, 학문, 성찰’이라는 키워드를 교양교육 목표로 설정한 대학들이 새롭게 보고되어 선행연구에서는 볼 수 없

었던 이들을 새로운 범주(기타)로 추가하였다.

조사 대상 140개교는 대부분 2개 이상의 교양교육 목표를 복수로 설정하고 있었으며,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설정한 ‘기타’를 제외하면 기존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교양교육 목표의 범주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어서 대학 교양교육의 목표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그 비율에 있어서는 2019년도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 III-1〉 대학의 교양교육 목표

대범주	빈도	비율(%)
창의 융합 미래사회, 문제해결	273	28.20
인격, 도덕, 리더십	206	21.28
기본, 소통능력, 핵심역량	125	12.91
지성, 교양, 인문, 감수성	113	11.67
봉사, 공동체, 민주시민, 국가	96	9.92
국제화, 다문화	63	6.51
진로, 직업, 전문성	30	3.10
기타	62	6.40
합계	968	100%

대학 교양교육의 목표 대범주 7개, 즉 ‘인격·도덕·리더십’, ‘창의 융합 미래사회·문제해결’, ‘봉사·공동체·민주시민·국가’, ‘기본·소통능력·핵심역량’, ‘지성·교양·인문·감수성’, ‘국제화·다문화’, ‘진로·직업·전문성’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았던 것은 ‘창의 융합 미래사회·문제해결’(273회, 28.20%)이었으며, ‘인격·도덕·리더십’(206회, 21.28%), ‘기본·소통능력·핵심역량’(125회, 12.91%), ‘봉사·공동체·민주시민·국가’(96회, 9.92%) 등이 뒤를 이었다. 2019년도 조사에서는 ‘인격·도덕·리더십’이 대학 교양교육의 목표로 가장 많이 설정된 범주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 자리를 ‘창의 융합 미래사회·문제해결’이 차지하였다. 물론 이번 조사에서도 ‘인격·도덕·리더십’은 대학 교양교육의 목표로 보편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는 대학의 교양교육 목표가 시대변화와 사회 수요에 따라 변경되거나 새롭게 설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봉사·공동체·민주시민·국가’와 관련한 교양교육 목표가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공동체나 집단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다양성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확대되어 온 우리 사회의 변화가 대학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에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II-2〉 대학의 교양교육 목표(2019)³⁾

대범주	빈도	비율(%)
인격, 도덕, 리더십	122	24.45
창의 융합 미래사회, 문제해결	118	23.65
봉사, 공동체, 민주시민, 국가	70	14.03
기본, 소통능력, 핵심역량	65	13.03
지성, 교양, 인문, 감수성	62	12.42
국제화, 다문화	46	9.22
진로, 직업, 전문성	16	3.21
합계	499	100%

대학 교양교육의 목표 소범주의 빈도에서는 ⑦ ‘창의, 창의성, 창의적, 창조, 창의인재, 창의적 인재, 혁신’ 이 88회(9.09%)로 가장 많았으며, ⑫ ‘융합, 융복합, 통섭’ 이 66회(6.82%), ① ‘인격, 인성, 인간성, 자아실현’ 이 65회(6.71%) 순으로 나타나 대범주에서 보여준 교양교육 목표의 변화와 지속성을 구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게 한다.⁴⁾

〈표 III-3〉 교양교육 목표의 소범주

대범주	소범주	빈도	비율(%)
인격, 도덕, 리더십	① 인격, 인성, 인간성, 자아실현	65	6.71%
	② 전인, 전인적	15	1.55%
	③ 인간관, 인간에 대한 이해, 세계관, 가치관, 가치	40	4.13%
	④ 도덕, 도덕성, 윤리, 윤리의식, 덕성, 책임감, 성실, 신뢰	32	3.31%
	⑤ 리더, 리더십, 지도자, 사회지도자, 자기주도, 자기관리, 자기이해	37	3.82%
	⑥ 기독교, 기독교적, 기독교 정신, 영성	17	1.76%
창의 융합 미래사회, 문제해결	⑦ 창의, 창의성, 창의적, 창조, 창의인재, 창의적 인재, 혁신	88	9.09%
	⑧ 미래사회, 미래지향적, 진취적, 21세기, 도전	18	1.86%
	⑨ 4차산업혁명, 소프트웨어, SW, 디지털, 정보, 정보화, 지식정보화,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12	1.24%
	⑩ 문제해결, 문제해결능력, 복합문제해결능력	40	4.13%
	⑪ 비판, 비판적, 비판적 사고, 판단력, 논리적 사고, 종합적 사고	49	5.06%
	⑫ 융합, 융복합, 통섭	66	6.82%
봉사, 공동체	⑬ 국가, 국가관, 국가발전, 국가사회, 지역사회	11	1.14%
	⑭ 공동체, 공동체의식, 사회 연계성, 협력	60	6.20%

3) 윤승준 외(2019),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6쪽.

4) ⑭ 공동체, 공동체의식, 사회 연계성, 협력 또한 60회(6.20%)로 나타나 여전히 교양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간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사회나 민주 사회, 시민정신, 시민의식, 사회봉사와 같이 공동체 전체의 가치나 이익을 우선하는 키워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민주시민, 국가	⑮ 민주 사회, 민주 시민, 민주 시민정신, 시민의식	12	1.24%
	⑯ 봉사, 봉사정신, 봉사활동, 봉사능력, 사회봉사	13	1.34%
기본, 소통능력, 핵심역량	⑰ 기본기, 기본능력, 기본소양, 기본역량, 기초, 기초교육, 기초소양, 기초역량, 기초지식, 기초학업능력	43	4.44%
	⑱ 소통, 소통능력, 의사소통, 의사소통능력, 문해력	62	6.40%
	⑲ 핵심역량	20	2.07%
지성, 교양, 인문, 감수성	㉔ 지성, 지성인, 지식, 지식인, 탐구, 이성, 철학적 사유, 통찰	49	5.06%
	㉕ 교양, 교양인, 교양지식, 교양형성	14	1.45%
	㉖ 문화, 문화시민, 문화예술, 문화인	9	0.93%
	㉗ 감성, 감수성, 감성조절, 공감, 정서, 배려	34	3.51%
	㉘ 인문, 인문학적	7	0.72%
국제화, 다문화	㉙ 다문화, 문화적 다양성, 다양성	11	1.14%
	㉚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 세계시민, 국제경쟁력	52	5.37%
진로, 직업, 전문성	㉛ 진로, 취업, 창업, 취창업	3	0.31%
	㉜ 직업기초능력, NCS, 현장실무능력, 실무적, 실용	9	0.93%
	㉝ 전문, 전문성, 전문인, 전문지식	18	1.86%
기타	⑳ 기타 (실천, 생태주의, 행복, 참여, 포용, 합리성, 성장, 학문, 성찰)	62	6.40%
합계		968	100%

2.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구성 현황

가. 대학 교육과정 체계와 학점 구성

1) 교육과정 구성 체계

1997년 12월 「고등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대학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교양과 전공, 선택 교과로 운영되어 온 대학의 교육과정은 1971년 「교육법시행령」 제119조 ③항 신설 이후 졸업학점의 30%를 교양 교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8년 3월 「교육법시행령」이 폐지되고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대학은 교육과정을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양, 전공,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 운영되어 온 과거의 관행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육과정을 교양과 전공으로 구성, 운영하기도 한다.

〈표 III-4〉 대학의 교육과정 구성 체계 현황

내용	빈도	비율	내용	빈도	비율
전공 구성 여부			교양 구성 여부		
- 있음	140	100.0	- 있음	140	100.0
- 없음	0	0.0	- 없음	0	0.0
전체	140	100.0	전체	140	100.0
일반선택 구성 여부					
- 편성/과목개설 있음	35	25.0			
- 편성/과목개설 없음	49	35.0			
- 편성 자체 없음	56	40.0			
전체	140	100.0			

140개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대학의 교육과정이 전공·교양·일반선택의 3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학은 84개교(60.0%)였고, 전공·교양의 2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학은 56개교(40.0%)였다. 물론 140개 대학은 전공 교육과정과 교양 교육과정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다만, 전공·교양·일반선택의 3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학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선택 교육과정에 일반선택 교과목을 실제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대학(35개교)에 비해 교과목 개설은 하지 않은 채 학생이 전공 이수학점과 교양 이수학점 외에 추가로 자유롭게 선택 이수하는 학점을 일반선택 이수학점으로 계상하는 대학(49개교)이 더 많았다. 전공·교양·일반선택 교육과정의 3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은 분석 대상 140개교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35개 대학에 그쳤다.

2) 교육과정의 학점구성 비율

분석 대상 140개 대학의 2022학년도 평균 졸업 요구학점은 129.42점이었다. 그 가운데 학위 취득을 위해 전공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수학점은 평균 65.48학점(50.63%)이었고, 교양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수학점은 평균 34.60학점(26.82%)이었다. 그리고 전공 이수학점과 교양 이수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선택 교육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평균 29.34학점(22.61%)이었다.

〈표 III-5〉 대학 교육과정의 학점구성 현황

구분	교양	전공	일반선택	합계(졸업)
학점(비율)	34.60(26.82%)	65.48(50.63%)	29.34(22.61%)	129.42(100%)

84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선행연구에 따르면,⁵⁾ 2019학년도 4년제 일반대학의 졸업학점은 130.81학점이었고, 그 가운데 전공 이수학점은 68.92학점(52.68%), 교양 이수학점은 35.08학점(26.82%)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9학년도에 비해 졸업 요구학점이 줄어들면서 전공 이수학점과 교양 이수학점도 줄어들었으나 졸업 요구학점 대비 교양 이수학점의 비율은 2019학년도와 2022학년도 모두 26.82%로 동일하였다. 이와 같은 교양 이수학점 비율은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에서 권장하는 졸업 요구학점의 35%에 미달할 뿐 아니라, 졸업 요구학점의 36~39%를 교양 교과목으로 이수하게 하는 미국 대학과도 커다란 격차를 보인다.⁶⁾ 전공-직업 적합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융합교육 내지 통합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전공 간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교양 이수학점의 낮은 비율은 우려할 만한 것이다.

연구팀은 대학 교육과정의 학점 구성 현황을 계열별(인문, 사회, 자연, 공학)로도 분석하였다. 대학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각 계열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어 140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의 교육과정 학점구성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대학의 사례 수는 조금씩 달랐다(인문 124개교, 사회 132개교, 자연 116개교, 공학 122개교). 아래의 <표 III-6>은 그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계열별 교육과정의 학점구성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I-6> 계열별 교육과정의 학점구성 현황

계열	교양학점(비율)	전공학점(비율)	일반선택학점(비율)	졸업이수학점(비율)
인문	33.78(26.33%)	63.94(49.77%)	30.80(23.90%)	128.53(100%)
사회	34.42(26.85%)	64.03(49.86%)	29.99(23.29%)	128.45(100%)
자연	34.84(27.24%)	65.94(51.26%)	28.86(22.22%)	129.65(100%)
공학	35.56(27.24%)	68.96(52.70%)	26.27(20.06%)	130.79(100%)
전체	34.60(26.82%)	65.48(50.63%)	29.34(22.61%)	129.42(100%)

계열별 교육과정의 학점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공학 및 자연계열의 졸업 요구

5) 윤승준 외(2019),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8쪽.

6) 132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양기초교육 현황을 조사했던 선행연구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전국 각 대학의 교양 이수학점은 평균 34.1학점으로, 졸업학점의 26.2%였다. 정승원 외(2020),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표준모델을 적용한 4년제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교양교육연구, 14-5, 한국교양교육학회, 88쪽.

학점이 인문·사회 계열에 비해 1~2학점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졸업학점 대비 교양학점 비율은 평균 26.82%(계열별 26.33~27.24%), 전공학점 비율은 평균 50.63%(계열별 49.77~52.70%), 일반선택학점 비율은 평균 22.61%(계열별 20.06~23.90%)였다.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의 교양 이수학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의 경우, 전공 이수에 필요한 기초 교과목들을 교양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이수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계열별 교양 이수학점의 정도는 대학 설립유형이나 소재지, 대학 규모별로 분석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국공립대학의 교양 이수학점 비율이 사립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수도권 지역 대학에 비해 여타 지역 대학의 전공 이수학점 비율이 적게는 2%p에서 많게는 7%p 이상 높았다. 특히 대경강원권 지역과 부울경 지역의 전공 이수학점 비율은 수도권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었고, 충청권과 호남제주권은 중간 정도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재학생 규모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에서는 교양 이수학점 비율이 여타 규모의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다양한 전공의 단과대학 및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개별 단과대학이나 학과의 특수성을 교육과정 편성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III-7〉 설립유형별/권역별/대학규모별 교육과정 학점구성 현황

구분		교양(비율)	전공(비율)	일반선택(비율)	졸업(비율)
설립 유형별	국공립	33.96(26.11%)	67.72(51.90%)	28.94(21.98%)	130.63(100%)
	사립	34.75(26.98%)	64.94(50.33%)	29.44(22.76%)	129.13(100%)
권역별	수도권	34.37(26.47%)	62.49(48.03%)	33.19(25.48%)	130.05(100%)
	대경강원권	34.98(27.96%)	66.75(53.20%)	24.63(19.29%)	126.35(100%)
	충청권	34.32(26.34%)	66.45(50.77%)	29.88(22.89%)	130.65(100%)
	호남제주권	36.34(28.07%)	65.85(50.67%)	27.59(21.24%)	129.77(100%)
	부울경	33.50(26.02%)	70.84(55.07%)	24.34(18.89%)	128.68(100%)
대학 규모별	2천명 미만	34.56(26.60%)	65.68(50.58%)	29.64(22.82%)	129.88(100%)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	34.36(26.62%)	62.37(48.24%)	32.59(25.12%)	129.32(100%)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35.02(27.21%)	67.54(52.26%)	26.93(20.70%)	129.49(100%)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34.65(26.92%)	64.11(49.72%)	30.10(23.35%)	128.86(100%)
	2만명 이상	32.85(25.17%)	67.25(51.54%)	30.68(23.29%)	130.78(100%)

나.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체계와 구성 현황

1)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구성 체계와 분류 기준

교양기초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체계는 대학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대학은 교양기초 교육과정을 대분류와 하위 분류 영역으로 구분하는 중층의 구성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상위 분류에 해당하는 대분류 영역에서는 교육내용(학문영역별, 주제별 등)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대학이 89개교(6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수 방식(필수, 선택, 선택적 필수)을 기준으로 하는 대학이 30개교(21.4%), 교육내용과 이수 방식, 혹은 역량이 혼재된 혼합형을 취한 대학이 16개교(11.4%)였다. 하위 분류 영역에서도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대학이 106개교(75.7%)로 가장 많았으며, 혼합형(16개교, 11.4%)과 역량(7개교, 5.0%)을 기준으로 한 대학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부분 대학이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교양기초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8〉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 구성 체계

내용	빈도	비율	내용	빈도	비율
편성 대 분류			편성 하위 분류		
① 교육내용	89	63.6	① 교육내용	106	75.7
② 이수방식	30	21.4	② 이수방식	3	2.1
③ 역량	3	2.1	③ 역량	7	5.0
④ 혼합형	16	11.4	④ 혼합형	16	11.4
⑤ 기타	2	1.4	⑤ 기타	8	5.7
전체	140	100.0	전체	140	100.0

교양기초 교육과정을 교육내용(학문영역별, 주제별 등)에 따라 구성하는 경향은 대학의 설립유형이나 소재지,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확인되었다. 대학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대학의 81.5%, 사립대학의 59.3%가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대영역을 분류하였으며, 하위 분류 영역 역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74.1%와 76.1%가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교양기초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표 III-9〉 설립유형별 교양기초 교육과정 영역 분류 기준

구분		교육내용	이수방식	역량	혼합형	기타	전체	
대분류	국공립	빈도	22	1	0	3	1	27
		비율	81.5%	3.7%	0.0%	11.1%	3.7%	100.0%
	사립	빈도	67	29	3	13	1	113
		비율	59.3%	25.7%	2.7%	11.5%	0.9%	100.0%
하위 분류	국공립	빈도	20	1	0	4	2	27
		비율	74.1%	3.7%	0.0%	14.8%	7.4%	100.0%
	사립	빈도	86	2	7	12	6	113
		비율	76.1%	1.8%	6.2%	10.6%	5.3%	100.0%

설립유형과 편성대분류 간 관계: $\chi^2 = 8.524$, $df=4$, $p=0.074$

설립유형과 편성하위분류 간 관계: $\chi^2 = 2.568$, $df=4$, $p=0.632$

권역별로도 교육내용을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대영역 및 하위영역의 분류 기준으로 삼은 대학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이수 방식이 많았다.

〈표 III-10〉 권역별 교양기초 교육과정 영역 분류 기준

구분		교육내용	이수방식	역량	혼합형	기타	전체	
대분류	수도권	빈도	32	13	1	7	1	54
		비율	59.3%	24.1%	1.9%	13.0%	1.9%	100.0%
	대경 강원권	빈도	12	5	0	2	1	20
		비율	60.0%	25.0%	0.0%	10.0%	5.0%	100.0%
	충청권	빈도	17	8	0	3	0	28
		비율	60.7%	28.6%	0.0%	10.7%	0.0%	100.0%
	호남 제주권	빈도	16	1	1	1	0	19
		비율	84.2%	5.3%	5.3%	5.3%	0.0%	100.0%
	부울경	빈도	12	3	1	3	0	19
		비율	63.2%	15.8%	5.3%	15.8%	0.0%	100.0%
하위 분류	수도권	빈도	37	2	5	7	3	54
		비율	68.5%	3.7%	9.3%	13.0%	5.6%	100.0%
	대경 강원권	빈도	16	1	1	1	1	20
		비율	80.0%	5.0%	5.0%	5.0%	5.0%	100.0%
	충청권	빈도	21	0	1	3	3	28
		비율	75.0%	0.0%	3.6%	10.7%	10.7%	100.0%
	호남 제주권	빈도	17	0	0	1	1	19
		비율	89.5%	0.0%	0.0%	5.3%	5.3%	100.0%
	부울경	빈도	15	0	0	4	0	19
		비율	78.9%	0.0%	0.0%	21.1%	0.0%	100.0%

소재지(5개 구분)와 편성 대분류 간 관계: $\chi^2 = 11.749$, $df=16$, $p=0.761$

소재지(5개구분)와 편성 하위 분류 간 관계: $\chi^2 = 13.041$, $df=16$, $p=0.670$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대영역 및 하위영역의 분류 기준은 대학 규모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 = 35.109, df=16, p=0.004$). 대영역의 경우,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의 대학,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의 대학, 그리고 2만 명 이상의 대학에서는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한 대학이 가장 많았지만, 2천 명 미만의 대학에서는 이수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대학이 가장 많았고, 2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의 대학에서는 교육내용과 이수 방식을 기준으로 한 대학의 비율이 같았다. 하위영역의 분류에서는 대학 규모와 관계없이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한 대학이 가장 많았다.

<표 III-11> 대학 규모별 교양기초 교육과정 영역 분류 기준

구분		교육내용	이수방식	역량	혼합형	기타	전체	
대분류	2천 명 미만	빈도	5	8	1	1	1	16
		비율	31.3%	50.0%	6.3%	6.3%	6.3%	100.0%
	2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	빈도	9	9	1	3	1	23
		비율	39.1%	39.1%	4.3%	13.0%	4.3%	100.0%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빈도	34	6	1	10	0	51
		비율	66.7%	11.8%	2.0%	19.6%	0.0%	100.0%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빈도	33	6	0	1	0	40
		비율	82.5%	15.0%	0.0%	2.5%	0.0%	100.0%
2만 명 이상	빈도	8	1	0	1	0	10	
	비율	80.0%	10.0%	0.0%	10.0%	0.0%	100.0%	
하위 분류	2천 명 미만	빈도	9	0	2	1	4	16
		비율	56.3%	0.0%	12.5%	6.3%	25.0%	100.0%
	2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	빈도	19	1	1	1	1	23
		비율	82.6%	4.3%	4.3%	4.3%	4.3%	100.0%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빈도	42	0	2	5	2	51
		비율	82.4%	0.0%	3.9%	9.8%	3.9%	100.0%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빈도	30	2	1	6	1	40
		비율	75.0%	5.0%	2.5%	15.0%	2.5%	100.0%
2만 명 이상	빈도	6	0	1	3	0	10	
	비율	60.0%	0.0%	10.0%	30.0%	0.0%	100.0%	

대학 규모와 편성 대분류 간 관계: $\chi^2 = 35.109, df=16, p=0.004$
 대학 규모와 편성 하위 분류 간 관계: $\chi^2 = 25.242, df=16, p=0.066$

조사 대상 140개교의 교양기초 교육과정 이수학점 평균은 34.60학점이었다. 졸업 요구학점의 26.82%에 해당하는 교양 이수학점이 자유학예교육과 기초문해교육, 체험소양교육 및 취·창업 교육에 각기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II-12〉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학점 구성 현황

구분	자유학예교육	기초문해교육	체험소양/취창업/계열기초교육	계
학점	12.72	10.19	11.82	34.60
비율	37.10%	29.65%	32.72%	100.00%

대학의 교양기초 교육과정은 교양기초교육의 본령인 자유학예교육이 중심을 이루어야 하고, 대학에서의 학업 및 평생학습을 위한 기초문해교육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기초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영역별 특성과 비중에 대한 고려 없이 자유학예교육과 기초문해교육, 체험소양 및 취·창업 교육/계열기초교육이 거의 균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일반선택 교육과정, 또는 전공 교육과정에서 소화해야 할 체험소양교육이나 취·창업교육, 계열기초교육에 해당하는 학점이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많은 학점을 투여해 이수하도록 해야 할 자유학예교육이나 기초문해교육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예교육이나 기초문해교육의 학점은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이나 해외 주요국의 교육과정을 참고할 때, 현재의 평균 이수학점보다 각각 5학점 이상, 3학점 이상 늘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이수학점 확대가 필요하다. 체험소양교육에 해당하는 학점을 비교과로 전환하거나 취·창업 교육을 위한 교과목을 일반선택과정으로 옮겨 개설하는 것, 그리고 계열기초교육을 위한 교과목을 전공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학점을 확보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양교육을 위해 온전히 투여되어야 할 학점이 교양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을 위해 투여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은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자유학예 교육과정 구성과 이수 체계

자유학예교육은 인간, 사회, 자연에 관한 학문적 탐구 성과를 습득함으로써 인간의 현실적인 삶의 기반과 여건, 이를 토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세계에 관한 지적 조망을 총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양기초교육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140개 대학의 자유학예 교육과정 구성 및 이수 체계를 조사한 결과, 75.7%에 해당하는 106개 대학이 자유학예 교육과정을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같이 학문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었고, 17개 대학(12.1%)

은 주제 중심으로, 5개 대학(3.6%)은 역량 중심으로, 그리고 6개 대학(4.3%)은 학문과 주제 혹은 학문과 역량 등을 혼합하여 자유학예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었다. 자유학예 교육과정을 학문 중심으로 분류하는 106개의 대학은 자유학예 교육과정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모두 편성하고 있었으며, 자유학예 교육과정에 자연과학을 포함한 대학은 그 가운데 101개교(95.3%)였다. 그러나 융복합 분야가 포함된 대학은 27개교(25.5%)로 제한적이었다.⁷⁾

자유학예 교육과정은 평균 4.6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자유학예 교육과정에서의 이수학점은 평균 12.72학점이었다. 자유학예 교육과정에서 최소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할 것을 권장하는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이나 평균 24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는 미국 대학들에 비하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대학의 자유학예교육 이수 학점은 양적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한다고 하겠다.

〈표 III-13〉 자유학예 교육과정의 구성현황

내용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자유학예교육 과정 총 학점	12.72	5.68	0	31
자유학예교육 과정 하위영역 수	4.67	1.88	0	11

4개 이상의 영역으로 구성된 자유학예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기준은 대학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편성된 모든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을 지정해 놓음으로써 모든 영역을 골고루 이수하게 하는 대학이 45개교(32.1%)였고, 편성된 영역 가운데 일부 영역을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하되 자유학예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총 학점을 지정한 대학이 73개교(52.1%), 그리고 이수 영역 지정 없이 필수 이수학점만 지정한 대학이 21개교(15.0%)였다.

〈표 III-14〉 자유학예 교육과정의 구성 방식

내용	빈도	비율	내용	빈도	비율
자유학예 편성체계			자유학예 이수방식		
- 학문중심	106	75.7	- 모든 영역 필수 지정	45	32.1
- 주제중심	17	12.1	- 일부 영역 선택 포함 지정	73	52.1
- 역량중심	5	3.6	- 영역 없이 필수 이수학점 지정	21	15.0
- 혼합형	6	4.3	전체	139	100.0

7)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표 III-14〉 참고

내용	빈도	비율	내용	빈도	비율
- 기타: 미분류	1	0.7			
전체	135	100.0			
자유학예: 인문학 설정 여부			자유학예: 사회과학 설정 여부		
- 예	106	100.0	- 예	106	100.0
- 아니오	0	0.0	- 아니오	0	0
전체	106	100.0	전체	106	100.0
자유학예: 자연과학 설정 여부			자유학예: 융복합 설정 여부		
- 예	101	95.3	- 예	27	25.5
- 아니오	5	4.7	- 아니오	79	74.5
전체	106	100.0	전체	106	100.0

3) 기초문해 교육과정 구성과 이수 체계

기초문해교육은 대학교육 및 평생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고력과 문해력 등 기초 학업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여기에는 의사소통 교육과 사고 교육, 정보문해 교육, 기초과학 및 수학 교육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의사소통 교육에 중점을 두어 왔고, 4차 산업혁명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보문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사고 교육이나 기초과학 및 수학 교육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40개 대학 조사 결과, 기초문해 교육과정에 대한 이수학점은 평균 10.19학점으로 교양 이수학점의 2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사소통 I(국어, 글쓰기, 말하기, 독서, 토론, 듣기 등)과 의사소통 II(영어 등 외국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각각 3.06학점과 3.79학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정보문해 교육이 평균 2.06학점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초과학, 수학 및 양적 추론과 논리적·비판적·창의적 사고 교육 분야의 이수학점은 각각 0.47학점과 0.58학점으로 낮게 편성되어 있었다.

〈표 III-15〉 기초문해 교육과정 학점

하위영역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① 의사소통 I	3.06	1.56	0	9
② 의사소통 II	3.79	2.08	0	9
③ 사고(논리적, 비판적, 창의적사고)	0.58	1.11	0	4
④ 정보문해	2.06	1.94	0	9
⑤ 기초과학, 수학, 양적 추론 등	0.47	1.81	0	17
계	10.19	4.46	0	26

기초문해 교육과정에 대한 국공립대학의 이수학점은 평균 9.19학점, 사립대학은 평균 10.43학점이었으며,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의사소통 I 영역과 의사소통 II 영역의 이수학점이 높았고, 사고와 기초과학 및 수학 영역의 이수학점이 낮았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기초문해 교육과정에 대한 필수 이수학점이 없는 대학이 있었으며, 일부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기초과학 및 수학 교과목의 이수학점이 최대 17점이었다. 그러나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이수학점에 대한 설립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16〉 설립유형별 기초문해 교육과정 이수학점 구성 현황

하위영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t	p
① 의사소통 I	국공립	27	2.89	1.60	0	1.911	.058
	사립	113	3.10	1.56	0		
② 의사소통 II	국공립	27	3.11	2.08	0	0.313	.755
	사립	113	3.96	2.06	0		
③ 사고	국공립	27	0.52	1.01	0	1.618	.108
	사립	113	0.59	1.13	0		
④ 정보문해	국공립	27	1.52	1.67	0	0.658	.516
	사립	113	2.19	1.98	0		
⑤ 기초과학·수학	국공립	27	0.81	3.31	0	1.311	.192
	사립	113	0.39	1.21	0		
총 학점	국공립	27	9.19	5.41	0	0.621	.535
	사립	113	10.43	4.19	0		

권역별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은 호남제주권 지역 대학이 11.16학점으로 가장 많았고, 대경강원권 지역 대학이 9.15학점으로 가장 적었다. 대경강원권 지역과 충청권 지역의 일부 대학은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필수 이수학점이 없었고, 호남제주권 대학의 경우에는 기초문해 교육과정 이수학점이 최대 26학점에 이르는

대학도 있었으나, 권역별 기초문해 이수학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17〉 권역별 기초문해 교육과정 이수학점

내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F	p	Turkey 사후검증
수도권	54	9.89	3.79	3	23	0.654	.625	
대경강원권	20	9.15	4.64	0	17			
충청권	28	10.68	5.31	0	18			
호남제주권	19	11.16	5.30	3	26			
부울경	19	10.47	3.91	4	18			

기초문해 교육과정 가운데 글쓰기, 말하기, 읽기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의사소통 I 영역의 경우, 권역별 이수학점을 분석한 결과 충청권 지역 대학이 평균 3.14학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경강원권 지역 대학이 평균 2.70학점으로 가장 낮았다. 의사소통 I 영역의 이수학점은 대학에 따라 0학점에서 최대 9학점까지 편차가 있기는 했으나, 권역별 이수학점의 편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이 중심을 이루는 의사소통 II 영역의 경우, 충청권 지역 대학의 이수학점이 평균 4.25학점으로 가장 높았고, 호남제주권 지역 대학의 이수학점이 평균 3.42학점으로 가장 낮았다. 의사소통 II 영역의 이수학점 역시 대학에 따라 0학점에서 최대 9학점까지 편차가 있기는 했으나, 권역별 이수학점 편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초문해 교육과정 가운데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수도권 지역 대학이 0.69학점으로 가장 많았고, 대경강원권 지역 대학이 0.20학점으로 가장 적었다. 권역별 이수학점 편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 대상 140개교 가운데 사고 교육을 위한 필수 학점을 편성한 대학은 33개교 (23.58%)였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2학점을 투여하고 있었다.⁸⁾ 75% 이상의 대학이 사고 교육을 학생 선택에 맡기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진입하면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정보문해 교육을 위한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은 대경강원권 지역 대학이 평균 2.30학점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 지역 대학이 평균 1.93학점으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권역별 이수학점의 편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8) 사고 교육에 부여하는 학점에 따라 33개교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학점 1개교, 2학점 20개교, 3학점 8개교, 4학점 4개교.

기초문해 교육과정 가운데 기초과학 및 수학 영역의 이수학점 상황을 살펴보면 기초과학 및 수학 교육이 사고 교육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초과학 및 수학 영역의 이수학점은 호남제주권 지역 대학이 평균 1.42학점으로 가장 많이 편성된 지역이었고, 대경강원권 지역 대학은 0.10학점으로 가장 적게 편성되었다. 특수한 사례이기는 하나 기초과학 및 수학 교과목 이수에 17학점을 부과하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하여, 조사 대상 140개교 가운데 기초과학 수학 영역에 필수 이수학점을 편성하고 있는 대학은 16개교(11.43%)에 불과했다.⁹⁾ 90%에 가까운 대부분의 대학이 기초과학 및 수학 영역에는 필수 이수학점을 배분하지 않았다.

〈표 III-18〉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하위영역별/권역별 이수학점

하위영역	권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F	p	Turkey 사후검증
의사소통 I	수도권	54	3.17	1.46	0	7	0.370	.830	
	대경강원권	20	2.70	1.56	0	6			
	충청권	28	3.14	1.90	0	9			
	호남제주권	19	2.95	1.22	0	6			
	부울경	19	3.11	1.70	0	6			
의사소통 II	수도권	54	3.69	2.07	0	8	0.660	.621	
	대경강원권	20	3.55	1.99	0	6			
	충청권	28	4.25	2.24	0	9			
	호남제주권	19	3.42	2.17	0	8			
	부울경	19	4.05	1.96	0	8			
사고	수도권	54	0.69	1.19	0	4	0.721	.579	
	대경강원권	20	0.20	0.62	0	2			
	충청권	28	0.61	1.23	0	4			
	호남제주권	19	0.58	1.02	0	3			
	부울경	19	0.63	1.16	0	4			
정보문해	수도권	54	2.04	2.06	0	9	0.115	.977	
	대경강원권	20	2.30	2.39	0	7			
	충청권	28	1.93	1.65	0	6			
	호남제주권	19	2.00	1.73	0	5			
	부울경	19	2.11	1.82	0	6			
기초과학 수학	수도권	54	0.17	0.72	0	4	2.164	.076	
	대경강원권	20	0.10	0.45	0	2			
	충청권	28	0.75	1.78	0	8			
	호남제주권	19	1.42	4.05	0	17			
	부울경	19	0.37	0.90	0	3			

9) 16개교 중에서도 9개 대학이 2학점, 3개 대학이 3학점을 필수로 부과하고 있었다.

대학 규모별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을 분석한 결과,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대학의 이수학점이 평균 11.23학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2천 명 미만 대학은 평균 9.00학점으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대학 규모별 기초문해 교육과정 이수학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19〉 대학 규모별 기초문해 교육과정 이수학점 구성 현황

대학 규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F	p	Turkey 사후검증
2천 명 미만	16	9.00	6.02	0	26			
2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	23	9.43	4.77	0	18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51	10.27	3.82	3	18	1.097	.361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40	11.23	3.69	3	18			
2만 명 이상	10	9.30	6.41	3	23			

대학 규모별로 보았을 때, 의사소통 I 영역의 이수학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951$, $p=.005$). 구체적으로,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규모 대학의 의사소통 I 이수학점이 2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의 대학이나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의 대학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대학의 의사소통 I 이수학점은 평균 3.78학점으로 글쓰기나 말하기, 읽기 등 의사소통 I 영역의 교과목 가운데 두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반면, 2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2.43학점으로 한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II 영역의 이수학점은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의 대학이 평균 4.06학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만 명 이상의 대학은 평균 3.00학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대학 규모별 의사소통 II 영역의 이수학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의사소통 I 영역과 의사소통 II 영역의 대학 규모별 이수학점 분포 곡선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I 영역은 대학 규모가 커질수록 학점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우상향 곡선 모양을 이루고 있다면, 의사소통 II 영역은 중간 규모의 대학에서 학점이 높고 소규모나 대규모 대학에서는 학점이 적은 정규분포 곡선 모양을 이룬다고 하겠다.

논리적·비판적·창의적·종합적 사고 관련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의 대학에서 가장 높았고(0.73학점), 2천 명 미만의 대학에서 가장 낮았지만(0.38학점), 대학 규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보문해 영역의 이수학점 역시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의 대학이 평균 2.25학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천 명 미만의 대학이 평균 0.94학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대학 규모별 정보문해 영역의 이수학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초과학 및 수학 영역의 이수학점은 2천 명 미만의 대학이 평균 1.19학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번 조사에 참여한 2만 명 이상의 대학 가운데에서는 기초과학 및 수학 영역 이수에 교양 학점을 투여하는 대학이 발견되지 않았다. 대학 규모별 기초과학 및 수학 영역의 이수학점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20〉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하위영역별/대학 규모별 이수학점

하위영역	대학 규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F	P	Turkey 사후검증
의사소통 I	2천 명 미만	16	2.56	1.46	0	4	3.951	.005	D > B, C
	2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	23	2.43	1.24	0	4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51	2.88	1.63	0	9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40	3.78	1.14	2	6			
	2만 명 이상	10	3.30	2.45	0	7			
	2만 명 이상	10	3.30	2.45	0	7			
의사소통 II	2천 명 미만	16	3.25	2.54	0	9	0.962	.430	
	2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	23	3.61	2.13	0	6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51	4.06	1.92	0	8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40	3.98	2.04	0	8			
	2만 명 이상	10	3.00	2.16	0	6			
	2만 명 이상	10	3.00	2.16	0	6			
사고	2천 명 미만	16	0.38	0.81	0	2	0.384	.820	
	2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	23	0.57	1.16	0	4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51	0.51	0.99	0	4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40	0.73	1.32	0	4			
	2만 명 이상	10	0.70	1.16	0	3			
	2만 명 이상	10	0.70	1.16	0	3			
정보문해	2천 명 미만	16	0.94	1.34	0	4	1.580	.183	
	2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	23	2.13	1.96	0	7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51	2.24	1.83	0	6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40	2.25	1.85	0	6			
	2만 명 이상	10	2.00	3.09	0	9			
	2만 명 이상	10	2.00	3.09	0	9			

기초과학 수학	2천 명 미만	16	1.19	4.25	0	17	1.055	.382
	2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	23	0.70	1.77	0	8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51	0.41	1.08	0	4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40	0.25	1.03	0	6		
	2만 명 이상	10	0.00	0.00	0	0		

4) 체험소양 교육과정 구성과 이수 체계

교양기초교육은 인식과 행동에서 보편타당한 일반 원리를 모색하고, 그것을 지·정·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는 전인적 능력의 함양을 지향한다. 자유학예교육이나 기초문해교육이 인지적 측면에 무게 중심을 둔다면, 정서적·사회적·신체적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체험소양교육은 행동적·실천적 측면에 무게 중심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실천 없는 가치 인식이나 당위 인지는 공허해 질 우려가 있기에 자유학예교육이나 기초문해교육은 체험소양교육을 통해 보완되고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험소양교육이 지닌 행동적·실천적 측면을 실제 교육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정규 수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에서는 체험소양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는 최소한만 설치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그런데 실제 대학에서는 정서적·사회적·신체적 체험 관련 교과목 외에 자유학예 교육과정이나 기초문해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여타의 다양한 교과목들, 구체적으로는 대학의 교시 과목이나 신입생 세미나, 혹은 취·창업 관련 교과목 등을 체험소양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최소화해야 할 체험소양 교육과정이 비대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이연주 외, 2020).

본 연구에서는 체험소양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이연주 외, 2020)를 참고하여 체험소양 교육과정의 하위영역을 ① 대학 교시 구현, ② 대학 적응 및 진로, ③ 정서적 체험, ④ 사회적 체험, ⑤ 신체적 체험, ⑥ 취·창업, ⑦ 기타 실용 및 취미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¹⁰⁾ 이를 기준으로 140

10) 본 연구에서는 각 대학에 개설된 교양 교과목 분석 시, 이와 같이 설정된 7개 하위영역에 따라 교과목을 분류하였다. 다만 교육과정 분석에서는 실용 및 취미를 교육과정의 독립된 영역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⑦ 기타 실용 및 취미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하위영역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개교의 체험소양 교육과정의 구성 및 이수방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I-21> 체험소양 교육과정의 구성 및 이수방식

내용		빈도	비율	내용		빈도	비율
체험소양: 대학 교시구현 여부				체험소양: 대학적응 및 진로 여부			
대학 교시구현 이수방식	필수	45	32.1	대학적응 및 진로 이수방식	필수	88	62.9
	선택적 필수	6	4.3		선택적 필수	8	5.7
	선택	2	1.4		선택	11	7.9
	전체	53	37.8		전체	107	76.5
대학 교시구현 교과목 없음		87	62.2	대학적응 및 진로 교과목 없음		33	23.5
전체		140	100.0	전체		140	100.0
체험소양: 정서적 체험 여부				체험소양: 사회적 체험 여부			
정서적 체험 이수방식	필수	4	2.9	사회적 체험 이수방식	필수	35	25.0
	선택적 필수	12	8.6		선택적 필수	11	7.9
	선택	59	42.1		선택	43	30.7
	전체	75	53.6		전체	89	63.6
정서적 체험 교과목 없음		65	46.4	사회적 체험 교과목 없음		51	36.4
전체		140	100.0	전체		140	100.0
체험소양: 신체적 체험 여부				체험소양: 취업창업 여부			
신체적 체험 이수방식	필수	7	5.0	취업창업 이수방식	필수	12	8.6
	선택적 필수	12	8.6		선택적 필수	16	11.4
	선택	66	47.1		선택	38	27.1
	전체	85	60.7		전체	66	47.1
신체적 체험 교과목 없음		55	39.3	취업창업 교과목 없음		74	52.9
전체		140	100.0	전체		140	100.0

체험소양 교육과정의 하위영역 가운데 신입생 세미나, 학사지도, 진로 설계, 생애 설계 등 ② 대학 적응 및 진로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편성한 대학이 107개교(76.5%)로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 등 ④ 사회적 체험 교과목을 편성한 대학은 89개교(63.6%), 체육, 심신 단련, 의지 강화훈련 등 ⑤ 신체적 체험 교과목을 편성한 대학은 85개교(60.7%), 예술실기를 비롯한 ③ 정서적 체험 교과목을 편성한 대학은 75개교(53.6%)로 그 뒤를 이었다. 종교 및 건학이념에 해당하는 ① 대학 교시 구현 영역과 ② 대학 적응 및 진로 영역의 교과목을 편성할 경우, 대부분 대학은 이들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였다. 반면 ③ 정서적 체험 영역과 ⑤ 신체적 체험 영역의 교과목은 대부분 대학이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였으며, ④ 사회적 체험 영역의 교과목은 필수와 선택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대학 설립유형에 따른 체험소양 교육과정 하위영역의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학 교시 구현 영역은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 = 10.366, df=3, p=0.016$)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교시 구현 교과목을 교양필수로 편성한 대학이 11.1%에 불과한 데 비해, 사립대학은 대학 교시 구현 교과목을 교양필수로 편성한 대학이 37.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② 대학 적응 및 진로 관련 교과목은 국공립대학의 48.1%와 사립대학의 66.4%가 교양필수로 편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필수나 선택 여부를 떠나 대학 적응 및 진로 관련 교과목 자체를 편성하지 않은 대학도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40.7%나 되었다. 대학 적응 및 진로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지 않는 사립대학은 19.5%에 그쳤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국공립대학의 경우, 대학 적응 및 진로 관련 교과목을 편성할 때 필수로 편성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예 편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립대학은 조사 대상 대학의 79.5%가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82.4%가 필수로 편성하고 있었다.

③ 정서적 체험 영역은 체험소양 교육과정의 하위영역으로 편성하지 않는 대학이 대학 설립유형과 관계없이 많았다. 국공립대학의 51.9%와 사립대학의 45.1%가 정서적 체험 영역을 체험소양 교육과정에 편성하지 않고 있었다. 편성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학이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었다(국공립대학의 76.9%, 사립대학의 79.0%).

④ 사회적 체험 영역 역시 대학 설립유형에 따른 이수방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 = 8.352, df=3, p=0.039$). 특히 국공립대학에서는 사회적 체험 교과목 자체를 편성하지 않는 경우(59.3%)가 사립대학(31.0%)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편성하더라도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는 경우(63.6%)가 많았으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필수(41.0%)와 선택(46.2%)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⑤ 신체적 체험 영역은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는 대학이 설립유형과 관계없이 많았으며(국공립대학의 48.1%, 사립대학의 46.9%), 체험소양 교육과정의 하위영역으로 편성하지 않는 대학도 많았다(국공립대학의 40.7%, 사립대학의 38.9%).

⑥ 취·창업 영역은 설립유형과 관계없이 체험소양 교육과정에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국공립대학의 59.3%, 사립대학의 51.3%). 그러나 취·창업 교과목을 체험소양 교육과정에 편성할 경우에는, 국공립대학에서는 선택적 필수(22.2%), 사립대학에서는 선택 과목(31.0%)으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표 III-22〉 설립유형별 체험소양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방식

하위영역	설립유형	요인	편성 및 이수 방식				
			교양필수	선택적 필수	선택	없음	전체
대학 교시 구현	국공립	빈도	3	0	0	24	27
		비율	11.1%	0.0%	0.0%	88.9%	100.0%
	사립	빈도	42	6	2	63	113
		비율	37.2%	5.3%	1.8%	55.8%	100.0%
대학 적응 진로	국공립	빈도	13	2	1	11	27
		비율	48.1%	7.4%	3.7%	40.7%	100.0%
	사립	빈도	75	6	10	22	113
		비율	66.4%	5.3%	8.8%	19.5%	100.0%
정서적 체험	국공립	빈도	2	1	10	14	27
		비율	7.4%	3.7%	37.0%	51.9%	100.0%
	사립	빈도	2	11	49	51	113
		비율	1.8%	9.7%	43.4%	45.1%	100.0%
사회적 체험	국공립	빈도	3	1	7	16	27
		비율	11.1%	3.7%	25.9%	59.3%	100.0%
	사립	빈도	32	10	36	35	113
		비율	28.3%	8.8%	31.9%	31.0%	100.0%
신체적 체험	국공립	빈도	2	1	13	11	27
		비율	7.4%	3.7%	48.1%	40.7%	100.0%
	사립	빈도	5	11	53	44	113
		비율	4.4%	9.7%	46.9%	38.9%	100.0%
취·창업	국공립	빈도	2	6	3	16	27
		비율	7.4%	22.2%	11.1%	59.3%	100.0%
	사립	빈도	10	10	35	58	113
		비율	8.8%	8.8%	31.0%	51.3%	100.0%

설립유형과 대학 교시 구현 교과목 이수 방식 간 관계: $\chi^2 = 10.366$, $df=3$, $p=0.016$
 설립유형과 대학 적응 및 진로 교과목 이수 방식 간 관계: $\chi^2 = 6.237$, $df=3$, $p=0.101$
 설립유형과 정서적 체험 교과목 이수 방식 간 관계: $\chi^2 = 3.768$, $df=3$, $p=0.288$
 설립유형과 사회적 체험 교과목 이수 방식 간 관계: $\chi^2 = 8.352$, $df=3$, $p=0.039$
 설립유형과 신체적 체험 교과목 이수 방식 간 관계: $\chi^2 = 1.338$, $df=3$, $p=0.720$
 설립유형과 취·창업 교과목 이수 방식 간 관계: $\chi^2 = 6.890$, $df=3$, $p=0.075$

본 연구에서는 체험소양 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방식을 권역별로도 분석해 보았으며, 대학 규모별로도 분석해 보았으나 대학 규모별 취창업 교과목의 이수방식을 제외하면, 11)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만 참고로 제시한다.

11) 대학 규모별 취·창업 교과목의 이수 방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 = 8.352$, $df=3$, $p=0.039$) 취·창업 교과목이 없는 대학이 40.4%(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에서 81.3%(2천 명 미만)로 가장 많았으나,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대학과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대학의 경우에는 취·창업 교과목이 없는 대학의 비율과 선택 이수하도록 한 대학의 비율이 각각 45.1%와 31.4%, 40.0%와 35.0%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III-23〉 권역별 체험소양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방식

하위영역	권역	요인	편성 및 이수 방식					
			교양필수	선택적 필수	선택	없음	전체	
대학 교시 구현	수도권	빈도	24	1	1	28	54	
		비율	44.4%	1.9%	1.9%	51.9%	100.0%	
	대경 강원권	빈도	5	1	0	14	20	
		비율	25.0%	5.0%	0.0%	70.0%	100.0%	
	충청권	빈도	6	4	1	17	28	
		비율	21.4%	14.3%	3.6%	60.7%	100.0%	
	호남 제주권	빈도	6	0	0	13	19	
		비율	31.6%	0.0%	0.0%	68.4%	100.0%	
	부울경	빈도	4	0	0	15	19	
		비율	21.1%	0.0%	0.0%	78.9%	100.0%	
	대학 적응 진로	수도권	빈도	34	2	8	10	54
			비율	63.0%	3.7%	14.8%	18.5%	100.0%
대경 강원권		빈도	9	3	1	7	20	
		비율	45.0%	15.0%	5.0%	35.0%	100.0%	
충청권		빈도	17	1	0	10	28	
		비율	60.7%	3.6%	0.0%	35.7%	100.0%	
호남 제주권		빈도	13	1	0	5	19	
		비율	68.4%	5.3%	0.0%	26.3%	100.0%	
부울경		빈도	15	1	2	1	19	
		비율	78.9%	5.3%	10.5%	5.3%	100.0%	
정서적 체험		수도권	빈도	2	4	27	21	54
			비율	3.7%	7.4%	50.0%	38.9%	100.0%
	대경 강원권	빈도	0	1	7	12	20	
		비율	0.0%	5.0%	35.0%	60.0%	100.0%	
	충청권	빈도	1	4	7	16	28	
		비율	3.6%	14.3%	25.0%	57.1%	100.0%	
	호남 제주권	빈도	1	2	8	8	19	
		비율	5.3%	10.5%	42.1%	42.1%	100.0%	
	부울경	빈도	0	1	10	8	19	
		비율	0.0%	5.3%	52.6%	42.1%	100.0%	
	사회적 체험	수도권	빈도	11	3	20	20	54
			비율	20.4%	5.6%	37.0%	37.0%	100.0%
대경 강원권		빈도	4	3	8	5	20	
		비율	20.0%	15.0%	40.0%	25.0%	100.0%	
충청권		빈도	10	3	3	12	28	
		비율	35.7%	10.7%	10.7%	42.9%	100.0%	
호남 제주권		빈도	6	2	6	5	19	
		비율	31.6%	10.5%	31.6%	26.3%	100.0%	
부울경		빈도	4	0	6	9	19	
		비율	21.1%	0.0%	31.6%	47.4%	100.0%	

하위영역	권역	요인	편성 및 이수 방식				
			교양필수	선택적 필수	선택	없음	전체
신체적 체험	수도권	빈도	1	4	28	21	54
		비율	1.9%	7.4%	51.9%	38.9%	100.0%
	대경 강원권	빈도	2	0	10	8	20
		비율	10.0%	0.0%	50.0%	40.0%	100.0%
	충청권	빈도	1	6	12	9	28
		비율	3.6%	21.4%	42.9%	32.1%	100.0%
	호남 제주권	빈도	2	1	7	9	19
		비율	10.5%	5.3%	36.8%	47.4%	100.0%
	부울경	빈도	1	1	9	8	19
		비율	5.3%	5.3%	47.4%	42.1%	100.0%
취·창업	수도권	빈도	8	3	17	26	54
		비율	14.8%	5.6%	31.5%	48.1%	100.0%
	대경 강원권	빈도	0	3	8	9	20
		비율	0.0%	15.0%	40.0%	45.0%	100.0%
	충청권	빈도	2	5	6	15	28
		비율	7.1%	17.9%	21.4%	53.6%	100.0%
	호남 제주권	빈도	1	3	2	13	19
		비율	5.3%	15.8%	10.5%	68.4%	100.0%
	부울경	빈도	1	2	5	11	19
		비율	5.3%	10.5%	26.3%	57.9%	100.0%

소재지(5개 구분)와 대학 교시 구현 교과목 이수 방식 간 관계: $\chi^2 = 17.429$, $df=12$, $p=0.134$
 소재지(5개 구분)와 대학 적응 및 진로 교과목 이수 방식 간 관계: $\chi^2 = 19.157$, $df=12$, $p=0.085$
 소재지(5개 구분)와 정서적 체험 교과목 이수 방식 간 관계: $\chi^2 = 9.243$, $df=12$, $p=0.682$
 소재지(5개 구분)와 사회적 체험 교과목 이수 방식 간 관계: $\chi^2 = 13.133$, $df=12$, $p=0.359$
 소재지(5개 구분)와 신체적 체험 교과목 이수 방식 간 관계: $\chi^2 = 12.581$, $df=12$, $p=0.400$
 소재지(5개 구분)와 취·창업 교과목 이수 방식 간 관계: $\chi^2 = 13.209$, $df=12$, $p=0.354$

<표 III-24> 대학 규모별 체험소양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방식

하위영역	대학규모	요인	편성 및 이수 방식				
			교양필수	선택적 필수	선택	없음	전체
대학 교시 구현	2천명 미만	빈도	7	0	0	9	16
		비율	43.8%	0.0%	0.0%	56.3%	100.0%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	빈도	11	1	0	11	23
		비율	47.8%	4.3%	0.0%	47.8%	100.0%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빈도	11	2	1	37	51
		비율	21.6%	3.9%	2.0%	72.5%	100.0%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빈도	12	3	1	24	40
		비율	30.0%	7.5%	2.5%	60.0%	100.0%
	2만명 이상	빈도	4	0	0	6	10
		비율	40.0%	0.0%	0.0%	60.0%	100.0%

하위영역	대학규모	요인	편성 및 이수 방식				
			교양필수	선택적 필수	선택	없음	전체
대학 진보	2천명 미만	빈도	9	0	2	5	16
		비율	56.3%	0.0%	12.5%	31.3%	100.0%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	빈도	11	1	2	9	23
		비율	47.8%	4.3%	8.7%	39.1%	100.0%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빈도	32	6	1	12	51
		비율	62.7%	11.8%	2.0%	23.5%	100.0%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빈도	29	1	5	5	40
		비율	72.5%	2.5%	12.5%	12.5%	100.0%
	2만명 이상	빈도	7	0	1	2	10
		비율	70.0%	0.0%	10.0%	20.0%	100.0%
정서적 체험	2천명 미만	빈도	2	2	5	7	16
		비율	12.5%	12.5%	31.3%	43.8%	100.0%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	빈도	0	5	11	7	23
		비율	0.0%	21.7%	47.8%	30.4%	100.0%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빈도	0	4	18	29	51
		비율	0.0%	7.8%	35.3%	56.9%	100.0%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빈도	2	1	19	18	40
		비율	5.0%	2.5%	47.5%	45.0%	100.0%
	2만명 이상	빈도	0	0	6	4	10
		비율	0.0%	0.0%	60.0%	40.0%	100.0%
사회적 체험	2천명 미만	빈도	5	2	5	4	16
		비율	31.3%	12.5%	31.3%	25.0%	100.0%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	빈도	9	2	6	6	23
		비율	39.1%	8.7%	26.1%	26.1%	100.0%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빈도	12	6	13	20	51
		비율	23.5%	11.8%	25.5%	39.2%	100.0%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빈도	8	1	15	16	40
		비율	20.0%	2.5%	37.5%	40.0%	100.0%
	2만명 이상	빈도	1	0	4	5	10
		비율	10.0%	0.0%	40.0%	50.0%	100.0%
신체적 체험	2천명 미만	빈도	2	2	5	7	16
		비율	12.5%	12.5%	31.3%	43.8%	100.0%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	빈도	1	4	14	4	23
		비율	4.3%	17.4%	60.9%	17.4%	100.0%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빈도	3	5	21	22	51
		비율	5.9%	9.8%	41.2%	43.1%	100.0%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빈도	1	1	20	18	40
		비율	2.5%	2.5%	50.0%	45.0%	100.0%
	2만명 이상	빈도	0	0	6	4	10
		비율	0.0%	0.0%	60.0%	40.0%	100.0%

하위영역	대학규모	요인	편성 및 이수 방식				
			교양필수	선택적 필수	선택	없음	전체
취·창업	2천명 미만	빈도	1	1	1	13	16
		비율	6.3%	6.3%	6.3%	81.3%	100.0%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	빈도	0	3	5	15	23
		비율	0.0%	13.0%	21.7%	65.2%	100.0%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빈도	2	10	16	23	51
		비율	3.9%	19.6%	31.4%	45.1%	100.0%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빈도	8	2	14	16	40
		비율	20.0%	5.0%	35.0%	40.0%	100.0%
	2만명 이상	빈도	1	0	2	7	10
		비율	10.0%	0.0%	20.0%	70.0%	100.0%

대학 규모와 대학 교시 구현 교과목 이수 방식 간 관계: $\chi^2 = 9.445$, $df=14$, $p=0.665$
 대학 규모와 대학 적응 및 진로 교과목 이수 방식 간 관계: $\chi^2 = 15.931$, $df=12$, $p=0.194$
 대학 규모와 정서적 체험 교과목 이수 방식 간 관계: $\chi^2 = 20.618$, $df=12$, $p=0.056$
 대학 규모와 사회적 체험 교과목 이수 방식 간 관계: $\chi^2 = 10.627$, $df=12$, $p=0.561$
 대학 규모와 신체적 체험 교과목 이수 방식 간 관계: $\chi^2 = 13.938$, $df=12$, $p=0.305$

3. 교양기초교육 과정 운영 현황

가. 교양기초교육 전담 조직 및 구성

분석 대상 140개 대학 중에서 교양교육 전담 조직이 설립되어 있는 대학은 132개교(94.3%)였으며, 132개 대학 중 99개교(70.7%)는 교양교육 전담 조직의 부서장이 교무위원급으로 보임되어 있었다. 그리고 교양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가 존재하는 대학은 129개교(92.1%)였고,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대학은 10개교(7.1%)였다. 대학의 교양교육 관련 위원회는 평균적으로 1.63개가 구성되어 있었다.

〈표 III-25〉 대학의 교양교육 전담 조직 현황

내용	빈도	비율	내용	빈도	비율
전담조직 유무			부서장 위상		
- 있음	132	94.3	- 교무위원급	99	70.7
- 없음	8	5.7	- 교무위원급 아님	33	23.6
전체	140	100.0	- 확인불가	8	5.7
			전체	140	100.0
위원회 유무					

내용	빈도	비율	내용	빈도	비율
- 있음	129	92.1			
- 없음	10	7.1			
- 확인불가	1	0.7			
전체	140	100.0			

2019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교양교육 전담 조직을 설치한 대학의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고(▲4.63%p, 89.66%→94.29%), 부서장을 교무위원급으로 위촉한 대학의 비율도 다소 증가하였다(▲4.04%p, 66.67%→70.71%). 다만, 교양교육 관련 위원회의 설치 대학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2.11%p, 94.25%→92.14%).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및 행정인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비교할 수 없어 단정적으로 논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와 같은 수치는 최근 4년 사이에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대학의 교양교육 전담 조직이 좀 더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위상도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교양기초 교육과정 편성 및 내용

1) 교과목 분석 대상 대학 현황

교양교육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60개 대학에서 2022학년도에 개설한 39,890개의 교과목(계절학기 제외)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교과목 분석 대상 대학에 관한 정보는 <표 III-26>과 같다. 60개 대학은 본교로 구성된 대학은 59개교(98.3%)였고, 분교는 1개(1.7%) 대학이었다. 국공립대학은 8개교(13.3%)였고, 사립대학은 52개교(86.7%)였다. 대학의 소재지는 수도권 지역 대학이 25개교(41.7%)로 가장 많았고, 부울경 지역 대학이 11개교(18.3%), 충청권 지역 대학이 10개교(16.7%), 대경강원권 지역 대학이 9개교(15.0%), 그리고 호남제주권 지역 대학이 5개교(8.3%)였다. 대학 규모별로는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의 대학이 25개교(41.7%)로 가장 많았고, 2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의 대학과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의 대학이 각각 11개교(18.3%)로 뒤를 이었다.

〈표 III-26〉 교과목 분석 대상 대학 현황

내용	빈도	비율	내용	빈도	비율
① 본교/분교 구분			② 설립유형		
- 본교	59	98.3	- 국공립	8	13.3
- 분교	1	1.7	- 사립	52	86.7
③ 소재지			④ 대학규모		
- 수도권	25	41.7	- 2천명 미만	8	13.4
- 대경강원권	9	15.0	- 2천명 이상~5천명미만	11	18.3
- 충청권	10	16.7	- 5천명 이상~1만명미만	25	41.7
- 호남제주권	5	8.3	- 1만명 이상~2만명 미만	11	18.3
- 부울경	11	18.3	- 2만명 이상	5	8.3
전체	60	100	전체	60	100

2) 교양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 현황

2022학년도에 60개 대학에서 개설한 39,890개 교과목(계절학기 제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연구진은 16명의 교양교육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¹²⁾ 동일 교과목에 대해 2명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7개 영역(기초문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험소양, 융복합, 기타)과 27개의 하위영역(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문학, 예술학, 경제학, 생명과학 등)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¹³⁾

12) 교과목 분류에 대한 평정자 간의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 IRR)는 Landis와 Koch(1977)가 제안한 분류에 따라 상당한(substantial)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s kappa=0.695, $p < .001$).

13) 교과목 분류는 각 대학이 제출한 교과목명을 가지고 판단하였다. 때문에 분류의 정확도에서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강의계획서를 확인한 뒤 분류할 수 있었으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각 대학의 강의계획서를 모두 확보하기가 어렵고 연구기간 또한 제한되어 있어 교과목명을 보고 판단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교양교육 현장을 경험하고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에 참여해 온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기에 교과목명만을 가지고도 교과목의 성격과 내용을 충분히 추론해 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동일 교과목에 대한 2명의 자문위원 판정 결과가 상당한 일치도를 보이는 것은 그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표 III-27〉 교양 교과목 분류 대영역과 하위영역

기초문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험소양	융복합	기타
의사소통 I	문학	정치학	수리과학	대학교시구현	융복합	
의사소통 II	예술학	경제학	물질과학	대학적응및진로		
사고	역사학	사회학	생명과학	정서적 체험		
정보문해	철학	문화학		사회적 체험		
기초과학수학	종교학	심리학		신체적 체험		
계열기초 BSM				취업·창업		
				기타 실용과목		

60개 대학의 39,890개 교과목을 7개 영역으로 분류하였을 때,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등을 포함하는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19,004개(47.6%)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교시 구현 교과목과 대학 적응 및 진로 교과목, 정서적 체험 교과목, 사회적 체험 교과목 등을 포함하는 체험소양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7,953개(19.9%)로 뒤를 이었다. 융복합 교과목의 경우 227개(0.6%)로 가장 적었고, 수리과학, 물질과학, 생명과학을 포함하는 자연과학 교과목 역시 1,194개(3.0%)로 적은 수를 보였다.

이와 같은 통계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교양기초교육의 본령이라고 할 자유학예 교과목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모두 합해도 전체 개설 강좌의 22.64%(9,031개)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자유학예 강좌 전체가 기초문해 강좌 규모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체험소양 강좌는 자유학예 강좌의 88.06%에 이르렀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이 기초문해에 집중되어 있으며, 체험소양 교육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음을 말해준다.

〈표 III-28〉 교양기초 교육과정 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구분	기초문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험소양	융복합	기타	전체
교과목 수	19,004	3,828	4,009	1,194	7,953	227	3,675	39,890
비율	47.6%	9.6%	10.1%	3.0%	19.9%	0.6%	9.2%	100.0%

한편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의사소통 II 영역의 교과목이 8,921개(46.9%)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소통 I 영역 교과목이 3,629개(19.1%), 기초과학과 수학 및 양적 추론 영역 교과목이 2,392개(14.5%), 정보문해 영역 교과목이 2,392개(12.6%), 사고 영역 교과목이 766개(4.0%), 계열기초 성격의 BSM 교과목과 공학수학 등 전공기초교육을 위한 교과목이 534개(2.8%) 순으로 많았다.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하위영역별 개설 교과목 수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고 교육을 위한 교과목이 지나치게 적게 개설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양기초교육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주체적·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음을 상기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비판적·논리적 사고 교육이 의사소통 교육이나 정보문해 교육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기초과학과 수학 및 양적 추론 영역으로 분류된 교과목 가운데 상당수가 자연과학대학이나 생명과학대학을 비롯한 단과대학별 학과기초 혹은 전공기초 교과목들을 고려한다면, 기초과학 및 수학 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및 수학과 계열기초 성격의 BSM 교과목 3,296개 가운데 76.51%에 해당하는 2,510개 교과목이 10개 대학에서 개설되고,¹⁴⁾ 나머지 786개 교과목이 50개 대학에서 개설되고 있다는 편향성을 고려하면, 현재 대학에서의 기초과학 및 수학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다.

〈표 III-29〉 기초문해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구분	의사소통Ⅰ	의사소통Ⅱ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수학	계열기초	전체
교과목 수	3,629	8,921	766	2,392	2,762	534	19,004
비율	19.1%	46.9%	4.0%	12.6%	14.5%	2.8%	100.0%

60개 대학에서 2022학년도에 자유학예 교육과정으로 개설한 교과목은 총 9,031개로 전체 개설된 교양 교과목의 22.64%에 해당하였다. 자유학예 교과목 9,031개 가운데 인문학 교과목은 3,828개(42.39%), 사회과학 교과목은 4,009개(44.39%), 자연과학 교과목은 1,194개(13.22%)로 자연과학 분야의 교양 교과목이 상대적으로 적게 개설되었다. 인문학 영역에서는 역사학 교과목이 1,051개(27.5%)로 가장 많았고, 예술학 교과목이 943개(24.6%), 철학 교과목이 883개(23.1%), 문학 교과목이 795개(20.8%), 종교학 교과목이 156개(4.1%)였다.

14) 기초과학 및 수학 교과목의 76.51%를 개설하는 10개 대학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668개, 아주대학교 420개, 한국공학대학교 276개, 연세대학교 265개, 충북대학교 217개, 고려대학교(세종) 206개, 광운대학교 144개, 한국해양대학교 109개, 경남대학교 108개, 충남대학교 97개. 그러나 이들 대학의 기초과학 및 수학 교과목으로 분류된 교과목 가운데에도 전공기초 성격의 교과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양기초교육으로서의 기초과학 및 수학 교육이 정도만큼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표 III-30〉 인문학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구분	문학	예술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전체
교과목 수	795	943	1,051	883	156	3,828
비율	20.8%	24.6%	27.5%	23.1%	4.1%	100.0%

사회과학 분야의 교양 교과목 중에서는 사회학 교과목과 문화학 교과목이 각각 1,375개(34.3%)와 1,377개(34.3%)로 가장 많았으며, 정치학 교과목이 478개(11.9%), 심리학 교과목이 434개(10.8%), 경제학 교과목이 345개(8.6%) 순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교과목 분류 시, 사회학과 문화학의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의 사회학이나 문화학의 개념으로 한정되기보다는 좀 더 넓은 범주의 학문 분야 개념으로 이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학이나 문화학으로 분류된 교과목이 양적으로 많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학과 문화학 관련 교과목들이 교양 교과목으로 많이 개설된다고 논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예컨대, 정치·경제·사회 일반을 다루는 교과목이나 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교과목들은 정치학이나 경제학으로 분류되기보다는 사회학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미디어나 콘텐츠 관련 교과목들도 문화학의 범주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아래의 표를 읽을 때에는 이와 같은 점을 주의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표 III-31〉 사회과학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구분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학	심리학	전체
교과목 수	478	345	1,375	1,377	434	4,009
비율	11.9%	8.6%	34.3%	34.3%	10.8%	100.0%

자연과학으로 분류되는 교과목 중에서는 물질과학 교과목이 541개(45.3%)로 가장 많았고, 생명과학 교과목이 400개(33.5%), 수리과학 교과목이 253개(21.2%)였다. 생명과학 분야의 교양 교과목으로는 주로 생물학을 중심으로 한 교과목들이 개설되는 반면, 물질과학 분야에는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 교과목들이 개설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질과학 분야의 교양 교과목이 좀 더 다양하게 개발되고 개설될 필요가 있다.

〈표 III-32〉 자연과학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구분	수리과학	물질과학	생명과학	전체
교과목 수	253	541	400	1,194
비율	21.2%	45.3%	33.5%	100.0%

7,953개의 교과목이 개설된 체험소양 교과목을 체험소양 교육과정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해 보면, ② 대학 적응 및 진로 교과목이 3,123개(39.3%)로 가장 많았으며, ⑥ 취업·창업 교과목이 1,506개(18.9%), ⑤ 신체적 체험 교과목이 1,467개(18.4%), ① 대학 교시 구현 교과목이 980개(12.3%), ④ 사회적 체험 교과목이 504개(6.3%), ③ 정서적 체험 교과목이 373개(4.7%)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체험소양 교육이 대학 적응 및 진로 교육이나 취·창업 교육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¹⁵⁾

〈표 III-33〉 체험소양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구분	대학교시구현	적응/진로	정서적체험	사회적체험	신체적체험	취업·창업	전체
교과목 수	980	3,123	373	504	1,467	1,506	7,953
비율	12.3%	39.3%	4.7%	6.3%	18.4%	18.9%	100.0%

□ 교양 교과목의 강좌 규모와 이수 방식

교양기초 교과목을 강좌 규모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31~50명의 수강인원으로 구성되는 교양교육 교과목이 14,862개(37.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20명 수강인원 교과목이 10,948개(27.4%), 21~30명 수강인원 교과목이 7,660개(19.2%)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기초문해(35.3%), 인문학(43.4%), 사회과학(45.9%), 자연과학(42.4%), 체험소양(34.2%), 융복합(43.6%), 기타(36.4%)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수강인원은 31~50명이 34.2%에서 45.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초문해(33.6%)와 체험소양(33.5%) 교과목과 기타(21.7%)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1~20명이 많은 편에 속하였고, 인문학(27.1%), 사회과학(24.8%), 자연과학(26.6%), 융복합(24.7%) 교과목의 경우에는 51~100명으로 구성된 교과목이 많은 편이었다.

전반적으로 기초문해와 체험소양 영역의 교과목은 소규모 강좌로 개설되고 있으며,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의 자유학예 교과목과 융복합 교과목은 중대형 강좌로 개설되고 있었다. 기초문해와 체험소양 교과목은 31~50명 규모의 강좌가

15) 이는 체험소양 교육과정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가장 많았으나, 20명 미만의 소규모 강좌도 많이 개설되었으며, 21~30명 규모의 강좌도 적지 않았다. 반면 자유학예 교과목과 융복합 교과목은 31~50명 규모의 강좌가 가장 많이 개설된 점은 기초문해나 체험소양 교과목과 같았으나 51~100명 규모의 강좌가 많이 개설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기초문해나 체험소양 교과목이 학생 활동 중심의 교과목이 많은 데 비해, 자유학예나 융복합 교과목은 교수자 강의 중심의 교과목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I-34〉 교양 교과목의 강좌 규모: 수(비율:%)

강좌규모	기초문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험소양	융복합	기타	전체
1~20명	6,392(33.6)	469(12.3)	457(11.4)	140(11.7)	2,667(33.5)	24(10.6)	799(21.7)	10,948(27.4)
21~30명	4,654(24.5)	423(11.1)	468(11.7)	134(11.2)	1,347(16.9)	25(11.0)	609(16.6)	7,660(19.2)
31~50명	6,701(35.3)	1,663(43.4)	1,841(45.9)	506(42.4)	2,716(34.2)	99(43.6)	1,336(36.4)	14,862(37.3)
51~100명	907(4.8)	1,037(27.1)	994(24.8)	318(26.6)	875(11.0)	56(24.7)	738(20.1)	4,925(12.3)
101~200명	125(0.7)	132(3.4)	149(3.7)	54(4.5)	209(2.6)	19(8.4)	111(3.0)	799(2.0)
201명 이상	225(1.2)	104(2.7)	100(2.5)	42(3.5)	139(1.7)	4(1.8)	82(2.2)	696(1.7)
전체	19,004 (100.0)	3,828 (100.0)	4,009 (100.0)	1,194 (100.0)	7,953 (100.0)	227 (100.0)	3,675 (100.0)	39,890 (100.0)

교양 교과목의 이수 방식 분석 결과, 전체 39,890개 교과목 가운데 필수 교과목이 16,031개(40.2%), 선택 교과목이 19,004개(47.6%), 선택적 필수 교과목이 4,289개(10.8%)로, 필수와 선택 교과목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영역별로는 필수와 선택의 이수 방식이 일정한 경향성을 보였다. 즉 기초문해와 체험소양 영역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필수 교과목의 비율이 각각 56.3%와 54.0%로 절반 이상의 교과목이 필수로 이수하는 것인데 비해,¹⁶⁾ 자유학예 및 융복합 영역과 기타 영역의 교과목들은 70% 이상이 학생들에게 선택 이수하도록 하고 있었다(인문학 69.2%, 사회과학 78.3%, 자연과학 73.9%, 융복합 74.4%, 기타 85.2%). 일종의 도구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문해 영역의 교과목은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데 비해, 교양기초교육의 본령인 자유학예 교과목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것이 현재의 교양기초 교과목에 대한 이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칫 교양기초교육의 도구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6) 선택적 필수까지 포함하면, 기초문해 교과목은 68.6%가 필수로 이수하게 하고 있다.

<표 III-35> 교양 교과목의 이수 방식: 수(비율:%)

구분	기초문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험소양	융복합	기타	전체
필수	10,703(56.3)	326(8.5)	320(8.0)	98(8.2)	4,293(54.0)	8(3.5)	283(7.7)	16,031(40.2)
선택필수	2,335(12.3)	773(20.2)	451(11.2)	196(16.4)	338(4.2)	45(19.8)	151(4.1)	4,289(10.8)
선택	5,769(30.4)	2,650(69.2)	3,140(78.3)	882(73.9)	3,263(41.0)	169(74.4)	3,131(85.2)	19,004(47.6)
기타	146(0.8)	46(1.2)	66(1.6)	8(0.7)	40(0.5)	0(0.0)	45(1.2)	351(0.9)
무응답	51(0.3)	33(0.9)	32(0.8)	10(0.8)	19(0.2)	5(2.2)	65(1.8)	215(0.5)
전체	19,004 (100.0)	3,828 (100.0)	4,009 (100.0)	1,194 (100.0)	7,953 (100.0)	227 (100.0)	3,675 (100.0)	39,890 (100.0)

□ 교양 교과목의 담당 교원과 수업 및 평가 방식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이 23,493개(58.9%)로 가장 많았으며, 비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이 15,270개(38.3%), 기타와 무응답이 1,127개(2.9%)였다. 영역별 교양 교과목의 담당 교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기초문해 영역의 전임 교원 담당 강좌 비율은 58.2%, 자유학예 영역의 전임 교원 담당 강좌 비율은 53.9%, 체험소양 영역의 전임 교원 담당 강좌 비율은 65.2%, 융복합 영역의 전임 교원 담당 강좌 비율은 65.6%로, 모든 영역에서 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강좌가 50%를 넘었다.

<표 III-36> 교양 교과목의 담당 교원: 수(비율:%)

구분	기초문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험소양	융복합	기타	전체
전임	11,056(58.2)	1,940(50.7)	2,131(53.2)	795(66.6)	5,185(65.2)	149(65.6)	2,237(60.9)	23,493(58.9)
비전임	7,687(40.4)	1,776(46.4)	1,701(42.4)	352(29.5)	2,500(31.4)	63(27.8)	1,191(32.4)	15,270(38.3)
기타	134(0.7)	30(0.8)	47(1.2)	16(1.3)	131(1.6)	2(0.9)	67(1.8)	427(1.1)
무응답	127(0.7)	82(2.1)	130(3.2)	31(2.6)	137(1.7)	13(5.7)	180(4.9)	700(1.8)
전체	19,004 (100.0)	3,828 (100.0)	4,009 (100.0)	1,194 (100.0)	7,953 (100.0)	227 (100.0)	3,675 (100.0)	39,890 (100.0)

교양기초 교과목을 수업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대면 교과목이 26,334개(66.0%)로 가장 많았고, 비대면 교과목이 3,849개(9.6%), 블렌디드 교과목이 2,565개(6.4%) 순으로 많았다. 학문 분야에 따라 대면 수업의 비율이 57.6%(자연과학)에서 70.7%(체험소양)까지 편차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대학의 교양 교과목은 대면 수업으로 복귀하였고, 코로나19의 경험을 토대로 비대면 수업 및 블렌디드 수업의 장점을 활용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II-37〉 교양 교과목의 수업 유형: 수(비율:%)

구분	기초문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험소양	융복합	기타	전체
대면	12,772(67.2)	2,289(59.8)	2,607(65.0)	688(57.6)	5,623(70.7)	140(61.7)	2,215(60.3)	26,334(66.0)
비대면	1,060(5.6)	563(14.7)	639(15.9)	236(19.8)	741(9.3)	35(15.4)	575(15.6)	3,849(9.6)
블렌디드	1,444(7.6)	214(5.6)	189(4.7)	76(6.4)	448(5.6)	23(10.1)	171(4.7)	2,565(6.4)
기타	13(0.1)	5(0.1)	4(0.1)	0(0.0)	14(0.2)	0(0.0)	2(0.1)	38(0.1)
무응답	3,715(19.5)	757(19.8)	570(14.2)	194(16.2)	1,127(14.2)	29(12.8)	712(19.4)	7,104(17.8)
전체	19,004 (100.0)	3,828 (100.0)	4,009 (100.0)	1,194 (100.0)	7,953 (100.0)	227 (100.0)	3,675 (100.0)	39,890 (100.0)

교양 교과목의 평가방식에 대한 분석 결과, 상대평가 교과목이 22,921개(57.5%)로 가장 많았으며, 절대평가 교과목 8,382개(21.0%), P/F(Pass or Fail) 교과목 4,693개(11.8%) 순으로 나타났다. 체험소양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교과목은 대부분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었고(기초문해 60.6%, 인문학 75.3%, 사회과학 76.2%, 자연과학 72.6%, 융복합 59.5%, 기타 60.5%), 체험소양 영역의 교과목은 P/F를 적용하는 교과목이 가장 많았다(47.4%).

〈표 III-38〉 교양 교과목의 평가 방식(수, 비율:%)

구분	기초문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험소양	융복합	기타	전체
상대평가	11,518(60.6)	2,881(75.3)	3,054(76.2)	867(72.6)	2,244(28.2)	135(59.5)	2,222(60.5)	22,921(57.5)
절대평가	5,137(27.0)	530(13.8)	494(12.3)	181(15.2)	1,424(17.9)	55(24.2)	561(15.3)	8,382(21.0)
P/F	547(2.9)	29(0.8)	76(1.9)	24(2.0)	3,771(47.4)	10(4.4)	236(6.4)	4,693(11.8)
기타	84(0.4)	63(1.6)	75(1.9)	10(0.8)	21(0.3)	1(0.4)	54(1.5)	308(0.8)
무응답	1,718(9.0)	325(8.5)	310(7.7)	112(9.4)	493(6.2)	26(11.5)	602(16.4)	3,586(9.0)
전체	19,004 (100.0)	3,828 (100.0)	4,009 (100.0)	1,194 (100.0)	7,953 (100.0)	227 (100.0)	3,675 (100.0)	39,890 (100.0)

3) 영역별 교양 교과목 운영 현황

□ 자유학예 교과목의 운영 현황

자유학예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영역의 교양 교과목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인문학 분야의 3,828개 강좌 규모부터 살펴보면, 전체 강좌의 43.4%에 해당하는 1,663개 강좌가 31~50명 규모의 강좌로 개설되었다. 문학(43.6%), 예술학(42.7%), 역사학(41.7%), 철학(45.8%), 종교학(45.5%), 어느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인문학 강좌는 31~50명 규모의 강좌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51~100명 규모의 강좌가 많이 개설되고 있어서 인문학 강좌는 중대형 강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문학 강좌의 이수 방식은 선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선택적 필수가 그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학년도 60개 대학에서 개설된 인문학 강좌 총 3,828개 가운데 69.2%에 해당하는 2,650개 강좌가 선택 강좌로 운영되었으며, 20.2%에 해당하는 773개 강좌가 선택적 필수로 운영되었다. 인문학 강좌 가운데 필수로 운영된 강좌는 326개 강좌로, 전체 인문학 강좌의 8.5%에 해당하였다.

인문학 강좌를 담당한 교원은 문학과 종교학 분야를 제외하면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문학과 종교학 분야는 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강좌의 비율이 각각 58.6%와 60.3%로 비전임 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비해, 예술학(48.8%), 역사학(44.0%), 철학(51.9%) 강좌의 경우는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의 담당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역사학 분야는 비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강좌의 비율(53.9%)이 높았다.

인문학 강좌의 수업유형은 학문영역을 불문하고 대면 수업이 가장 많았다(52.5%~64.0%). 비대면 강좌도 전체 인문학 강좌의 10%대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블렌디드 형식을 취하는 강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인문학 강좌가 새로운 수업유형을 도입하기보다는 전통적인 수업유형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 분야의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 비율이 전체 강좌의 7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절대평가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10% 내외로 발견되었으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아니었다.

〈표 III-39〉 자유학예 인문학 분야 교과목 운영 현황

	구분	문학	예술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강좌 규모	1~20명	118(14.8)	108(11.5)	120(11.4)	108(12.2)	15(9.6)
	21~30명	106(13.3)	86(9.1)	125(11.9)	80(9.1)	26(16.7)
	31~50명	347(43.6)	403(42.7)	438(41.7)	404(45.8)	71(45.5)
	51~100명	172(21.6)	282(29.9)	294(28.0)	248(28.1)	41(26.3)
	101~200명	20(2.5)	49(5.2)	39(3.7)	23(2.6)	1(0.6)
	201명 이상	32(4.0)	15(1.6)	35(3.3)	20(2.3)	2(1.3)
	전체	795(100.0)	943(100.0)	1,051(100.0)	883(100.0)	156(100.0)
이수 방식	필수	32(4.0)	33(3.5)	138(13.1)	86(9.7)	37(23.7)
	선택필수	155(19.5)	187(19.8)	222(21.1)	178(20.2)	31(19.9)
	선택	590(74.2)	697(73.9)	674(64.1)	605(68.5)	84(53.8)
	기타	9(1.1)	15(1.6)	10(1.0)	8(0.9)	4(2.6)
	무응답	9(1.1)	11(1.2)	7(0.7)	6(0.7)	0(0.0)
	전체	795(100.0)	943(100.0)	1,051(100.0)	883(100.0)	156(100.0)

구분		문학	예술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교원 구성	전임	466(58.6)	460(48.8)	462(44.0)	458(51.9)	94(60.3)
	비전임	296(37.2)	455(48.3)	566(53.9)	401(45.4)	58(37.2)
	기타	7(0.9)	9(1.0)	6(0.6)	7(0.8)	1(0.6)
	무응답	26(3.3)	19(2.0)	17(1.6)	17(1.9)	3(1.9)
	전체	795(100.0)	943(100.0)	1,051(100.0)	883(100.0)	156(100.0)
평가 방식	상대평가	587(73.8)	678(71.9)	806(76.7)	679(76.9)	131(84.0)
	절대평가	106(13.3)	132(14.0)	157(14.9)	126(14.3)	9(5.8)
	P/F	2(0.3)	6(0.6)	5(0.5)	10(1.1)	6(3.8)
	기타	22(2.8)	15(1.6)	16(1.5)	9(1.0)	1(0.6)
	무응답	78(9.8)	112(11.9)	67(6.4)	59(6.7)	9(5.8)
수업 유형	전체	795(100.0)	943(100.0)	1,051(100.0)	883(100.0)	156(100.0)
	대면	475(59.7)	495(52.5)	671(63.8)	565(64.0)	83(53.2)
	비대면	136(17.1)	144(15.3)	148(14.1)	117(13.3)	18(11.5)
	블렌디드	30(3.8)	83(8.8)	37(3.5)	49(5.5)	15(9.6)
	기타	3(0.4)	2(0.2)	0(0.0)	0(0.0)	0(0.0)
	무응답	151(19.0)	219(23.2)	195(18.6)	152(17.2)	40(25.6)
전체	795(100.0)	943(100.0)	1,051(100.0)	883(100.0)	156(100.0)	

사회과학 분야의 교양 교과목 운영 현황은 인문학 분야의 교양 교과목 운영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의 규모 면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교과목은 전체 강좌의 45.9%에 해당하는 1,841개 강좌가 31~50명 규모의 강좌로 개설되었다. 정치학(41.2%), 경제학(42.6%), 사회학(47.7%), 문화학(46.3%), 심리학(46.8%), 어느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과학 강좌는 31~50명 규모의 강좌가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 다음으로 51~100명 규모의 강좌가 많이 개설되고 있어 사회과학 강좌도 인문학 강좌와 마찬가지로 중대형 강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과학 강좌의 이수 방식은 선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선택적 필수가 그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학년도 60개 대학에서 개설된 사회과학 강좌 총 4,009개 가운데 78.3%에 해당하는 3,140개 강좌가 선택 강좌로 운영되었으며, 11.2%에 해당하는 451개 강좌가 선택적 필수로 운영되었다. 사회과학 강좌 가운데 필수로 운영된 강좌는 320개 강좌로, 전체 사회과학 강좌의 8.0%에 해당하였다.

사회과학 강좌를 담당한 교원은 사회학 분야를 제외하면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사회학 분야는 전임 교원이 담당한 강좌 비율이 57.5%로 비전임 교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정치학(46.4%), 경제학(49.3%), 문화(53.1%), 심리학(50.2%) 강좌는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의 담당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치학 분야는 비전임 교원 담당 강좌 비율(50.0%)이 조금 높았다.

사회과학 강좌의 수업유형은 학문영역을 불문하고 대면 수업이 가장 많았다(58.2%~70.3%). 비대면 강좌 비율도 사회과학 전체 강좌의 10% 중반에서 20% 초반 사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블렌디드 형식을 취하는 강좌는 인문학 분야와 마

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사회과학 분야 교과목의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 비율이 전체 강좌의 76.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10.2%에서 20.3%까지 다양한 범주에서 절대평가 방식을 택했으나, 절대평가가 주류를 이루지는 않았다.

〈표 III-40〉 자유학예 사회과학 분야 교과목 운영 현황

구분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학	심리학
강좌 규모	1~20명	56(11.7)	35(10.1)	156(11.3)	172(12.5)	38(8.8)
	21~30명	53(11.1)	37(10.7)	175(12.7)	172(12.5)	31(7.1)
	31~50명	197(41.2)	147(42.6)	656(47.7)	638(46.3)	203(46.8)
	51~100명	132(27.6)	100(29.0)	333(24.2)	316(22.9)	113(26.0)
	101~200명	20(4.2)	14(4.1)	30(2.2)	50(3.6)	35(8.1)
	201명 이상	20(4.2)	12(3.5)	25(1.8)	29(2.1)	14(3.2)
전체		478(100.0)	345(100.0)	1,375(100.0)	1,377(100.0)	434(100.0)
이수 방식	필수	25(5.2)	18(5.2)	210(15.3)	44(3.2)	23(5.3)
	선택필수	60(12.6)	45(13.0)	134(9.7)	164(11.9)	48(11.1)
	선택	380(79.5)	278(80.6)	1,010(73.5)	1,114(80.9)	358(82.5)
	기타	10(2.1)	1(0.3)	14(1.0)	39(2.8)	2(0.5)
	무응답	3(0.6)	3(0.9)	7(0.5)	16(1.2)	3(0.7)
전체		478(100.0)	345(100.0)	1,375(100.0)	1,377(100.0)	434(100.0)
교원 구성	전임	222(46.4)	170(49.3)	790(57.5)	731(53.1)	218(50.2)
	비전임	239(50.0)	151(43.8)	533(38.8)	581(42.2)	197(45.4)
	기타	1(0.2)	3(0.9)	15(1.1)	24(1.7)	4(0.9)
	무응답	16(3.3)	21(6.1)	37(2.7)	41(3.0)	15(3.5)
	전체	478(100.0)	345(100.0)	1,375(100.0)	1,377(100.0)	434(100.0)
평가 방식	상대평가	337(70.5)	239(69.3)	1,071(77.9)	1,067(77.5)	340(78.3)
	절대평가	80(16.7)	70(20.3)	140(10.2)	154(11.2)	50(11.5)
	P/F	1(0.2)	4(1.2)	39(2.8)	30(2.2)	2(0.5)
	기타	15(3.1)	6(1.7)	23(1.7)	21(1.5)	10(2.3)
	무응답	45(9.4)	26(7.5)	102(7.4)	105(7.6)	32(7.4)
	전체	478(100.0)	345(100.0)	1,375(100.0)	1,377(100.0)	434(100.0)
수업 유형	대면	278(58.2)	204(59.1)	967(70.3)	892(64.8)	266(61.3)
	비대면	92(19.2)	70(20.3)	182(13.2)	206(15.0)	89(20.5)
	블렌디드	26(5.4)	25(7.2)	57(4.1)	62(4.5)	19(4.4)
	기타	3(0.6)	0(0.0)	0(0.0)	1(0.1)	0(0.0)
	무응답	79(16.5)	46(13.3)	169(12.3)	216(15.7)	60(13.8)
	전체	478(100.0)	345(100.0)	1,375(100.0)	1,377(100.0)	434(100.0)

자연과학 분야의 교양 교과목 운영 현황도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교양 교과목 운영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수학 교과목과 과학(물질과학, 생명과학) 교과목 운영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강의 규모 면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교과목은 전체 강좌의 42.4%에 해당하는 506개 강좌가 31~50명 규모의 강좌로 개설되었다. 수학(59.7%), 물질과학(38.8%), 생명과학(36.3%) 어느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31~50명 규모의 강좌가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 그런데 다음으로 많이 개

설된 강좌가 물질과학과 생명과학 강좌는 51~100명 규모의 강좌였던 데 비해 수학 분야의 강좌는 21~30명 규모의 강좌와 51~100명 규모의 강좌가 동일한 비율로 개설되었다. 자연과학 분야의 강좌 가운데 물질과학과 생명과학 분야의 강좌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강좌와 마찬가지로 중대형 강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수학 분야의 강좌는 소규모 강좌와 대규모 강좌가 균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수 방식의 경우에는 수학, 물질과학, 생명과학 분야를 막론하고 선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선택적 필수가 그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학년도 60개 대학에서 개설된 자연과학 강좌 총 1,194개 가운데 73.9%에 해당하는 882개 강좌가 선택 강좌로 운영되었으며, 16.4%에 해당하는 196개 강좌가 선택적 필수로 운영되었다. 자연과학 강좌 가운데 필수로 운영된 강좌는 98개 강좌로, 전체 자연과학 강좌의 8.2%에 해당하였다.

자연과학 강좌는 수학(73.5%), 물질과학(64.3%), 생명과학(65.3%) 전 분야에서 전임 교원이 담당한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수업유형 역시 학문영역을 불문하고 대면 수업이 가장 많았다(50.8~63.0%). 비대면 강좌 비율은 자연과학 전체 강좌의 20% 내외였으며, 블렌디드 방식의 강좌는 5.0%를 조금 상회하였다. 평가 방식 또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상대평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연과학 강좌의 상대평가 비율은 전체 강좌의 72.6%였다.

〈표 III-41〉 자유학예 자연과학 분야 교과목 운영 현황

구분		수리과학	물질과학	생명과학
강좌 규모	1~20명	24(9.5)	70(12.9)	46(11.5)
	21~30명	36(14.2)	57(10.5)	41(10.3)
	31~50명	151(59.7)	210(38.8)	145(36.3)
	51~100명	36(14.2)	148(27.4)	134(33.5)
	101~200명	1(0.4)	29(5.4)	24(6.0)
	201명 이상	5(2.0)	27(5.0)	10(2.5)
	전체	253(100.0)	541(100.0)	400(100.0)
이수 방식	필수	41(16.2)	40(7.4)	17(4.3)
	선택필수	52(20.6)	84(15.5)	60(15.0)
	선택	157(62.1)	410(75.8)	315(78.8)
	기타	1(0.4)	4(0.7)	3(0.8)
	무응답	2(0.8)	3(0.6)	5(1.3)
	전체	253(100.0)	541(100.0)	400(100.0)
교원 구성	전임	186(73.5)	348(64.3)	261(65.3)
	비전임	58(22.9)	173(32.0)	121(30.3)
	기타	3(1.2)	6(1.1)	7(1.8)
	무응답	6(2.4)	14(2.6)	11(2.8)
	전체	253(100.0)	541(100.0)	400(100.0)

구분		수리과학	물질과학	생명과학
평가 방식	상대평가	189(74.7)	406(75.0)	272(68.0)
	절대평가	31(12.3)	84(15.5)	66(16.5)
	P/F	3(1.2)	14(2.6)	7(1.8)
	기타	7(2.8)	2(0.4)	1(0.3)
	무응답	23(9.1)	35(6.5)	54(13.5)
	전체	253(100.0)	541(100.0)	400(100.0)
수업 유형	대면	144(56.9)	341(63.0)	203(50.8)
	비대면	50(19.8)	99(18.3)	87(21.8)
	블렌디드	17(6.7)	37(6.8)	22(5.5)
	기타	0(0.0)	0(0.0)	0(0.0)
	무응답	42(16.6)	64(11.8)	88(22.0)
	전체	253(100.0)	541(100.0)	400(100.0)

□ 기초문해 교과목의 운영 현황

기초문해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및 수학, 그리고 계열기초 영역의 교양 교과목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강좌 규모 면에서 보면, 글쓰기 교육이 주를 이루는 의사소통 I 영역의 경우, 31~50명으로 이루어진 교과목이 46.5%를 차지하여 제일 많았고, 21~30명 규모가 32.5%, 1~20명 규모가 16.2%를 차지하였다. 학생이 작성한 글에 대한 일대일 첨삭을 필수로 하는 글쓰기 교과목은 30명 이하의 강좌 규모를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 권장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대학들이 많다고 하겠다. 그에 비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이 중심을 이루는 의사소통 II의 경우에는 1~20명 규모의 소규모 강좌가 전체 강좌의 54.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1~30명 규모의 강좌 역시 22.9%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의사소통 II 교과목은 양호한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 교과목이나 정보문해 교과목,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그리고 계열기초 교과목은 31~50명 규모의 강좌가 전체 강좌의 57.8%와 56.0%, 40.9%, 61.6%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 방식을 기준으로 할 때, 기초문해 교과목은 분석 대상이 된 2022학년도 60개 대학의 기초문해 교과목 19,004개 가운데 56.65%에 해당하는 10,765개 강좌가 필수 교과목으로 개설되고 있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소통 I은 개설 강좌의 4분의 3 이상이 필수로 운영되고 있었고(72.6%), 의사소통 I의 약 2.5배 많은 강좌가 개설되는 의사소통 II는 절반 이상이 필수로 운영되고 있었다(56.6%). 반면 의사소통 I의 5분의 1 남짓 정도 강좌가 개설되는 사고 교과목은 필수로 운영되는 강좌가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46.2%), 의사소통 I의 3분의 2 정도 강좌가 개설되는

정보문해 교과목은 절반 이상이 필수로 운영되고 있었다(60.1%). 그리고 계열기초 성격의 BSM 강좌를 포함하여 의사소통 I 의 90% 남짓 개설되는 기초과학·수학 강좌는 필수로 운영되는 강좌가 절반에 미치지 못했지만(43.1%), 선택적 필수로 운영되는 강좌가 26.4%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기초문해 교과목들은 모든 영역에서 필수로 운영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정보문해 교과목은 절반 이상의 강좌가 필수로 운영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I 은 다른 영역에 비해 필수로 운영되는 강좌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선택으로 운영되는 강좌의 비율은 월등히 낮았다. 계열기초 성격의 BSM 교과목은 선택으로 운영되는 비율(61.2%)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신분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초문해 영역은 전반적으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비율이 반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의사소통 II 와 계열기초 성격의 BSM은 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컸지만 (66.3%, 65.9%), 나머지 의사소통 I (44.3%), 정보문해(54.3%), 사고(48.3%),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54.7%) 교과목은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업유형 측면에서는 대면 수업이 기초문해 모든 영역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계열기초 교과목은 대면 수업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70.2%, 71.5%, 73.8%),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수학 교과목의 경우에는 대면 수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유형 이면서도 블렌디드 수업을 활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보문해의 경우 기초문해의 다른 영역에 비해 비대면 수업이 13.0%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도 볼 수 있으나, 기초문해 교과목 운영상 특별한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예의 수업유형이 대면 수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하면 기초문해 영역의 교과목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수업유형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겠다.

평가 방식은 기초문해 모든 영역에서 상대평가를 가장 많이 택하고 있었는데, 사고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소통 I 과 의사소통 II, 정보문해, 기초과학·수학, 계열기초 영역에서는 절대평가를 택하고 있는 경우도 20% 이상이 되고 있어 단순히 평가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교육 목표 실현 및 성과 달성에 중점을 두려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표 III-42〉 기초문해 교과목의 영역별 운영 현황(수, 비율:%)

구분		의사소통Ⅰ	의사소통Ⅱ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수학	계열기초
강좌 규모	1~20명	588(16.2)	4,818(54.0)	74(9.7)	221(9.2)	655(23.7)	36(6.7)
	21~30명	1,180(32.5)	2,039(22.9)	154(20.1)	561(23.5)	621(22.5)	99(18.5)
	31~50명	1,687(46.5)	1,774(19.9)	443(57.8)	1,339(56.0)	1,129(40.9)	329(61.6)
	51~100명	131(3.6)	135(1.5)	89(11.6)	157(6.6)	326(11.8)	69(12.9)
	101~200명	9(0.2)	38(0.4)	3(0.4)	55(2.3)	19(0.7)	1(0.2)
	201명 이상	34(0.9)	117(1.3)	3(0.4)	59(2.5)	12(0.4)	0(0.0)
	전체	3,629(100.0)	8,921(100.0)	766(100.0)	2,392(100.0)	2,762(100.0)	534(100.0)
이수 방식	필수	2,636(72.6)	5,045(56.6)	354(46.2)	1,438(60.1)	1,065(38.6)	165(30.9)
	선택필수	385(10.6)	899(10.1)	62(8.1)	219(9.2)	728(26.4)	42(7.9)
	선택	589(16.2)	2,825(31.7)	336(43.9)	723(30.2)	969(35.1)	327(61.2)
	기타	12(0.3)	119(1.3)	10(1.3)	5(0.2)	0(0.0)	0(0.0)
	무응답	7(0.2)	33(0.4)	4(0.5)	7(0.3)	0(0.0)	0(0.0)
	전체	3,629(100.0)	8,921(100.0)	766(100.0)	2,392(100.0)	2,762(100.0)	534(100.0)
교원 구성	전임	1,607(44.3)	5,918(66.3)	370(48.3)	1,298(54.3)	1,511(54.7)	352(65.9)
	비전임	2,007(55.3)	2,831(31.7)	380(49.6)	1,066(44.6)	1,221(44.2)	182(34.1)
	기타	2(0.1)	107(1.2)	4(0.5)	2(0.1)	19(0.7)	0(0.0)
	무응답	13(0.4)	65(0.7)	12(1.6)	26(1.1)	11(0.4)	0(0.0)
	전체	3,629(100.0)	8,921(100.0)	766(100.0)	2,392(100.0)	2,762(100.0)	534(100.0)
평가 방식	상대평가	2,350(64.8)	5,151(57.7)	563(73.5)	1,530(64.0)	1,506(54.5)	418(78.3)
	절대평가	1,026(28.3)	2,307(25.9)	37(4.8)	546(22.8)	1,106(40.0)	115(21.5)
	P/F	51(1.4)	423(4.7)	20(2.6)	28(1.2)	25(0.9)	0(0.0)
	기타	3(0.1)	55(0.6)	2(0.3)	2(0.1)	22(0.8)	0(0.0)
	무응답	199(5.5)	985(11.0)	144(18.8)	286(12.0)	103(3.7)	1(0.2)
	전체	3,629(100.0)	8,921(100.0)	766(100.0)	2,392(100.0)	2,762(100.0)	534(100.0)
	대면	2,549(70.2)	6,381(71.5)	511(66.7)	1,471(61.5)	1,466(53.1)	394(73.8)
수업 유형	비대면	146(4.0)	392(4.4)	26(3.4)	312(13.0)	125(4.5)	59(11.0)
	블렌디드	295(8.1)	381(4.3)	118(15.4)	319(13.3)	293(10.6)	38(7.1)
	기타	9(0.2)	2(0.0)	2(0.3)	0(0.0)	0(0.0)	0(0.0)
	무응답	630(17.4)	1,765(19.8)	109(14.2)	290(12.1)	878(31.8)	43(8.1)
	전체	3,629(100.0)	8,921(100.0)	766(100.0)	2,392(100.0)	2,762(100.0)	534(100.0)

□ 체험소양 교과목의 운영 현황

체험소양은 각각의 하위영역(① 대학 교시 구현, ② 대학 적응 및 진로, ③ 정서적 체험, ④ 사회적 체험, ⑤ 신체적 체험, ⑥ 취업·창업)이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범주여서 교과목 운영도 일률적이지 않았다. 우선 강좌의 규모만 보더라도 ① 대학 교시 구현(44.6%), ③ 정서적 체험(35.4%), ④ 사회적 체험(33.3%) 그리고 ⑥ 취업·창업(41.0%) 강좌는 31~50명 규모의 강좌로 운영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② 대학 적응 및 진로 강좌는 1~20명 규모의 소규모 강좌로 운영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48.0%). 또한 ④ 신체적 체험 강좌는 21~30명 규모의 강좌로 운영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37.6%).

그뿐만 아니라 ① 대학 교시 구현 강좌는 51~100명 규모의 중대형 강좌가 다음

으로 많았던 데 비해, ③ 정서적 체험이나 ④ 사회적 체험, ⑤ 신체적 체험 강좌는 1~20명 미만의 소규모 강좌가 다음으로 많이 개설되었다. ⑥ 취업·창업 강좌의 경우에는 소규모 강좌와 중대형 규모의 강좌 비율이 엇비슷하였다. 이처럼 체험소양 교과목의 강좌 규모가 제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각 영역의 성격에 적합한 강좌 규모를 찾아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수 방식 측면에서는 ① 대학 교시 구현과 ② 대학 적응 및 진로 강좌가 필수로 운영된 경우가 가장 많았던 반면(① 90.8%, ② 78.9%), ③ 정서적 체험, ④ 사회적 체험, ⑤ 신체적 체험, ⑥ 취업·창업 강좌는 선택으로 운영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③ 87.7%, ④ 45.2%, ⑤ 80.9%, ⑥ 60.3%). 다만, ④ 사회적 체험과 ⑥ 취업·창업 강좌는 필수로 운영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④ 33.3%, ⑥ 36.3%).

담당 교원의 신분 측면에서는 ① 대학 교시 구현(60.1%)과 ② 대학 적응 및 진로(86.5%), ④ 사회적 체험(71.8%), ⑥ 취업·창업(67.3%) 강좌는 전임 교원의 담당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⑤ 신체적 체험(74.7%) 강좌는 비전임 교원의 강좌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③ 정서적 체험 강좌는 전임 교원(47.2%)과 비전임 교원(48.3%)의 강좌 비율이 비슷했다.

수업유형에서는 하위 어느 영역을 막론하고 대면 수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평가 방식에서는 상대평가와 Pass/Fail 두 가지 방식이 체험소양 강좌에 널리 적용되고 있었다. ① 대학 교시 구현, ③ 정서적 체험, ⑤ 신체적 체험 강좌는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② 대학 적응 및 진로, ④ 사회적 체험, ⑥ 취업·창업 강좌는 Pass/Fail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① 대학 교시 구현 강좌와 ⑤ 신체적 체험 강좌는 상대평가 다음으로 Pass/Fail 방식이 많이 적용되었으며, ④ 사회적 체험 강좌는 Pass/Fail 다음으로 절대평가가 많이 적용되었다.

〈표 III-43〉 체험소양 교과목의 하위영역별 운영 현황

구분		대학교시 구현	대학적용 진로	정서적 체험	사회적 체험	신체적 체험	취업·창업
강좌 규모	1~20명	71(7.2)	1,499(48.0)	99(26.5)	126(25.0)	473(32.2)	399(26.5)
	21~30명	124(12.7)	329(10.5)	58(15.5)	91(18.1)	552(37.6)	193(12.8)
	31~50명	437(44.6)	984(31.5)	132(35.4)	168(33.3)	377(25.7)	618(41.0)
	51~100명	214(21.8)	239(7.7)	71(19.0)	95(18.8)	54(3.7)	202(13.4)
	101~200명	55(5.6)	45(1.4)	11(2.9)	9(1.8)	7(0.5)	82(5.4)
	201명 이상	79(8.1)	27(0.9)	2(0.5)	15(3.0)	4(0.3)	12(0.8)
	전체	980(100.0)	3,123(100.0)	373(100.0)	504(100.0)	1,467(100.0)	1,506(100.0)

구분		대학교시 구현	대학적응 진로	정서적 체험	사회적 체험	신체적 체험	취업·창업
이수 방식	필수	890(90.8)	2,465(78.9)	24(6.4)	168(33.3)	200(13.6)	546(36.3)
	선택필수	14(1.4)	114(3.7)	16(4.3)	85(16.9)	66(4.5)	43(2.9)
	선택	76(7.8)	537(17.2)	327(87.7)	228(45.2)	1,187(80.9)	908(60.3)
	기타	0(0.0)	5(0.2)	3(0.8)	21(4.2)	11(0.7)	0(0.0)
	무응답	0(0.0)	2(0.1)	3(0.8)	2(0.4)	3(0.2)	9(0.6)
전체		980(100.0)	3,123(100.0)	373(100.0)	504(100.0)	1,467(100.0)	1,506(100.0)
교원 구성	전임	589(60.1)	2,700(86.5)	176(47.2)	362(71.8)	344(23.4)	1,014(67.3)
	비전임	379(38.7)	333(10.7)	180(48.3)	116(23.0)	1,096(74.7)	396(26.3)
	기타	4(0.4)	73(2.3)	8(2.1)	14(2.8)	9(0.6)	23(1.5)
	무응답	8(0.8)	17(0.5)	9(2.4)	12(2.4)	18(1.2)	73(4.8)
	전체	980(100.0)	3,123(100.0)	373(100.0)	504(100.0)	1,467(100.0)	1,506(100.0)
평가 방식	상대평가	409(41.7)	397(12.7)	208(55.8)	116(23.0)	627(42.7)	487(32.3)
	절대평가	147(15.0)	629(20.1)	88(23.6)	160(31.7)	234(16.0)	166(11.0)
	P/F	318(32.4)	1,974(63.2)	42(11.3)	197(39.1)	540(36.8)	700(46.5)
	기타	0(0.0)	3(0.1)	0(0.0)	0(0.0)	5(0.3)	13(0.9)
	무응답	106(10.8)	120(3.8)	35(9.4)	31(6.2)	61(4.2)	140(9.3)
전체		980(100.0)	3,123(100.0)	373(100.0)	504(100.0)	1,467(100.0)	1,506(100.0)
수업 유형	대면	664(67.8)	2,296(73.5)	235(63.0)	312(61.9)	1,038(70.8)	1,078(71.6)
	비대면	177(18.1)	298(9.5)	49(13.1)	37(7.3)	45(3.1)	135(9.0)
	블렌디드	55(5.6)	89(2.8)	26(7.0)	65(12.9)	88(6.0)	125(8.3)
	기타	0(0.0)	4(0.1)	0(0.0)	6(1.2)	0(0.0)	4(0.3)
	무응답	84(8.6)	436(14)	63(16.9)	84(16.7)	296(20.2)	164(10.9)
전체		980(100.0)	3,123(100.0)	373(100.0)	504(100.0)	1,467(100.0)	1,506(100.0)

다. 기초문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앞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학의 설립유형이나 지역, 규모에 따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기초문해 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설립유형이나, 지역, 규모에 따라 교육 내용이나 개설 강좌 수, 수업 운영 방식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초문해 교육 현황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교육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60개 대학에서 개설한 39,890개의 교양 강좌 가운데 전문가 분석을 통해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19,004개 강좌를 교육 내용에 따라 다시 세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각 대학의 기초문해 교과목 이수 방식과 강좌 규모, 담당 교원, 평가 방식, 수업유형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였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과 자료 수집을 통해 확보한 결과에 기초하여 실제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및 수학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 의사소통 I 영역의 교육 내용과 운영 현황

기초문해 교육과정 가운데 의사소통 I 영역은 국어를 사용한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에 목적을 둔다. 여기에는 읽기, 쓰기, 말하기를 비롯한 다양한 의사소통 교육이 포함된다. 읽기와 쓰기, 말하기, 듣기 교육이 모두 중요한 것은 틀림없으나, 대학의 교육과정은 제한된 학점 내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 I 영역에서는 특정 영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 결과, 대학의 기초문해 교육과정은 다른 여러 영역에 비해 글쓰기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사소통 I의 교육 내용을 유형화하기 위해 교과목 명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기준으로 하위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 I 영역의 교육 내용은 ㉠ 글쓰기, ㉡ 고전/명저 읽기, ㉢ 말하기, ㉣ 글쓰기와 말하기, ㉤ 의사소통 일반, ㉥ 읽기 교육 일반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개설된 강좌의 수를 집계한 결과, 의사소통 I 영역에서는 글쓰기 강좌(2,287개, 63.0%)가 가장 많이 개설되고, 고전/명저 읽기 교육을 위한 강좌(755개, 20.8%), 말하기 교육을 위한 강좌 287개(7.9%), 의사소통 일반 교육을 위한 강좌(49개, 1.4%) 순으로 개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44〉 의사소통 I 영역의 교육 내용

교육 내용	강좌 수	비율	교육 내용	강좌 수	비율
글쓰기	2,287	63.0	읽기 교육 일반	29	0.8
고전/명저 읽기	755	20.8	한자 교육	5	0.1
말하기	287	7.9	기타	25	0.7
글쓰기와 말하기	174	4.8	코딩 오류	18	0.5
의사소통 교육 일반	49	1.4			
한자 교육	5	0.1	계	3,629	100.0

글쓰기 강좌는 전체 개설 강좌 2,287개 가운데 76.3%에 해당하는 1,746개 강좌가 필수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분석 대상 60개교 가운데 46개교(76.7%)가 글쓰기

강좌를 필수로 운영하는 사실과도 근사한 값이다. 선택적 필수로 운영하는 강좌까지 합산한다면, 글쓰기 강좌는 전체 개설 강좌의 90%에 가까운 강좌가 필수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학점 혹은 3학점 강좌로 운영되는 글쓰기 강좌는 침식지도의 실질적 교육성과를 고려하여 30명 미만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30명 미만으로 글쓰기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는 전체 개설된 강좌의 50.2%로, 절반 남짓이었다. 물론 31~50명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4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글쓰기 교육 환경이 녹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글쓰기 강좌는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절대다수였으며, 비대면 수업이나 블렌디드 수업은 각각 5% 내외로 극히 일부에 그쳤다. 글쓰기 강좌를 담당하는 교원의 신분은 전임교원이 34.5%, 비전임교원이 65.2%로 비전임교원이 더 많았다. 글쓰기 강좌의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각각 64.7% 대 30.0%로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비율이 우세했으나,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하기 강좌는 글쓰기 강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개설되고 있었으며, 필수로 운영되는 비율(41.8%)도 글쓰기 강좌에 비하면 적었다. 말하기 강좌 역시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기는 했으나, 글쓰기 강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비율(47.0%)이 높았으며 블렌디드 수업 방식을 택하는 경우(19.9%)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글쓰기나 말하기 어느 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교과목이 아니라 글쓰기와 말하기를 하나의 교과목 안에서 함께 다루는 경우도 174개 강좌(4.8%)가 개설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강좌는 필수로 개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83.3%), 거의 모든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강좌 규모는 글쓰기 강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의사소통 I 영역에서 글쓰기 강좌 다음으로 많이 개설되는 강좌는 고전/명저 읽기 교과목이었다. 고전/명저 읽기 교과목은 의사소통 I 영역의 전체 3,629개 강좌 가운데 20.8%에 해당하는 755개 강좌가 개설되고 있었다. 분석 대상 60개교 가운데 12개교(19.7%)에서 필수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었으며,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는 대학도 15개교나 되어 전체적으로 고전/명저 읽기 강좌는 44.3%의 대학에서 개설되고 있었다. 글쓰기나 말하기 강좌가 2학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데 비해, 고전/명저 읽기 강좌는 3학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강좌 규모는 31~50명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51.5%)가 가장 많았으나, 20명 미만의 소규모

강좌로 운영되는 경우도 22.6%나 되었다. 수업은 대부분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졌으며(73.2%), 상대평가를 가장 많이 적용하였으나(54.6%)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31.7%나 되었다.

〈표 III-45〉 의사소통 I 영역의 주요 교과목 운영 현황

구분	글쓰기 교과목	말하기 교과목	고전/명저 읽기 교육	글쓰기와 말하기	
학점	0~1학점	2(0.1)	5(1.7)	73(9.7)	0(0.0)
	2학점	1,274(55.7)	177(61.7)	277(36.7)	145(83.3)
	3학점	993(43.4)	105(36.6)	404(53.5)	29(16.7)
	4~5학점	0(0.0)	0(0.0)	0(0.0)	0(0.0)
	무응답	18(0.8)	0(0.0)	1(100.0)	0(0.0)
	전체	2,287(100.0)	287(100.0)	755(100.0)	174(100.0)
강좌 규모	1~20명	322(14.1)	39(13.6)	171(22.6)	24(13.8)
	21~30명	916(40.1)	64(22.3)	130(17.2)	54(31.0)
	31~50명	998(43.6)	173(60.3)	389(51.5)	69(39.7)
	51~100명	31(1.4)	9(3.1)	48(6.4)	26(14.9)
	101~200명	1(0.0)	1(0.3)	4(0.5)	1(0.6)
	201명 이상	18(0.8)	1(0.3)	13(1.7)	0(0.0)
	전체	2,287(100.0)	287(100.0)	755(100.0)	174(100.0)
이수 방식	필수	1,746(76.3)	120(41.8)	585(77.5)	145(83.3)
	선택필수	312(13.6)	67(23.3)	2(0.3)	0(0.0)
	선택	224(9.8)	96(33.4)	162(21.5)	29(16.7)
	기타	2(0.1)	4(1.4)	5(0.7)	0(0.0)
	무응답	3(0.1)	0(0.0)	1(0.1)	0(0.0)
	전체	2,287(100.0)	287(100.0)	755(100.0)	174(100.0)
교원 구성	전임	789(34.5)	135(47.0)	533(70.6)	89(51.1)
	비전임	1,491(65.2)	150(52.3)	220(29.1)	85(48.9)
	기타	1(0.0)	0(0.0)	1(0.1)	0(0.0)
	무응답	6(0.3)	2(0.7)	1(0.1)	0(0.0)
	전체	2,287(100.0)	287(100.0)	755(100.0)	174(100.0)
	평가 방식	상대평가	1,479(64.7)	212(73.9)	412(54.6)
절대평가	685(30.0)	67(23.3)	239(31.7)	0(0.0)	
P/F	0(0.0)	2(0.7)	46(6.1)	0(0.0)	
기타	1(0.0)	1(0.3)	1(0.1)	0(0.0)	
무응답	122(5.3)	5(1.7)	57(7.5)	0(0.0)	
전체	2,287(100.0)	287(100.0)	755(100.0)	174(100.0)	
수업 유형	대면	1,551(67.8)	193(67.2)	553(73.2)	173(99.4)
	비대면	94(4.1)	12(4.2)	15(2.0)	1(0.6)
	블렌디드	175(7.7)	57(19.9)	58(7.7)	0(0.0)
	기타	4(0.2)	0(0.0)	5(0.7)	0(0.0)
	무응답	463(20.2)	25(8.7)	124(16.4)	0(0.0)
	전체	2,287(100.0)	287(100.0)	755(100.0)	174(100.0)

□ 의사소통Ⅱ 영역의 교육 내용과 운영 현황

의사소통Ⅱ 영역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사용한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에 목적을 둔다. 영어 교육만이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 학습과 외국 문화 교육이 의사소통Ⅱ에 포함될 수 있는데, 제한된 여건상 대학에서는 주로 영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하는 한 여타의 외국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의사소통Ⅱ 영역에 개설된 교과목을 언어별로 분류해 보면, 영어 교과목이 6,770개(75.9%)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어 455개(5.1%), 일본어 373개(4.2%), 스페인어 120개(1.3%), 독일어 119개(1.3%), 프랑스어 114개(1.3%), 러시아어 72개(0.8%) 등이었다. 외국 유학생 대상의 한국어 교과목 또한 550개로 6.2%나 되었다.

영어 교과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화 및 생활영어 강좌가 2,690개로 전체 영어 강좌의 39.7%를 차지하였으며, 학술적 성격이 강한 대학 영어 강좌가 2,622개로 38.8%,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부문별 영어 교육을 위한 강좌가 1,187개로 17.5%를 차지하였다. 이밖에 시사영어, 실용영어, 스크린영어, 영문법, 영어문화, 영어토론 등 다양한 영어 강좌가 개설되었다.

〈표 III-46〉 의사소통Ⅱ 영역의 교육 내용

교육 내용	강좌 수	비율	교육 내용	강좌 수	비율
영어회화, 생활영어	2,690	30.2	영어문화	20	0.23
영어	2,622	29.4	영어토론	13	0.1
한국어교육	550	6.2	이태리어	10	0.1
중국어	378	4.2	포르투갈어	7	0.1
Speaking	367	4.1	단어속어	7	0.1
일본어	268	3.0	수화	7	0.1
Reading	274	3.1	번역	6	0.1
Writing	207	2.3	몽골어	6	0.1
영어 R&W	181	2.0	아랍어	6	0.1
한자/한문	151	1.7	스와힐리어	3	0.0
영어 L&S	124	1.4	산스크리트어	2	0.0
실용영어	120	1.3	말레이-인도네시아어	2	0.0
스페인어	120	1.3	터키어	2	0.0
독일어	119	1.3	핀란드어	2	0.0
프랑스어	114	1.3	히브리어	2	0.0
실용일본어/회화	104	1.2	고전그리스어	2	0.0
스크린영어	77	0.9	외국어탐색, 한국사회와 국제어	2	0.0
실용중국어/회화	75	0.8	시험대비 중국어	2	0.0

교육 내용	강좌 수	비율	교육 내용	강좌 수	비율
러시아어	72	0.8	시험대비 일본어	1	0.0
영문법	62	0.7	인도어	1	0.0
시사영어	45	0.5	힌디어	1	0.0
Listening	34	0.4	코딩 오류	21	0.2
베트남어	22	0.2			
라틴어	20	0.2	계	8,921	100.0

영어와 중국어,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한국어 교과목을 중심으로 의사소통Ⅱ 교과목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Ⅱ 영역에 개설된 교과목 가운데 영어 교과목은 75% 이상이 필수로 개설되었으나, 여타의 언어를 학습하는 교과목은 선택으로 개설하는 비율이 높았다. 영어 회화나 생활영어를 비롯한 영어 교과목은 20명 미만의 소규모 강좌로 운영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중국어 교과목이나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과목 등 여타의 외국어 교과목은 20명 미만의 소규모 강좌에서 31~50명 미만의 중소규모 강좌에 이르기까지 강좌 규모가 다양하였다. 또한 영어 회화나 생활영어 강좌는 2학점 강좌가 가장 많았으나, 아카데미한 대학 영어에 초점을 맞춘 강좌의 경우에는 3학점으로 개설되는 경우도 많았다. 중국어 또는 유학생 대상의 한국어 강좌는 3학점 강좌가 가장 많았으나, 2학점으로 개설되는 경우도 많았다. 의사소통Ⅱ 영역의 교과목은 언어를 불문하고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고, 대부분 상대평가를 적용하였으나, 영어 교과목의 경우에는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여타 외국어 교과목은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I-47〉 의사소통Ⅱ 영역의 주요 교과목 운영 현황

구분	영어	영어회화/생활영어	중국어	한국어 교육	
학점	0~1학점	82(3.1)	912(33.9)	0(0.0)	2(0.4)
	2학점	1,361(51.9)	1,475(54.8)	128(33.9)	247(44.9)
	3학점	1,148(43.8)	299(11.1)	234(61.9)	287(52.2)
	4~5학점	0(0.0)	0(0.0)	0(0.0)	3(0.5)
	무응답	31(1.2)	4(0.1)	16(4.2)	11(2.0)
	전체	2,622(100.0)	2,690(100.0)	378(100.0)	550(100.0)
강좌 규모	1~20명	1,201(45.8)	2,045(76.0)	121(32.0)	193(35.1)
	21~30명	616(23.5)	528(19.6)	116(30.7)	159(28.9)
	31~50명	710(27.1)	99(3.7)	116(32.7)	181(32.9)
	51~100명	8(0.3)	7(0.3)	11(2.9)	16(2.9)
	101~200명	20(0.8)	8(0.3)	0(0.0)	1(0.2)
	201명 이상	67(2.6)	3(0.3)	14(2.7)	0(0.0)
	전체	2,622(100.0)	2,690(100.0)	378(100.0)	550(100.0)

구분		영어	영어회화/생활영어	중국어	한국어 교육
이수 방식	필수	1,979(75.5)	1,958(72.8)	121(32.0)	132(24.0)
	선택필수	190(7.2)	204(7.6)	59(15.6)	31(5.6)
	선택	453(17.3)	527(19.6)	192(50.8)	353(64.2)
	기타	0(0.0)	0(0.0)	4(1.1)	23(4.2)
	무응답	0(0.0)	1(0.0)	2(0.5)	11(2.0)
	전체	2,622(100.0)	2,690(100.0)	378(100.0)	550(100.0)
교원 구성	전임	1,676(63.9)	2,415(89.8)	140(37.0)	150(27.3)
	비전임	889(33.9)	254(9.4)	227(60.1)	383(69.6)
	기타	57(2.2)	20(0.7)	7(1.9)	3(0.5)
	무응답	0(0.0)	1(0.0)	4(1.1)	14(2.5)
	전체	2,622(100.0)	2,690(100.0)	378(100.0)	550(100.0)
평가 방식	상대평가	1,533(58.5)	1,497(55.7)	245(64.8)	311(56.5)
	절대평가	563(21.5)	675(25.1)	97(25.7)	179(32.5)
	P/F	28(1.1)	350(13.0)	0(0.0)	15(2.7)
	기타	5(0.2)	1(0.0)	6(1.6)	4(0.7)
	무응답	493(18.8)	167(6.2)	30(7.9)	41(7.5)
	전체	2,622(100.0)	2,690(100.0)	378(100.0)	550(100.0)
수업 유형	대면	1,749(66.7)	2,350(87.4)	229(60.6)	430(78.2)
	비대면	48(1.8)	28(1.0)	40(10.6)	22(4.0)
	블렌디드	54(2.1)	77(2.9)	17(4.5)	17(3.1)
	기타	0(0.0)	0(0.0)	0(0.0)	0(0.0)
	무응답	771(29.4)	235(8.7)	92(24.3)	81(14.7)
	전체	2,622(100.0)	2,690(100.0)	378(100.0)	550(100.0)

□ 사고 영역의 교육 내용과 운영 현황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추론 능력,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도덕적 판단력과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은 주체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무엇보다도 긴요하게 갖추어야 할 기본능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학의 교양교육 현장에서는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분야와 함께 가장 소외되어 있는 분야가 바로 사고 교육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와 같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하위영역 가운데 강좌 자체가 가장 적게 개설된 분야가 사고 교육 영역이었다. 분석 대상 60개 대학에서 2022학년도에 사고력을 함양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개설한 교과목은 766개 강좌로, 기초문해 전체 강좌의 4.0%에 불과했다. 개설된 강좌는 비판적 사고(320개, 41.8%)와 창의적 사고(224개, 29.2%), 논리적 사고(82개, 10.7%), 디자인 사고(74개, 9.7%)를 학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고, 도덕적 추론이나 윤리적 추론 관련 교과목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표 III-48〉 사고 영역의 교육 내용

교과목 명	강좌 수	비율	교육 내용	강좌 수	비율
비판 및 비판적 사고	320	41.8	통찰	2	0.3
창의 및 창의적 사고	224	29.2	분석적 사고	1	0.1
논리 및 논리적 사고	82	10.7	평가적 사고	1	0.1
디자인 씽킹, 디자인 사고	74	9.7	종합적 사고	1	0.1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사고, 전략적 사고	5	0.7	코딩 오류	50	6.4
도덕적 및 윤리적 추론	3	0.4			
통계적 사고	3	0.4	계	766	100.0

사고 교육을 위한 강좌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 영역의 강좌들은 비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31~50명 규모의 강좌로 개설되어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다만, 디자인 사고 강좌는 블렌디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창의적 사고 강좌는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및 디자인 사고 강좌는 필수로 이수하게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논리적 사고 강좌는 선택 교과목으로 운영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강좌는 3학점(57.1%, 49.6%)으로 운영되는 경우와 2학점(45.9%, 40.6%)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데 비해, 논리적 사고와 디자인 사고 관련 강좌는 2학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68.3%, 90.5%).

개설 강좌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대부분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좌이며, 강좌 규모도 소규모 강좌가 아니라는 사실은 사고 교육을 위한 대학의 지원이나 교육 여건이 충분치 못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고 하겠다.

〈표 III-49〉 사고 영역의 주요 교과목 운영 현황

구분	논리 및 논리적 사고	비판 및 비판적 사고	창의 및 창의적 사고	디자인씽킹/디자인 사고	
학점	0~1학점	0(0.0)	0(0.0)	20(8.9)	0(0.0)
	2학점	56(68.3)	147(45.9)	91(40.6)	67(90.5)
	3학점	24(29.3)	173(57.1)	111(49.6)	6(8.1)
	4~5학점	0(0.0)	0(0.0)	0(0.0)	0(0.0)
	무응답	2(2.4)	0(0.0)	2(0.9)	1(1.4)
	전체	82(100.0)	320(100.0)	224(100.0)	74(100.0)
강좌 규모	1~20명	6(7.3)	33(10.3)	23(10.3)	5(6.8)
	21~30명	5(6.1)	66(20.6)	54(24.1)	19(25.7)
	31~50명	43(52.4)	199(62.2)	110(49.1)	46(62.2)
	51~100명	27(32.9)	21(6.6)	36(16.1)	2(2.7)
	101~200명	0(0.0)	1(0.3)	1(0.4)	0(0.0)
	201명 이상	1(1.2)	0(0.0)	0(0.0)	2(2.7)
전체	82(100.0)	320(100.0)	224(100.0)	74(100.0)	

구분		논리 및 논리적 사고	비판 및 비판적사고	창의 및 창의적사고	디자인생각/디자인사고
이수 방식	필수	0(0.0)	173(54.1)	104(46.4)	55(74.3)
	선택필수	18(22.0)	27(8.4)	17(7.6)	0(0.0)
	선택	57(69.5)	116(36.3)	101(45.1)	18(24.3)
	기타	6(7.3)	4(1.3)	0(0.0)	0(0.0)
	무응답	1(1.2)	0(0.0)	2(0.9)	1(1.4)
전체		82(100.0)	320(100.0)	224(100.0)	74(100.0)
교원 구성	전임	24(29.3)	145(45.3)	142(63.4)	34(45.9)
	비전임	56(68.3)	174(54.4)	73(32.6)	37(50.0)
	기타	0(0.0)	1(0.3)	2(0.9)	0(0.0)
	무응답	2(2.4)	0(0.0)	7(3.1)	3(4.1)
	전체	82(100.0)	320(100.0)	224(100.0)	74(100.0)
평가 방식	상대평가	50(61.0)	309(96.6)	134(59.8)	13(17.6)
	절대평가	4(4.9)	10(3.1)	18(8.0)	2(2.7)
	P/F	0(0.0)	0(0.0)	20(8.9)	0(0.0)
	기타	0(0.0)	1(3.1)	0(0.0)	0(0.0)
	무응답	28(34.1)	0(0.0)	52(23.2)	59(79.7)
전체		82(100.0)	320(100.0)	224(100.0)	74(100.0)
수업 유형	대면	40(48.8)	256(80.0)	146(65.2)	12(16.2)
	비대면	3(3.7)	8(2.5)	14(6.3)	0(0.0)
	블렌디드	6(7.3)	42(13.1)	8(3.6)	59(79.7)
	기타	2(2.4)	0(0.0)	0(0.0)	0(0.0)
	무응답	31(37.8)	14(4.4)	56(25.0)	3(4.1)
전체		82(100.0)	320(100.0)	224(100.0)	74(100.0)

□ 정보문해 영역의 교육 내용과 운영 현황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영역과 함께 기초문해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은 학점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문해 영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접어들면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기초문해 교육과정에 개설되는 정보문해 교과목들은 ㉠ 컴퓨터 언어와 프로그래밍, ㉡ 컴퓨팅 사고, ㉢ 코딩, ㉣ 데이터 리터러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분석 대상 60개 대학에서 2022학년도에 개설한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정보문해 영역 강좌는 총 2,392개였는데, 그 가운데 C언어·JAVA·R·파이썬 등 ㉠ 컴퓨터 언어와 이를 활용한 프로그래밍에 초점을 맞춘 강좌는 518개(21.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 컴퓨팅 사고·알고리즘·정보적 사고·통계적 사고 교육에 초점을 둔 강좌가 450개(18.8%), ㉢ 코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교육한 강좌가 374개(15.6%),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과학, 빅데이터 등 ㉣ 데이터 리터러시에 초점을 맞춘 강좌가 290개(12.1%)였다. 이밖에 SW, 인공지능, 컴퓨터 개론이나 컴퓨터 활용, 인터넷 활용 강좌 등도 여전히 개설되고 있었다.

〈표 III-50〉 정보문해 영역의 교육 내용

교육 내용	강좌 수	비율	교육 내용	강좌 수	비율
컴퓨터 언어, 프로그래밍	518	21.7	디지털 리터러시	33	1.4
컴퓨팅 사고, 알고리즘	450	18.8	TRIZ, 스크래치	17	0.7
코딩	374	15.6	IoT, 클라우드, 블록체인, AR/VR	9	0.4
데이터 리터러시	290	12.1	스마트폰, 앱	2	0.1
SW	252	10.5	기타	73	3.1
인공지능(AI)	196	8.2	코딩 오류	11	0.5
컴퓨터 개론/이해, 정보기술/IT	97	4.1			
컴퓨터 활용/실습, 인터넷 활용	70	2.9	계	2,392	100.0

컴퓨터 언어와 프로그래밍, 컴퓨팅 사고, 코딩, 데이터 분석 등 상대적으로 개설 강좌 수가 많은 교과목을 중심으로 정보문해 교과목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보문해 교과목은 31~50명 규모의 강좌로 개설되어 대면 강의로 진행되는 2학점 필수 교과목으로,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컴퓨터 언어와 프로그래밍 강좌는 3학점(67.0%)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코딩 강좌는 비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21~30명 규모의 강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 정보문해 영역의 주요 교과목 운영 현황

구분	컴퓨터 언어	컴퓨팅 사고	코딩	데이터 분석	
학점	0~1학점	21(4.1)	2(0.4)	1(0.3)	0(0.0)
	2학점	145(28.0)	225(50.0)	285(76.2)	188(64.8)
	3학점	347(67.0)	198(44.0)	85(22.7)	101(34.8)
	4~5학점	0(0.0)	0(0.0)	0(0.0)	0(0.0)
	무응답	5(1.0)	25(5.6)	3(0.8)	1(0.3)
	전체	518(100.0)	450(100.0)	374(100.0)	290(100.0)
강좌 규모	1~20명	26(5.0)	27(6.0)	29(7.8)	51(17.6)
	21~30명	83(16.0)	120(26.7)	175(46.8)	45(15.5)
	31~50명	377(72.8)	220(48.9)	155(41.4)	161(55.5)
	51~100명	26(5.0)	31(6.9)	10(2.7)	22(7.6)
	101~200명	0(0.0)	20(4.4)	2(0.5)	10(3.4)
	201명 이상	6(1.2)	32(7.1)	3(0.8)	1(0.3)
전체	518(100.0)	450(100.0)	374(100.0)	290(100.0)	
이수 방식	필수	315(60.8)	296(65.8)	299(79.9)	163(56.2)
	선택필수	7(1.4)	29(6.4)	31(8.3)	15(5.2)
	선택	195(37.6)	124(27.6)	42(11.2)	111(38.3)
	기타	1(0.2)	0(0.0)	1(0.3)	1(0.3)
	무응답	0(0.0)	1(0.2)	1(0.3)	0(0.0)
	전체	518(100.0)	450(100.0)	374(100.0)	290(100.0)

구분		컴퓨터 언어	컴퓨팅 사고	코딩	데이터 분석
교원 구성	전임	281(54.2)	311(69.1)	148(39.6)	195(67.2)
	비전임	234(45.2)	138(30.7)	220(58.8)	90(31.0)
	기타	0(0.0)	0(0.0)	1(0.3)	1(3.0)
	무응답	3(0.6)	1(0.2)	5(1.3)	4(1.4)
	전체	518(100.0)	450(100.0)	374(100.0)	290(100.0)
평가 방식	상대평가	334(64.5)	327(72.7)	168(44.9)	185(63.8)
	절대평가	138(26.6)	77(17.1)	74(19.8)	59(20.3)
	P/F	2(0.4)	10(2.2)	2(0.5)	1(0.3)
	기타	0(0.0)	0(0.0)	0(0.0)	1(0.3)
	무응답	44(8.5)	36(8.0)	130(34.8)	44(15.2)
	전체	518(100.0)	450(100.0)	374(100.0)	290(100.0)
수업 유형	대면	336(64.9)	287(63.8)	186(49.7)	216(74.5)
	비대면	75(14.5)	61(13.6)	9(2.4)	17(5.9)
	블렌디드	35(6.8)	20(4.4)	174(46.5)	16(5.5)
	기타	0(0.0)	0(0.0)	0(0.0)	0(0.0)
	무응답	72(13.9)	82(18.2)	5(1.3)	41(14.1)
	전체	518(100.0)	450(100.0)	374(100.0)	290(100.0)

□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영역의 교육 내용과 운영 현황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문명의 혜택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과학적 리터러시(scientific literacy)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없이는 시대와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기가 어렵게 되었다.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학생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교육이 실제로는 특정 계열의 전공기초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분석 대상 60개교에서 2022학년도에 개설된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강좌는 총 2,762개였다. 그러나 기초문해 교육과정에 편성된 10.19학점 가운데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영역에서는 평균 0.47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교과목은 개설하더라도, 모든 학생이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강좌를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정 계열을 전공하는 학생들만, 그것도 전공기초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다.

한편,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영역에 개설된 2,762개 강좌를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면, 수학 강좌가 1,055개(38.2%), 물질과학 1,303개(47.2%), 생명과학 308개(11.2%), 통합과학 및 과학 일반 89개(3.2%) 등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영역에 개설되는 강좌 대부분이 수학과 물질과학 분야의 강

좌이고, 생명과학이나 통합과학 및 과학 일반 강좌는 매우 적음을 보여준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대학수학 강좌 616개(22.3%), 물리학 및 실험 강좌 461개(16.7%), 화학 및 실험 강좌 368개(13.3%), 물리학 강좌 228개(8.3%), 확률·통계 강좌 193개(7.0%) 순이었다. 이와 같은 강좌 개설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공기초 교육을 위한 기초과학·수학 교육이 기초문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양기초 교육과정에 편성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학생을 위한 기초과학·수학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점 및 개설 강좌의 편성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표 III-52〉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영역의 교육 내용

교육 내용	강좌 수	비율	교육 내용	강좌 수	비율
수학	616	22.3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19	0.7
물리학 및 실험	461	16.7	선형대수학, 벡터	18	0.7
화학 및 실험	368	13.3	지구환경과학, 대기과학	9	0.3
확률통계	193	7.0	경영수학	7	0.3
미적분	131	4.7	통합과학, 융합과학	7	0.3
물리학	228	8.3	공학수학	6	0.2
화학	187	6.8	인문사회 수학	6	0.2
생물학 및 실험	174	6.3	천문학	4	0.1
생물학	101	3.7	이산수학, 전산수학	3	0.1
교양과학 일반	82	3.0	해양학	2	0.1
양적 추론, 정량적 상상력, 양적방법론	33	1.2	지리학	1	0.0
생명과학, 생명과학실험	31	1.1	함수	1	0.0
지구과학	25	0.9	코딩 오류	7	0.3
교양수학	22	0.8			
물리학 및 연습	20	0.7	계	2,762	100.0

기초문해 교육과정에는 위에서 살펴본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강좌 외에도 공학수학, 공학물리학 및 실험, 공학화학 및 실험, 경영수학 같은 계열기초 성격의 BSM 교과목들이 편성되어 있어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 아래 〈표 III-53〉에 제시된 534개 강좌는 그와 같은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표 III-53〉 계열기초 성격의 BSM 교과목 현황

교과목 명	강좌 수	비율	교과목 명	강좌 수	비율
공학수학	195	36.5	수학	10	1.9
물리학	59	11.0	확률통계	2	0.4
물리학 및 실험	59	11.0	생물학	2	0.4
미적분	53	9.9	선형대수학, 벡터	1	0.2
공학물리학 및 실험	40	7.5	이산수학, 전산수학	1	0.2
공학화학 및 실험	30	5.6	교양수학	1	0.2
화학 및 실험	24	4.5	지구과학	1	0.2
화학	22	4.1	코딩 오류	4	0.7
공학생물학 및 실험	15	2.8			
경영수학	15	2.8	계	534	100.0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교과목 가운데 개설 강좌 수가 많은 수학, 확률통계, 물리학 및 실험, 화학 및 실험을 중심으로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교과목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강좌는 3학점 또는 0.5~1학점 강좌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교과목이 0.5~1학점 강좌로 개설되는 것은 교양 교과목이라기보다는 전공교육을 위한 예비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학이나 확률통계 같은 수학 강좌는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선택 교과목으로 31~50명 규모의 강좌로 개설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물리학 및 실험이나 화학 및 실험 등 실험 강좌는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필수 교과목으로 20명 미만의 소규모 강좌로 개설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교과목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평가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비중이 비슷하였다.

〈표 III-54〉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교과목의 운영 현황

구분	수학	확률통계	물리학 및 실험	화학 및 실험	
학점	0~1학점	128(20.8)	39(20.2)	287(62.3)	221(60.1)
	2학점	134(21.8)	12(6.2)	6(1.3)	1(0.3)
	3학점	351(57.0)	142(73.6)	138(29.9)	127(34.5)
	4~5학점	2(0.3)	0(0.0)	14(3.0)	11(3.0)
	무응답	1(0.2)	0(0.0)	16(3.5)	8(2.2)
	전체	616(100.0)	193(100.0)	461(100.0)	368(100.0)

구분		수학	확률통계	물리학 및 실험	화학 및 실험
강좌 규모	1~20명	94(15.3)	20(10.4)	199(43.2)	160(43.5)
	21~30명	163(26.5)	26(13.5)	137(29.7)	108(29.3)
	31~50명	290(47.1)	116(60.1)	110(23.9)	92(25.0)
	51~100명	65(10.6)	29(15.0)	7(1.5)	8(2.2)
	101~200명	1(0.2)	2(1.0)	3(0.7)	0(0.0)
	201명 이상	3(0.5)	0(0.0)	5(1.1)	0(0.0)
	전체	616(100.0)	193(100.0)	461(100.0)	368(100.0)
이수 방식	필수	199(32.3)	18(9.3)	225(48.8)	150(40.8)
	선택필수	183(29.7)	73(37.8)	106(23.0)	95(25.8)
	선택	234(38.0)	102(52.8)	130(28.2)	123(33.4)
	기타	0(0.0)	0(0.0)	0(0.0)	0(0.0)
	무응답	0(0.0)	0(0.0)	0(0.0)	0(0.0)
	전체	616(100.0)	193(100.0)	461(100.0)	368(100.0)
교원 구성	전임	261(42.4)	51(26.4)	344(74.6)	242(65.8)
	비전임	351(57.0)	142(73.6)	109(23.6)	119(32.3)
	기타	0(0.0)	0(0.0)	6(1.3)	7(1.9)
	무응답	4(0.6)	0(0.0)	2(0.4)	0(0.0)
	전체	616(100.0)	193(100.0)	461(100.0)	368(100.0)
평가 방식	상대평가	283(45.9)	89(46.1)	234(50.8)	147(39.9)
	절대평가	277(45.0)	100(51.8)	221(47.9)	211(57.3)
	P/F	15(2.4)	2(1.0)	0(0.0)	0(0.0)
	기타	4(0.6)	0(0.0)	4(0.9)	10(2.7)
	무응답	37(6.0)	2(1.0)	2(0.4)	0(0.0)
	전체	616(100.0)	193(100.0)	461(100.0)	368(100.0)
수업 유형	대면	345(56.0)	71(36.8)	254(55.1)	180(48.9)
	비대면	15(2.4)	34(17.6)	3(0.7)	9(2.4)
	블렌디드	16(2.6)	19(9.8)	77(16.7)	78(21.2)
	기타	0(0.0)	0(0.0)	0(0.0)	0(0.0)
	무응답	240(39.0)	69(35.8)	127(27.5)	101(27.4)
	전체	616(100.0)	193(100.0)	461(100.0)	368(100.0)

2) 설립유형별/지역별/규모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운영 현황

□ 기초문해 교과목의 개설 현황

이번 조사는 60개교에 개설된 교과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분석 결과는 일정한 경향성을 읽어내기에 충분하였다. 먼저 설립유형별 기초문해 강좌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I 과 의사소통 II 강좌가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을 막론하고 기초문해 전체 강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동일했으나, 국공립대학과 비교했을 때 사립대학의 의사소통 II 강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국공립대학 33.1%, 사립대학 50.6%).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어 교육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및 수학 강좌는 사립대학에 비해 국공립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개설되고, 정보문해 강좌는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개설된다는 점도 주목되는 사실 가운데 하나였다. 기초과학 및 수학 강좌가 국공립대학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서울대학교와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소수의 국공립대학이 개설하는 기초과학 및 수학 분야의 계열별 전공기초 강좌가 전체 통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실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개설되는 기초과학 및 수학 강좌가 668개로 국공립대학에서 개설되는 1,252개 강좌의 53.4%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정보문해 강좌가 사립대학에 더 많이 개설되는 것은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이 사회 변화나 시대적 요청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사고 교육을 위한 교양기초 강좌가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을 막론하고 모두 빈약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표 III-55> 설립유형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개설 현황

구분	의사소통I	의사소통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계열기초	전체
국공립	829(20.8)	1,320(33.1)	140(3.5)	385(9.6)	1,252(31.4)	66(1.7)	3,992(100.0)
사립	2,800(18.7)	7,601(50.6)	626(4.2)	2,007(13.4)	1,510(10.1)	468(3.1)	15,012(100.0)

기초문해 강좌의 개설 현황을 권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지역 대학에서 개설된 기초문해 교과목은 7,203개였고, 대강경 지역 대학은 2,334개, 충청권 지역 대학은 4,056개, 호남제주권 지역 대학은 1,598개, 그리고 부울경 지역 대학은 3,813개였다. 모든 권역에서 의사소통II 교과목의 비율이 (38.3%~55.0%) 가장 높았는데,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 대학들에서 개설하는 의사소통II 강좌가 매우 많았다. 정보문해 교과목은 대경강원권 지역과 호남제주권, 그리고 부울경 지역의 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개설하고 있었으며, 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교과목의 비율(21.0%)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것은 서울대학교와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광운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등 소수의 대학에서 개설하는 강좌가 많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I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강좌가 고르게 개설되고 있어 글쓰기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56〉 권역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개설 현황

구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계열기초	전체
수도권	1,384(19.2)	2,761(38.3)	227(3.2)	843(11.7)	1,512(21.0)	476(6.6)	7,203(100.0)
대경강원권	490(21.0)	1,183(50.7)	95(4.1)	428(18.3)	127(5.4)	11(0.5)	2,334(100.0)
충청권	647(16.0)	2,230(55.0)	164(4.0)	350(8.6)	641(15.8)	24(0.6)	4,056(100.0)
호남제주권	298(18.6)	681(42.6)	145(9.1)	254(15.9)	215(13.5)	5(0.3)	1,598(100.0)
부울경	810(21.2)	2,066(54.2)	135(3.5)	517(13.6)	267(7.0)	18(0.5)	3,813(100.0)

대학 규모별 기초문해 교과목 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문해 교육과정 5개 영역 가운데 의사소통 II 영역의 교과목이 대학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규모의 대학에서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 다만, 재학생 2만 명의 이상 대규모 대학에서는 의사소통 II 교과목 개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고교육 관련 강좌는 모든 규모의 대학에서 개설 비율이 현저히 낮았는데, 특히 2만 명 이상 대규모 대학에서 더욱 낮았다. 반면 2만 명 이상 대규모 대학에서는 기초과학 및 수학 관련 강좌의 개설 비율이 여타 다른 규모의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의사소통 I 관련 강좌는 대학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정도 이상 개설되고 있었으며, 정보문해 교육 관련 강좌는 재학생 5천 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개설되고 있었다.

〈표 III-57〉 대학 규모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개설 현황

구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계열기초	전체
2천 명 미만	49(22.9)	103(48.1)	12(5.6)	39(18.2)	11(5.1)	0(0.0)	214(100.0)
2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	224(18.0)	655(52.6)	60(4.8)	233(18.7)	67(5.4)	6(0.5)	1,245(100.0)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1,388(17.2)	3,940(48.9)	381(4.7)	1,109(13.8)	900(11.2)	340(4.2)	8,058(100.0)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1,100(19.0)	2,944(50.8)	288(5.0)	576(9.9)	873(15.1)	11(0.2)	5,792(100.0)
2만 명 이상	868(23.5)	1,279(34.6)	25(0.7)	435(11.8)	911(24.7)	177(4.8)	3,695(100.0)

□ 기초문해 교과목의 강좌 규모

설립유형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강좌 규모를 분석해 보면, 국공립대학은 의사소통 I 강좌를 21~30명 규모의 강의로 운영되는 경우(42.8%)가 가장 많았고, 의사소통 II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로 운영하는 경우(41.3%)가 가장 많았다. 사고, 정

보문해,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계열기초 성격의 BSM 교과목은 31~50명 규모의 강좌로 개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만,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교과목의 경우에는 20명 이하 및 21~30명 규모의 강좌 또한 많았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의사소통Ⅱ만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56.2%)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 의사소통Ⅰ,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계열기초 성격의 BSM 강좌는 모두 31~50명 규모의 강좌가 가장 많았다.

〈표 III-58〉 설립유형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강좌 규모

구분		의사소통Ⅰ	의사소통Ⅱ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계열기초
국공립	1~20명	133(16.0)	545(41.3)	10(7.1)	10(2.6)	319(25.5)	2(3.0)
	21~30명	355(42.8)	309(23.4)	12(8.6)	69(17.9)	283(22.6)	11(16.7)
	31~50명	320(38.6)	363(27.5)	106(75.7)	238(61.8)	497(39.7)	38(57.6)
	51~100명	4(0.5)	36(2.7)	11(7.9)	21(5.5)	139(11.1)	15(22.7)
	101~200명	0(0.0)	0(0.0)	0(0.0)	22(5.7)	10(0.8)	0(0.0)
	201명 이상	17(2.1)	67(5.1)	1(0.7)	25(6.5)	4(0.3)	0(0.0)
	전체	829(100.0)	1,320(100.0)	140(100.0)	385(100.0)	1,252(100.0)	66(100.0)
사립	1~20명	455(16.3)	4,273(56.2)	64(10.2)	211(10.5)	336(22.3)	34(7.3)
	21~30명	825(29.5)	1,730(22.8)	142(22.7)	492(24.5)	338(22.4)	88(18.8)
	31~50명	1,367(48.8)	1,411(18.6)	337(53.8)	1,101(54.9)	632(41.9)	291(62.2)
	51~100명	127(4.5)	99(1.3)	78(12.5)	136(6.8)	187(12.4)	54(11.5)
	101~200명	9(0.3)	38(0.5)	3(0.5)	33(1.6)	9(0.6)	1(0.2)
	201명 이상	17(0.6)	50(0.7)	2(0.3)	34(1.7)	8(0.5)	0(0.0)
	전체	2,800(100.0)	7,601(100.0)	626(100.0)	2,007(100.0)	1,510(100.0)	468(100.0)

권역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강좌 규모를 분석해 보면, 대경강원권, 충청권, 호남 제주권 대학은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며, 수도권과 부울경 지역 대학은 각기 다른 특징을 보였다. 대경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의 대학들은 의사소통Ⅱ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문해 교과목들은 31~50명 규모의 강좌로 개설 운영하였으며, 의사소통Ⅱ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로 운영하였다. 수도권 대학은 의사소통Ⅱ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의사소통Ⅰ과 사고는 21~30명 규모의 강좌, 정보문해와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강좌는 31~50명 규모의 강좌로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반면, 부울경 지역의 대학은 의사소통Ⅱ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가 가장 많은 것은 수도권 대학과 동일했으나, 의사소통Ⅰ과 사고는 31~50명 규모의 강좌, 정보문해와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강좌는 21~30명 규모의 강좌로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수도권 대학과 상대적인 양상을 보였다.

한편 권역별 강좌 규모를 기초문해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소통 I 은 수도권 지역 대학에서는 21~30명 규모의 강좌가 가장 많았으나(50.5%), 나머지 지역 대학에서는 31~50명 규모의 강좌가 가장 많았다. 의사소통 II 는 대학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가 가장 많이 개설되었는데, 특히 대경강원권, 충청권, 부울경 지역 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고 교육 관련 강좌는 수도권 대학에서만 21~30명 강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지역 대학에서는 31~50명 강좌로 개설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반면 정보문해,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강좌는 소재지를 막론하고 31~50명 규모의 강좌로 개설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III-59〉 권역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강좌 규모

구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계열기초
수도권	1~20명	281(20.3)	1,192(43.2)	17(7.5)	86(10.2)	474(31.3)	27(5.7)
	21~30명	699(50.5)	750(27.2)	87(38.3)	144(17.1)	333(22.0)	95(20.0)
	31~50명	372(26.9)	699(25.3)	86(37.9)	522(61.9)	492(32.5)	291(61.1)
	51~100명	12(0.9)	38(1.4)	32(14.1)	46(5.5)	192(12.7)	63(13.2)
	101~200명	1(0.1)	4(0.1)	2(0.9)	5(0.6)	15(1.0)	0(0.0)
	201명 이상	19(1.4)	78(2.8)	3(1.3)	40(4.7)	6(0.4)	0(0.0)
	전체	1,384(100.0)	2,761(100.0)	227(100.0)	843(100.0)	1,512(100.0)	476(100.0)
대경 강원권	1~20명	80(16.3)	693(58.6)	9(9.5)	46(10.7)	22(17.3)	1(9.1)
	21~30명	120(24.5)	266(22.5)	11(11.6)	95(22.2)	38(29.9)	9(81.8)
	31~50명	217(44.3)	209(17.7)	60(63.2)	222(51.9)	39(30.7)	1(9.1)
	51~100명	70(14.3)	13(1.1)	15(15.8)	39(9.1)	26(20.5)	0(0.0)
	101~200명	2(0.4)	0(0.0)	0(0.0)	18(4.2)	2(1.6)	0(0.0)
	201명 이상	1(0.2)	2(0.2)	0(0.0)	8(1.9)	0(0.0)	0(0.0)
	전체	490(100.0)	1,183(100.0)	95(100.0)	428(100.0)	127(100.0)	11(100.0)
충청권	1~20명	73(11.3)	1,482(66.5)	23(14.0)	13(3.7)	71(11.1)	8(33.3)
	21~30명	195(30.1)	422(18.9)	15(9.1)	45(12.9)	128(20.0)	1(4.2)
	31~50명	365(56.4)	297(13.3)	111(67.7)	230(65.7)	381(59.4)	11(45.8)
	51~100명	14(2.2)	29(1.3)	15(9.1)	32(9.1)	60(9.4)	3(12.5)
	101~200명	0(0.0)	0(0.0)	0(0.0)	29(8.3)	1(0.2)	1(4.2)
	201명 이상	0(0.0)	0(0.0)	0(0.0)	1(0.3)	0(0.0)	0(0.0)
	전체	647(100.0)	2,230(100.0)	164(100.0)	350(100.0)	641(100.0)	24(100.0)

구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계열기초
호남 제주권	1~20명	29(9.7)	297(43.6)	17(11.7)	19(7.5)	19(8.8)	0(0.0)
	21~30명	27(9.1)	161(23.6)	18(12.4)	32(12.6)	25(11.6)	0(0.0)
	31~50명	230(77.2)	188(27.6)	90(62.1)	188(74.0)	136(63.3)	5(100.0)
	51~100명	8(2.7)	30(4.4)	19(13.1)	7(2.8)	35(16.3)	0(0.0)
	101~200명	2(0.7)	3(0.4)	1(0.7)	2(0.8)	0(0.0)	0(0.0)
	201명 이상	2(0.7)	2(0.3)	0(0.0)	6(2.4)	0(0.0)	0(0.0)
	전체	298(100.0)	681(100.0)	145(100.0)	254(100.0)	215(100.0)	5(100.0)
부산 울산 경남권	1~20명	125(15.4)	1,154(55.9)	8(5.9)	57(11.0)	69(25.8)	0(0.0)
	21~30명	139(17.2)	440(21.3)	23(17.0)	245(47.4)	97(36.3)	3(16.7)
	31~50명	503(62.1)	381(18.4)	96(71.1)	177(34.2)	81(30.3)	13(72.2)
	51~100명	27(3.3)	25(1.2)	8(5.9)	33(6.4)	13(4.9)	2(11.1)
	101~200명	4(0.5)	31(1.5)	0(0.0)	1(0.2)	1(0.4)	0(0.0)
	201명 이상	12(1.5)	35(1.7)	0(0.0)	4(0.8)	6(2.2)	0(0.0)
	전체	810(100.0)	2,066(100.0)	135(100.0)	517(100.0)	267(100.0)	18(100.0)

대학 규모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강좌 규모를 분석한 결과, 재학생 규모 2천 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에서는 의사소통 I 교과목은 21~30명의 강좌(34.7%)가 가장 많았고, 의사소통 II(52.4%), 사고(41.7%),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45.5%) 교과목은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가 가장 많았다. 또한 정보문해 교과목은 21~30명 규모의 강좌와 31~50명 규모의 강좌가 각각 30.8%로 가장 많았다.

재학생 규모 2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의 대학에서는 의사소통 I (42.4%), 사고(53.3%), 정보문해(39.1%),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교과목(52.2%)은 31~50명 규모의 강좌를 가장 많이 개설하였고, 의사소통 II 교과목은 20명 이하의 강좌(63.4%)를 가장 많이 개설하였다. 계열기초 성격의 BSM 교과목은 21~30명 규모의 강좌(83.3%)를 가장 많이 개설하였다.

재학생 규모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의 대학과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의 대학에서는 의사소통 II 교과목은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가 가장 많이 개설되었으며, 나머지 기초문해 영역의 교과목은 31~50명의 강좌가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

재학생 규모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은 의사소통 I 교과목을 21~30명 규모의 강좌로 가장 많이 개설하였고(64.9%), 의사소통 II(51.6%), 사고(40.0%),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36.4%) 교과목은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로 가장 많이 개설하였다. 그리고 정보문해(62.8%)와 계열기초 성격의 BSM(61.6%) 교과목은 31~50명 규모의 강좌를 가장 많이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0〉 대학 규모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강좌 규모

	구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계열기초
2천명 미만	1~20명	10(20.4)	54(52.4)	5(41.7)	5(12.8)	5(45.5)	0(0.0)
	21~30명	17(34.7)	13(12.6)	3(25.0)	12(30.8)	3(27.3)	0(0.0)
	31~50명	16(32.7)	26(25.2)	4(33.3)	12(30.8)	3(27.3)	0(0.0)
	51~100명	6(12.2)	9(8.7)	0(0.0)	10(25.6)	0(0.0)	0(0.0)
	101~200명	0(0.0)	0(0.0)	0(0.0)	0(0.0)	0(0.0)	0(0.0)
	201명 이상	0(0.0)	1(1.0)	0(0.0)	0(0.0)	0(0.0)	0(0.0)
	전체	49(100.0)	103(100.0)	12(100.0)	39(100.0)	11(100.0)	0(0.0)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	1~20명	27(12.1)	415(63.4)	10(16.7)	44(18.9)	13(19.4)	1(16.7)
	21~30명	74(33.0)	79(12.1)	9(15.0)	59(25.3)	9(13.4)	5(83.3)
	31~50명	95(42.4)	79(12.1)	32(53.3)	91(39.1)	35(52.2)	0(0.0)
	51~100명	7(3.1)	9(1.4)	8(13.3)	12(5.2)	6(9.0)	0(0.0)
	101~200명	1(0.4)	2(0.3)	0(0.0)	0(0.0)	0(0.0)	0(0.0)
	201명 이상	20(8.9)	71(10.8)	1(1.7)	27(11.6)	4(6.0)	0(0.0)
	전체	224(100.0)	655(100.0)	60(100.0)	233(100.0)	67(100.0)	6(100.0)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1~20명	253(18.2)	2,095(53.2)	31(8.1)	67(6.0)	93(10.3)	26(7.6)
	21~30명	325(23.4)	1,038(26.3)	104(27.3)	321(28.9)	229(25.4)	81(23.8)
	31~50명	764(55.0)	718(18.2)	193(50.7)	611(55.1)	443(49.2)	207(60.9)
	51~100명	40(2.9)	60(1.5)	48(12.6)	77(6.9)	128(14.2)	25(7.4)
	101~200명	4(0.3)	20(0.5)	3(0.8)	19(1.7)	5(0.6)	1(0.3)
	201명 이상	2(0.1)	9(0.2)	2(0.5)	14(1.3)	2(0.2)	0(0.0)
	전체	1,388(100.0)	3,940(100.0)	381(100.0)	1,109(100.0)	900(100.0)	340(100.0)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1~20명	141(12.8)	1,594(54.1)	18(6.3)	50(8.7)	212(24.3)	1(9.1)
	21~30명	201(18.3)	652(22.1)	30(10.4)	102(17.7)	177(20.3)	1(9.1)
	31~50명	665(60.5)	604(20.5)	209(72.6)	352(61.1)	396(45.4)	8(72.7)
	51~100명	77(7.0)	42(1.4)	31(10.8)	35(6.1)	76(8.7)	1(9.1)
	101~200명	4(0.4)	16(0.5)	0(0.0)	26(4.5)	6(0.7)	0(0.0)
	201명 이상	12(1.1)	36(1.2)	0(0.0)	11(1.9)	(0.7)	0(0.0)
	전체	1,100(100.0)	2,944(100.0)	288(100.0)	576(100.0)	873(100.0)	11(100.0)
2만명 이상	1~20명	157(18.1)	660(51.6)	10(40.0)	55(12.6)	332(36.4)	8(4.5)
	21~30명	563(64.9)	257(20.1)	8(32.0)	67(15.4)	203(22.3)	17(9.6)
	31~50명	147(16.9)	347(27.1)	5(20.0)	273(62.8)	252(27.7)	109(61.6)
	51~100명	1(0.1)	15(1.2)	2(8.0)	23(5.3)	116(12.7)	43(24.3)
	101~200명	0(0.0)	0(0.0)	0(0.0)	10(2.3)	8(0.9)	0(0.0)
	201명 이상	0(0.0)	0(0.0)	0(0.0)	7(1.6)	0(0.0)	0(0.0)
	전체	868(100.0)	1,279(100.0)	25(100.0)	435(100.0)	911(100.0)	177(100.0)

□ 기초문해 교과목의 이수 방식

대학 설립유형에 따라 기초문해 교과목의 이수 방식을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I 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국공립 대학 58.7%, 사립대학 76.8%). 의사소통 II와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교과목 은 사립대학에서는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62.0%, 62.1%), 국 공립대학에서는 선택적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47.2%, 53.5%). 계열기초 성격의 BSM 교과목도 국공립대학에서는 선택적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63.6%), 사립대학에서는 선택으로 이수하게 하는 경우가 가 장 많았다(68.6%). 사고와 정보 문해 교과목은 사립대학에서는 필수로 이수하게 하 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52.1%, 65.0%), 국공립대학에서는 선택으로 이수하게 하 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68.6%, 42.6%).

<표 III-61> 설립유형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이수 방식

구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계열기초
국공립	필수	487(58.7)	333(25.2)	28(20.0)	134(34.8)	127(10.1)	18(27.3)
	선택필수	172(20.7)	623(47.2)	16(11.4)	87(22.6)	670(53.5)	42(63.6)
	선택	170(20.5)	364(27.6)	96(68.6)	164(42.6)	455(36.3)	6(9.1)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829(100.0)	1,320(100.0)	140(100.0)	385(100.0)	1,252(100.0)	66(100.0)
사립	필수	2,149(76.8)	4,712(62.0)	326(52.1)	1,304(65.0)	938(62.1)	147(31.4)
	선택필수	213(7.6)	276(3.6)	46(7.3)	132(6.6)	58(3.8)	0(0.0)
	선택	419(15.0)	2,461(32.4)	240(38.3)	559(27.9)	514(34.0)	321(68.6)
	기타	12(0.4)	119(1.6)	10(1.6)	5(0.2)	0(0.0)	0(0.0)
	무응답	7(0.3)	33(0.4)	4(0.6)	7(0.3)	0(0.0)	0(0.0)
	전체	2,800(100.0)	7,601(100.0)	626(100.0)	2,007(100.0)	1,510(100.0)	468(100.0)

권역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이수 방식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 대학은 의사 소통 I (76.7%), 의사소통 II(48.9%), 사고(58.1%), 정보문해(66.7%)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교과목은 선택적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44.5%), 계열기초 성격의 BSM 교과목은 선택으로 이수하게 하는 경우가 65.1%로 가장 많았다.

대경강원권 지역의 대학에서는 의사소통 I (86.9%), 의사소통 II(77.1%), 정보문해

(58.4%)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과 계열기초 성격의 BSM 교과목은 모두 선택으로 운영하였다. 사고 교과목의 이수 방식은 필수와 선택이 각각 41.1%로 가장 많았다.

충청권 지역 대학의 경우, 의사소통 I(54.3%), 의사소통 II(65.7%), 정보문해(47.1%), 계열기초 성격의 BSM(95.8%) 교과목은 필수로 이수하게 하고 있었으며, 사고(61.0%)와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52.1%) 교과목은 선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제주권 지역 대학에서도 의사소통 I(79.5%) 교과목의 이수 방식은 필수가 51.3%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소통 I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영역의 모든 교과목은 선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울경 지역 대학은 기초문해 교과목 모두 필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III-62〉 권역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이수 방식

구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계열기초
수도권	필수	1,062(76.7)	1,349(48.9)	132(58.1)	562(66.7)	565(37.4)	124(26.1)
	선택필수	153(11.1)	563(20.4)	23(10.1)	87(10.3)	673(44.5)	42(8.8)
	선택	162(11.7)	817(29.6)	68(30.0)	187(22.2)	274(18.1)	310(65.1)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7(0.5)	32(1.2)	4(1.8)	7(0.8)	0(0.0)	0(0.0)
	전체	1,384(100.0)	2,761(100.0)	227(100.0)	843(100.0)	1,512(100.0)	476(100.0)
대경 강원권	필수	426(86.9)	912(77.1)	39(41.1)	250(58.4)	0(0.0)	0(0.0)
	선택필수	12(2.4)	54(4.6)	17(17.9)	26(6.1)	0(0.0)	0(0.0)
	선택	52(10.6)	216(18.3)	39(41.1)	152(35.5)	127(100.0)	11(1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0(0.0)	1(0.1)	0(0.0)	0(0.0)	0(0.0)	0(0.0)
	전체	490(100.0)	1,183(100.0)	95(100.0)	428(100.0)	127(100.0)	11(100.0)
충청권	필수	351(54.3)	1,464(65.7)	60(36.6)	165(47.1)	258(40.2)	23(95.8)
	선택필수	151(23.3)	240(10.8)	4(2.4)	56(16.0)	49(7.6)	0(0.0)
	선택	145(22.4)	526(23.6)	100(61.0)	129(36.9)	334(52.1)	1(4.2)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647(100.0)	2,230(100.0)	164(100.0)	350(100.0)	641(100.0)	24(100.0)

구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계열기초
호남 제주권	필수	153(51.3)	215(31.6)	65(44.8)	94(37.0)	25(11.6)	0(0.0)
	선택필수	25(8.4)	42(6.2)	0(0.0)	20(7.9)	2(0.9)	0(0.0)
	선택	120(40.3)	424(62.3)	80(55.2)	140(55.1)	188(87.4)	5(1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298(100.0)	681(100.0)	145(100.0)	254(100.0)	215(100.0)	5(100.0)
부산 울산 경남권	필수	644(79.5)	1,105(53.5)	58(43.0)	367(71.0)	217(81.3)	18(100.0)
	선택필수	44(5.4)	842(40.8)	18(13.3)	30(5.8)	4(1.5)	0(0.0)
	선택	110(13.6)	119(5.8)	49(36.3)	115(22.2)	46(17.2)	0(0.0)
	기타	12(1.5)	0(0.0)	10(7.4)	5(1.0)	0(0.0)	0(0.0)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810(100.0)	2,066(100.0)	135(100.0)	517(100.0)	267(100.0)	18(100.0)

대학 규모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이수 방식을 분석한 결과, 재학생 규모 2천 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은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정보문해 교과목의 이수 방식이 필수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사고는 선택인 경우가 83.3%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계열기초 성격의 BSM 교과목의 이수 방식은 완전 선택이었다.

재학생 규모 2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 규모의 대학에서는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교과목의 이수 방식이 필수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계열기초 성격의 BSM 교과목의 이수 방식은 선택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재학생 규모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규모의 대학에서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교과목의 이수 방식이 필수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계열기초 성격의 BSM 교과목의 이수 방식은 선택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재학생 규모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의 대학에서는 사고 교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문해 교과목은 필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규모 2만 명 이상의 대학에서는 의사소통 I 과 정보문해 교과목의 이수 방식이 필수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의사소통 II, 사고,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교과목은 선택적 필수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계열기초 성격의 BSM 교과목은 선택이 가장 많았다.

〈표 III-63〉 대학 규모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이수 방식

구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계열기초
2천명 미만	필수	36(73.5)	78(75.7)	2(16.7)	23(59.0)	0(0.0)	0(0.0)
	선택필수	0(0.0)	0(0.0)	0(0.0)	0(0.0)	0(0.0)	0(0.0)
	선택	13(26.5)	25(24.3)	10(83.3)	16(41.0)	11(100.0)	6(1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49(100.0)	103(100.0)	12(100.0)	39(100.0)	11(100.0)	6(100.0)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	필수	1,019(73.4)	2,391(60.7)	252(66.1)	671(60.5)	23(34.3)	0(0.0)
	선택필수	182(13.1)	372(9.4)	11(2.9)	118(10.6)	0(0.0)	0(0.0)
	선택	187(13.5)	1,177(29.9)	118(31.0)	320(28.9)	44(65.7)	6(1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1,388(100.0)	3,940(100.0)	381(100.0)	1,109(100.0)	67(100.0)	6(100.0)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필수	1,019(73.4)	2,391(60.7)	252(66.1)	671(60.5)	495(55.0)	158(46.5)
	선택필수	182(13.1)	372(9.4)	11(2.9)	118(10.6)	56(6.2)	0(0.0)
	선택	187(13.5)	1,177(29.9)	118(31.0)	320(28.9)	349(38.8)	182(53.5)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1,388(100.0)	3,940(100.0)	381(100.0)	1,109(100.0)	900(100.0)	340(100.0)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필수	759(69.0)	1,599(54.3)	71(24.7)	303(52.6)	534(61.2)	7(63.6)
	선택필수	44(4.0)	0(0.0)	18(6.3)	30(5.2)	4(0.5)	0(0.0)
	선택	285(25.9)	1,226(41.6)	189(65.6)	238(41.3)	335(38.4)	4(36.4)
	기타	12(1.1)	119(4.0)	10(3.5)	5(0.9)	0(0.0)	0(0.0)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1,100(100.0)	2,944(100.0)	288(100.0)	576(100.0)	873(100.0)	11(100.0)
2만명 이상	필수	631(72.7)	484(37.8)	2(8.0)	297(68.3)	13(1.4)	0(0.0)
	선택필수	147(16.9)	527(41.2)	16(64.0)	56(12.9)	668(73.3)	42(23.7)
	선택	83(9.6)	236(18.5)	3(12.0)	75(17.2)	230(25.2)	135(76.3)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7(0.8)	32(2.5)	4(16.0)	7(1.6)	0(0.0)	0(0.0)
	전체	868(100.0)	1,279(100.0)	25(100.0)	435(100.0)	911(100.0)	177(100)

□ 기초문해 교과목의 담당 교원

설립유형에 따라 기초문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대학에서는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특히 국공립대학에서는 의사소통 I 과, 의사소통 II, 사고 교과목의 경우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좌가 월등히

많았다. 반면 정보문해나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계열기초 성격의 BSM 교과목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좌와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좌의 비율이 엇비슷하였다. 반면 사립대학은 기초문해 전 영역에서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좌가 많았으나,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좌와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좌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표 III-64〉 설립유형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담당 교원

구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계열기초
국공립	전임	125(15.1)	166(12.6)	16(11.4)	182(47.3)	643(51.4)	37(56.1)
	비전임	704(84.9)	1,074(81.4)	124(88.6)	203(52.7)	590(47.1)	29(43.9)
	기타	0(0.0)	80(6.1)	0(0.0)	0(0.0)	19(1.5)	0(0.0)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829(100.0)	1,320(100.0)	140(100.0)	385(100.0)	1,252(100.0)	66(100.0)
사립	전임	1,482(52.9)	5,752(75.7)	354(56.5)	1,116(55.6)	868(57.5)	315(67.3)
	비전임	1,303(46.5)	1,757(23.1)	256(40.9)	863(43.0)	631(41.8)	153(32.7)
	기타	2(0.1)	27(0.4)	4(0.6)	2(0.1)	0(0.0)	0(0.0)
	무응답	13(0.5)	65(0.9)	12(1.9)	26(1.3)	11(0.7)	0(0.0)
	전체	2,800(100.0)	7,601(100.0)	626(100.0)	2,007(100.0)	1,510(100.0)	468(100.0)

기초문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신분을 권역별로 분석했을 때, 수도권 지역 대학의 의사소통 I 과 정보문해 교과목은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각각 66.8%와 59.8%로 가장 많았고, 의사소통 II(47.6%), 사고(57.3%),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54.9%), 계열기초 성격의 BSM 교과목(66.6%)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의사소통 I 은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좌의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대경강원권 지역과 부울경 지역의 대학에서는 사고 교과목에 한해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각각 58.9%와 50.4%로 가장 높았을 뿐, 사고 교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문해 영역의 교과목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모두 높았다.

충청권 대학에서는 의사소통 II 교과목의 경우에는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비율(75.9%) 높았지만, 의사소통 II 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목은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제주권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I 교과목은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비율(63.8%)이 높았지만, 의사소통 I 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문해 교과목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5〉 권역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담당 교원

구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계열기초
수도권	전임	453(32.7)	1,313(47.6)	130(57.3)	313(37.1)	830(54.9)	317(66.6)
	비전임	918(66.3)	1,378(49.9)	85(37.4)	504(59.8)	671(44.4)	159(33.4)
	기타	0(0.0)	6(0.2)	0(0.0)	0(0.0)	0(0.0)	0(0.0)
	무응답	13(0.9)	64(2.3)	12(5.3)	26(3.1)	11(0.7)	0(0.0)
	전체	1,384(100.0)	2,761(100.0)	227(100.0)	843(100.0)	1,512(100.0)	476(100.0)
대경 강원권	전임	251(51.2)	821(69.4)	39(41.1)	289(67.5)	104(81.9)	11(100.0)
	비전임	239(48.8)	360(30.4)	56(58.9)	139(32.5)	23(18.1)	0(0.0)
	기타	0(0.0)	1(0.1)	0(0.0)	0(0.0)	0(0.0)	0(0.0)
	무응답	0(0.0)	1(0.1)	0(0.0)	0(0.0)	0(0.0)	0(0.0)
	전체	490(100.0)	1,183(100.0)	95(100.0)	428(100.0)	127(100.0)	11(100.0)
충청권	전임	267(41.3)	1,693(75.9)	63(38.4)	152(43.4)	268(41.8)	6(25.0)
	비전임	380(58.7)	537(24.1)	101(61.6)	198(56.6)	373(58.2)	18(75.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647(100.0)	2,230(100.0)	164(100.0)	350(100.0)	641(100.0)	24(100.0)
호남 제주권	전임	107(35.9)	386(56.7)	73(50.3)	191(75.2)	110(51.2)	3(60.0)
	비전임	190(63.8)	291(42.7)	70(48.3)	62(24.4)	105(48.8)	2(40.0)
	기타	1(0.3)	4(0.6)	2(1.4)	1(0.4)	0(0.0)	0(0.0)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298(100.0)	681(100.0)	145(100.0)	254(100.0)	215(100.0)	5(100.0)
부산 울산 경남권	전임	529(65.3)	1,705(82.5)	65(48.1)	353(68.3)	199(74.5)	15(83.3)
	비전임	280(34.6)	265(12.8)	68(50.4)	163(31.5)	49(18.4)	3(16.7)
	기타	1(0.1)	96(4.6)	2(1.5)	1(0.2)	19(7.1)	0(0.0)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810(100.0)	2,066(100.0)	135(100.0)	517(100.0)	267(100.0)	18(100.0)

기초문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신분을 대학 규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재학생 규모 2천 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에서는 의사소통 I 과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교과목의 경우에는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았고, 의사소통 II 와 사고, 정보문해는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재학생 규모 2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의 대학에서는 의사소통 I (62.5%), 정보문해(54.5%), 계열기초 성격의 BSM 교과목(100.0%)은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의사소통 II(61.1%), 사고(56.7%),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77.6%) 교과목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재학생 규모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의 대학은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

목에서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재학생 규모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의 대학에서는 사고 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에서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재학생 규모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은 전반적으로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좌가 많았다. 의사소통 I (74.9%), 의사소통 II (68.3%), 사고(72.0%), 정보문해(79.3%) 등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거의 모든 교과목에서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았고,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52.8%)과 계열기초 성격의 BSM 교과목(67.8%)에 한해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66〉 대학규모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담당 교원

구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계열기초
2천명 미만	전임	21(42.9)	74(71.8)	7(58.3)	22(56.4)	3(27.3)	0(0.0)
	비전임	28(57.1)	25(24.3)	5(41.7)	17(43.6)	8(72.7)	0(0.0)
	기타	0(0.0)	4(3.9)	0(0.0)	0(0.0)	0(0.0)	0(0.0)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49(100.0)	103(100.0)	12(100.0)	39(100.0)	11(100.0)	0(0.0)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	전임	82(36.6)	400(61.1)	34(56.7)	105(45.1)	52(77.6)	0(0.0)
	비전임	140(62.5)	251(38.3)	25(41.7)	127(54.5)	15(22.4)	6(100.0)
	기타	2(0.9)	3(0.5)	1(1.7)	1(0.4)	0(0.0)	0(0.0)
	무응답	0(0.0)	1(0.2)	0(0.0)	0(0.0)	0(0.0)	0(0.0)
	전체	224(100.0)	655(100.0)	60(100.0)	233(100.0)	67(100.0)	6(100.0)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전임	698(50.3)	2,738(69.5)	238(62.5)	700(63.1)	462(51.3)	220(64.7)
	비전임	684(49.3)	1,078(27.4)	134(35.2)	393(35.4)	409(45.4)	120(35.3)
	기타	0(0.0)	95(2.4)	1(0.3)	1(0.1)	19(2.1)	0(0.0)
	무응답	6(0.4)	29(0.7)	8(2.1)	15(1.4)	10(1.1)	0(0.0)
	전체	1,388(100.0)	3,940(100.0)	381(100.0)	1,109(100.0)	900(100.0)	340(100.0)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전임	595(54.1)	2,335(79.3)	88(30.6)	388(67.4)	513(58.8)	6(54.5)
	비전임	505(45.9)	604(20.5)	198(68.8)	184(31.9)	359(41.1)	5(45.5)
	기타	0(0.0)	2(0.1)	2(0.7)	0(0.0)	0(0.0)	0(0.0)
	무응답	0(0.0)	3(0.1)	0(0.0)	4(0.7)	1(0.1)	0(0.0)
	전체	1,100(100.0)	2,944(100.0)	288(100.0)	576(100.0)	873(100.0)	11(100.0)
2만명 이상	전임	211(24.3)	371(29.0)	3(12.0)	83(19.1)	481(52.8)	120(67.8)
	비전임	650(74.9)	873(68.3)	18(72.0)	345(79.3)	430(47.2)	57(32.2)
	기타	0(0.0)	3(0.2)	0(0.0)	0(0.0)	0(0.0)	0(0.0)
	무응답	7(0.8)	32(2.5)	4(16.0)	7(1.6)	0(0.0)	0(0.0)
	전체	868(100.0)	1,279(100.0)	25(100.0)	435(100.0)	911(100.0)	177(100.0)

□ 기초문해 교과목의 평가 방식

설립유형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평가 방식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학의 경우 사립대학에 비해 의사소통 I 과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교과목의 절대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에 비해 정보문해 교과목의 절대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67〉 설립유형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평가 방식

구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계열기초
국공립	상대평가	497(60.0)	924(70.0)	138(98.6)	297(77.1)	675(53.9)	58(87.9)
	절대평가	325(39.2)	395(29.9)	2(1.4)	72(18.7)	556(44.4)	8(12.1)
	P/F	4(0.5)	0(0.0)	0(0.0)	16(4.2)	21(1.7)	0(0.0)
	기타	3(0.4)	1(0.1)	0(0.0)	0(0.0)	0(0.0)	0(0.0)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829(100.0)	1,320(100.0)	140(100.0)	385(100.0)	1,252(100.0)	66(100.0)
사립	상대평가	1,853(66.2)	4,227(55.6)	425(67.9)	1,233(61.4)	831(55.0)	360(76.9)
	절대평가	701(25.0)	1,912(25.2)	35(5.6)	474(23.6)	550(36.4)	107(22.9)
	P/F	47(1.7)	423(5.6)	20(3.2)	12(0.6)	4(0.3)	0(0.0)
	기타	0(0.0)	54(0.7)	2(0.3)	2(0.1)	22(1.5)	0(0.0)
	무응답	199(7.1)	985(13.0)	144(23.0)	286(14.3)	103(6.8)	1(0.2)
	전체	2,800(100.0)	7,601(100.0)	626(100.0)	2,007(100.0)	1,510(100.0)	468(100.0)

권역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평가 방식을 분석해 보면, 수도권 지역의 대학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의 대학이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수도권 지역의 대학에서도 의사소통 II(55.2%), 사고(77.1%), 정보문해(63.1%), 계열기초 성격의 BSM(76.1%) 교과목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은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비율(53.8%)이 가장 높았고, 의사소통 I 교과목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비율이 각각 48.9%로 같았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경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울경 지역의 대학은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목에서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8〉 권역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평가 방식

구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계열기초
수도권	상대평가	677(48.9)	1,525(55.2)	175(77.1)	532(63.1)	688(45.5)	362(76.1)
	절대평가	677(48.9)	1,173(42.5)	23(10.1)	282(33.5)	814(53.8)	114(23.9)
	P/F	17(1.2)	2(0.1)	18(7.9)	9(1.1)	0(0.0)	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13(0.9)	61(2.2)	11(4.8)	20(2.4)	10(0.7)	0(0.0)
	전체	1,384(100.0)	2,761(100.0)	227(100.0)	843(100.0)	1,512(100.0)	476(100.0)
대경 강원권	상대평가	416(84.9)	881(74.5)	90(94.7)	338(79.0)	75(59.1)	11(100.0)
	절대평가	74(15.1)	238(20.1)	3(3.2)	71(16.6)	12(9.4)	0(0.0)
	P/F	0(0.0)	9(0.8)	0(0.0)	17(4)	18(14.2)	0(0.0)
	기타	0(0.0)	54(4.6)	2(2.1)	2(0.5)	22(17.3)	0(0.0)
	무응답	0(0.0)	1(0.1)	0(0.0)	0(0.0)	0(0.0)	0(0.0)
	전체	490(100.0)	1,183(100.0)	95(100.0)	428(100.0)	127(100.0)	11(100.0)
충청권	상대평가	520(80.4)	1,499(67.2)	157(95.7)	267(76.3)	470(73.3)	23(95.8)
	절대평가	125(19.3)	597(26.8)	7(4.3)	82(23.4)	166(25.9)	1(4.2)
	P/F	2(0.3)	134(6.0)	0(0.0)	1(0.3)	5(0.8)	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647(100.0)	2,230(100.0)	164(100.0)	350(100.0)	641(100.0)	24(100.0)
호남 제주권	상대평가	200(67.1)	311(45.7)	74(51.0)	150(59.1)	153(71.2)	4(80.0)
	절대평가	1(0.3)	64(9.4)	1(0.7)	1(0.4)	0(0.0)	0(0.0)
	P/F	4(1.3)	0(0.0)	0(0.0)	0(0.0)	2(0.9)	0(0.0)
	기타	3(1.0)	1(0.1)	0(0.0)	0(0.0)	0(0.0)	0(0.0)
	무응답	90(30.2)	305(44.8)	70(48.3)	103(40.6)	60(27.9)	1(20.0)
	전체	298(100.0)	681(100.0)	145(100.0)	254(100.0)	215(100.0)	5(100.0)
부산 울산 경남권	상대평가	537(66.3)	935(45.3)	67(49.6)	243(47.0)	120(44.9)	18(100.0)
	절대평가	149(18.4)	235(11.4)	3(2.2)	110(21.3)	114(42.7)	0(0.0)
	P/F	28(3.5)	278(13.5)	2(1.5)	1(0.2)	0(0.0)	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96(11.9)	618(29.9)	63(46.7)	163(31.5)	33(12.4)	0(0.0)
	전체	810(100.0)	2,066(100.0)	135(100.0)	517(100.0)	267(100.0)	18(100.0)

대학 규모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평가 방식을 분석한 결과, 중소규모 대학은 전반적으로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대규모 대학으로 갈수록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학생 규모 2천 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과 2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의 중소규모 대학, 그리고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의 중규모 대학에서는 대부분 기초문해 교과목의 평가 방식으로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물론 재학생 규모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규모 대학에서도 전반적으로 상대평

가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계열기초 성격의 BSM 교과목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많이 적용하고 있었다(63.6%).

그리고 재학생 규모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에서는 사고 교과목을 제외하면 기초문해 모든 교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의사소통 I 과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은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비율이 더욱 높았다. 대규모 대학일수록 평가 방식의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겠다.

〈표 III-69〉 대학 규모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평가 방식

구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계열기초
2천명 미만	상대평가	44(89.8)	78(75.7)	9(75.0)	33(84.6)	10(90.9)	0(0.0)
	절대평가	5(10.2)	25(24.3)	3(25.0)	6(15.4)	1(9.1)	0(0.0)
	P/F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49(100.0)	103(100.0)	12(100.0)	39(100.0)	11(100.0)	0(0.0)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	상대평가	195(87.1)	485(74.0)	60(100.0)	221(94.8)	67(100.0)	6(100.0)
	절대평가	28(12.5)	39(6.0)	0(0.0)	12(5.2)	0(0.0)	0(0.0)
	P/F	1(0.4)	130(19.8)	0(0.0)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0(0.0)	1(0.2)	0(0.0)	0(0.0)	0(0.0)	0(0.0)
	전체	224(100.0)	655(100.0)	60(100.0)	233(100.0)	67(100.0)	6(100.0)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상대평가	1,089(78.5)	2,139(54.3)	283(74.3)	724(65.3)	628(69.8)	331(97.4)
	절대평가	192(13.8)	1,108(28.1)	13(3.4)	189(17.0)	189(21.0)	9(2.6)
	P/F	7(0.5)	13(0.3)	18(4.7)	27(2.4)	20(2.2)	0(0.0)
	기타	3(0.2)	55(1.4)	2(0.5)	2(0.2)	22(2.4)	0(0.0)
	무응답	97(7.0)	625(15.9)	65(17.1)	167(15.1)	41(4.6)	0(0.0)
	전체	1,388(100.0)	3,940(100.0)	381(100.0)	1,109(100.0)	900(100.0)	340(100.0)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상대평가	777(70.6)	1,907(64.8)	192(66.7)	372(64.6)	530(60.7)	3(27.3)
	절대평가	202(18.4)	430(14.6)	19(6.6)	91(15.8)	276(31.6)	7(63.6)
	P/F	26(2.4)	280(9.5)	2(0.7)	1(0.2)	5(0.6)	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95(8.6)	327(11.1)	75(26.0)	112(19.4)	62(7.1)	1(9.1)
	전체	1,100(100.0)	2,944(100.0)	288(100.0)	576(100.0)	873(100.0)	11(100.0)
2만명 이상	상대평가	245(28.2)	542(42.4)	19(76.0)	180(41.4)	271(29.7)	78(44.1)
	절대평가	599(69.0)	705(55.1)	2(8.0)	248(57.0)	640(70.3)	99(55.9)
	P/F	17(2.0)	0(0.0)	0(0.0)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7(0.8)	32(2.5)	4(16.0)	7(1.6)	0(0.0)	0(0.0)
	전체	868(100.0)	1,279(100.0)	25(100.0)	435(100.0)	911(100.0)	177(100.0)

□ 기초문해 교과목의 수업유형

기초문해 교과목의 수업유형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설립유형과 관계없이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 모두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으며, 권역별로도 특정 지역과 관계없이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국공립대학의 경우, 계열기초 성격의 BSM 교과목만은 예외적으로 비대면 강좌 비율(63.6%)이 높았으며,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에서, 권역별로는 충청권과 부울경 지역의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이나 블렌디드 방식의 수업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 규모별로 분석했을 때도 규모와 관계없이 대면 수업이 일반적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다만 재학생 규모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의 중규모 대학일수록 비대면 수업과 블렌디드 수업을 적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70> 설립유형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수업유형

구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계열기초
국공립	대면	351(42.3)	563(42.7)	115(82.1)	154(40.0)	277(22.1)	24(36.4)
	비대면	8(1.0)	42(3.2)	3(2.1)	49(12.7)	20(1.6)	42(63.6)
	블렌디드	0(0.0)	1(0.1)	0(0.0)	48(12.5)	177(14.1)	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470(56.7)	714(54.1)	22(15.7)	134(34.8)	778(62.1)	0(0.0)
	전체	829(100.0)	1,320(100.0)	140(100.0)	385(100.0)	1,252(100.0)	66(100.0)
사립	대면	2,198(78.5)	5,818(76.5)	396(63.3)	1,317(65.6)	1,189(78.7)	370(79.1)
	비대면	138(4.9)	350(4.6)	23(3.7)	263(13.1)	105(7.0)	59(12.6)
	블렌디드	295(10.5)	380(5.0)	118(18.8)	271(13.5)	116(7.7)	38(8.1)
	기타	9(0.3)	2(0.0)	2(0.3)	0(0.0)	0(0.0)	0(0.0)
	무응답	160(5.7)	1,051(13.8)	87(13.9)	156(7.8)	100(6.6)	1(0.2)
	전체	2,800(100.0)	7,601(100.0)	626(100.0)	2,007(100.0)	1,510(100.0)	468(100.0)

<표 III-71> 권역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수업유형

구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계열기초
수도권	대면	899(65.0)	1,773(64.2)	145(63.9)	561(66.5)	679(44.9)	355(74.6)
	비대면	89(6.4)	303(11.0)	12(5.3)	170(20.2)	97(6.4)	58(12.2)
	블렌디드	61(4.4)	109(3.9)	50(22.0)	35(4.2)	68(4.5)	21(4.4)
	기타	0(0.0)	2(0.1)	0(0.0)	0(0.0)	0(0.0)	0(0.0)
	무응답	335(24.2)	574(20.8)	20(8.8)	77(9.1)	668(44.2)	42(8.8)
	전체	1,384(100.0)	2,761(100.0)	227(100.0)	843(100.0)	1,512(100.0)	476(100.0)

구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계열기초
대경 강원권	대면	463(94.5)	1,150(97.2)	91(95.8)	310(72.4)	109(85.8)	10(90.9)
	비대면	24(4.9)	28(2.4)	2(2.1)	78(18.2)	14(11.0)	0(0.0)
	블렌디드	3(0.6)	4(0.3)	2(2.1)	40(9.3)	4(3.1)	1(9.1)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0(0.0)	1(0.1)	0(0.0)	0(0.0)	0(0.0)	0(0.0)
전체		490(100.0)	1,183(100.0)	95(100.0)	428(100.0)	127(100.0)	11(100.0)
충청권	대면	497(76.8)	2,075(93.0)	153(93.3)	267(76.3)	441(68.8)	7(29.2)
	비대면	15(2.3)	17(0.8)	8(4.9)	24(6.9)	12(1.9)	1(4.2)
	블렌디드	135(20.9)	136(6.1)	2(1.2)	57(16.3)	181(28.2)	16(66.7)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0(0.0)	2(0.1)	1(0.6)	2(0.6)	7(1.1)	0(0.0)
전체		647(100.0)	2,230(100.0)	164(100.0)	350(100.0)	641(100.0)	24(100.0)
호남 제주권	대면	116(38.9)	262(38.5)	70(48.3)	61(24.0)	73(34.0)	4(80.0)
	비대면	1(0.3)	2(0.3)	3(2.1)	9(3.5)	1(0.5)	0(0.0)
	블렌디드	0(0.0)	0(0.0)	0(0.0)	48(18.9)	37(17.2)	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181(60.7)	417(61.2)	72(49.7)	136(53.5)	104(48.4)	1(20.0)
전체		298(100.0)	681(100.0)	145(100.0)	254(100.0)	215(100.0)	5(100.0)
부산 울산 경남권	대면	574(70.9)	1,121(54.3)	52(38.5)	272(52.6)	164(61.4)	18(100.0)
	비대면	17(2.1)	42(2.0)	1(0.7)	31(6.0)	1(0.4)	0(0.0)
	블렌디드	96(11.9)	132(6.4)	64(47.4)	139(26.9)	3(1.1)	0(0.0)
	기타	9(1.1)	0(0.0)	2(1.5)	0(0.0)	0(0.0)	0(0.0)
	무응답	114(14.1)	771(37.3)	16(11.9)	75(14.5)	99(37.1)	0(0.0)
전체		810(100.0)	2,066(100.0)	135(100.0)	517(100.0)	267(100.0)	18(100.0)

<표 III-72> 대학 규모별 기초문해 교과목의 수업유형

구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계열기초
2천명 미만	대면	35(71.4)	66(64.1)	9(75.0)	24(61.5)	9(81.8)	0(0.0)
	비대면	12(24.5)	34(33.0)	3(25.0)	15(38.5)	2(18.2)	0(0.0)
	블렌디드	2(4.1)	3(2.9)	0(0.0)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49(100.0)	103(100.0)	12(100.0)	39(100.0)	11(100.0)	0(0.0)
2천명 이상	대면	199(88.8)	563(86.0)	57(95.0)	184(79.0)	64(95.5)	5(83.3)
	비대면	25(11.2)	76(11.6)	2(3.3)	20(8.6)	3(4.5)	1(16.7)
	블렌디드	0(0.0)	1(0.2)	1(1.7)	16(6.9)	0(0.0)	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0(0.0)	15(2.3)	0(0.0)	13(5.6)	0(0.0)	0(0.0)
전체		224(100.0)	655(100.0)	60(100.0)	233(100.0)	67(100.0)	6(100.0)
5천명 미만	대면	939(67.7)	2,851(72.4)	249(65.4)	587(52.9)	609(67.7)	317(93.2)
	비대면	56(4.0)	149(3.8)	14(3.7)	157(14.2)	31(3.4)	7(2.1)
	블렌디드	246(17.7)	182(4.6)	105(27.6)	278(25.1)	126(14.0)	16(4.7)
	기타	0(0.0)	2(0.1)	0(0.0)	0(0.0)	0(0.0)	0(0.0)
	무응답	147(10.6)	756(19.2)	13(3.4)	87(7.8)	134(14.9)	0(0.0)
전체		1,388(100.0)	3,940(100.0)	381(100.0)	1,109(100.0)	900(100.0)	340(100.0)

구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계열기초
1만명 이상	대면	917(83.4)	2,291(77.8)	194(67.4)	401(69.6)	634(72.6)	10(90.9)
	비대면	14(1.3)	88(3.0)	5(1.7)	31(5.4)	27(3.1)	0(0.0)
	블렌디드	12(1.1)	133(4.5)	12(4.2)	20(3.5)	143(16.4)	0(0.0)
2만명 미만	기타	9(0.8)	0(0.0)	2(0.7)	0(0.0)	0(0.0)	0(0.0)
	무응답	148(13.5)	432(14.7)	75(26.0)	124(21.5)	69(7.9)	1(9.1)
	전체	1,100(100.0)	2,944(100.0)	288(100.0)	576(100.0)	873(100.0)	11(100.0)
2만명 이상	대면	459(52.9)	610(47.7)	2(8.0)	275(63.2)	150(16.5)	62(35.0)
	비대면	39(4.5)	45(3.5)	2(8.0)	89(20.5)	62(6.8)	52(29.4)
	블렌디드	35(4.0)	62(4.8)	0(0.0)	5(1.1)	24(2.6)	21(11.9)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335(38.6)	562(43.9)	21(84.0)	66(15.2)	675(74.1)	42(23.7)
	전체	868(100.0)	1,279(100.0)	25(100.0)	435(100.0)	911(100.0)	177(100.0)

라. 세계시민교육

1) 세계시민교육의 패러다임과 개념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2012년 9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유의미하고 변혁적인 양질의 교육을 모두에게 보장하기 위한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을 수립하면서 세 가지 우선순위 중 하나로 세계시민의식 함양이 제시되면서(UN, 2012), 국제사회의 중요한 교육 담론으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5월 인천에서 열렸던 ‘2015 세계교육 포럼’에서 향후 2030년까지 전 세계 교육발전 목표를 설정하면서 핵심의제로 다루어졌다. 이때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2015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유네스코 교육2030(UNESCO Education 2030)’에 반영됨으로써 마침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해야 할 범세계적 교육정책 목표가 되기에 이르렀다. 전 세계가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다. 이 중 세계시민성이 교육과 관련된 네 번째 목표3에 명시되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 중의 하나로 포함되게 되었다(UN, 2015).

유네스코의 2014년 보고서,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twenty-first century>에 따르면, 세계시민교육은 독립된 교육활동 영역이라기보다 시민교육의 한 가지 선택된 ‘프레임’으로 이해하고 있다(한승희 외, 2019). 지금까지 단일 국가 혹은 단일 민족 중심의 교육과정이 독점해

은 것에서 벗어나 시민교육의 경계를 글로벌 관점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와 쟁점들을 시민교육 안에 담아낸다는 것이다. 즉, 이를 유네스코는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식, 역량, 가치 및 태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을 구안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관점적 패러다임이다. (UNESCO, 2014: 9)

유네스코는 지난 50여 년 동안 국제이해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을 통하여 국제이해, 협력, 인구, 식량, 자원, 환경, 에너지 등 전 지구적 문제들의 상호의존적 측면과 세계공동체 의식을 강조해 왔다(최종덕, 2014). 국제이해교육은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 세계교육(global education), 세계시민교육(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등 다양한 용어로 각국 또는 각 기관의 상황 및 이해에 맞게 실시되었다. 또한 유네스코가 추진해 온 글로벌 시민교육의 목표는 전통적인 시민교육에 비판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시민교육(transformative citizenship education)의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세계시민교육은 급변하는 지구촌 상황과 이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배경으로 대두되었다. 세계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 지구촌의 상호의존성은 매우 중요한 구조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지구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매우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일 국가에 기반한 근대적 시민성 개념에서 벗어난 인식과 행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지구촌 사회가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를 발견하고 규정하며 함께 해결하여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이 곧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의 패러다임이자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세계는 전지구화의 범주 안에서 서로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러한 맥락 안에서 글로벌 쟁점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실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지구의 공통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 패러다임이 세계시민교육의 본질이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 쟁점을 탑재한 시민교육” 이어야 한다(한승희 외, 2019). 한승희 외(2019)에서는 그러한 시민교육 안에서 ① 복수의 정체성들이 다차원적으로 병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② 글로벌 관점에서 기존의 보편적 가치들, 예컨대 정의, 평등, 존엄, 존중 등에 대한 새로운 맥락과 해석을 부각시키며, ③ 자국의 이해를 넘어 비판적

관점으로 현존하는 국제질서를 바라보고, ④ 이러한 현실의 장벽을 냉철히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목표를 향해 기여할 수 있는 변혁적인 역량을 교육 안에 탑재하는 방식이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성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시민(global citizen)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 또는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종, 성별, 국적, 종교, 계급의 차이에 상관없이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 및 행동하는 ‘세계시민(global citizen)’을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한다는 국내·외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한경구의, 2015). 이성희 외(2015)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세계시민교육은 세 가지의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세계시민교육은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적 단위를 넘어선 전 지구적인 도전 과제와 이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해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 세계시민교육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적 정황과 지구촌 구성원간의 상호의존도가 증대되고 있는 21세기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출현한 교육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둘째, 전반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계시민 혹은 세계시민성은 보편적 인류애로서 세계시민으로서의 법적 권리와 지위가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의 연대감과 집단적 정체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책임감과 소소속감과 더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학계 및 교육현장에서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으로, 이는 근본적으로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의 가상적(imaginary) 혹은 염원적(aspirational) 특성에 연유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성희 외(2019)의 연구에서는 Oxley & Morris(2013)에서 제시한 세계시민성에 대한 8가지 유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8가지 유형의 세계시민성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세계주의적 유형(Cosmopolitan types)과 옹호론적 유형(Advocacy types)으로 양분된다(Oxley & Morris, 2013). 세계주의적 유형은 정치적, 도덕적, 경제적, 문화적 세계시민성으로 분류되고 이는 세계시민성의 주류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옹호론적 유형은 사회적, 비판적, 환경적, 정신적 세계시민성으로 분류되고, 이 유형들은 세계시민성에 대한 대안적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계시민성에 대한 8가지 유형은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고정불변하지 않다는 점을 밝혀두고 있다. Oxley & Morris(2013)에서 제시된 세계시민성의 두 유형에 따른 세부 유형의 핵심 개념 및 주안점은 아래와 같다.

<표 III-73> 세계 시민성의 유형과 핵심개념 및 주안점¹⁷⁾

세계주의적 유형(Cosmopolitan types)		옹호론적 유형(Advocacy types)	
정치적 세계시민성	개인과 국가·기타 정치 조직 사이의 관계에 중점을 두며, 특히 세계주의적 민주주의(cosmopolitan democracy)의 형태에 관심	사회적 세계시민성	개인과 집단의 상호연관성에 초점을 두고 흔히 지구시민사회로 불리는 '일반인들(people)' 혹은 인민의 목소리를 옹호
도덕적 세계시민성	개인과 집단 상호 간의 윤리적 입장에 초점을 맞추며, 인권과 관련된 개념이 핵심	비판적 세계시민성	불평등과 억압에서 비롯된 도전과제들에 초점을 맞춤. 특히 탈식민지적 의제를 통해서 자원을 빼앗기거나 식민 통치를 받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옹호하기 위해 사회적 규범에 대해 비판
경제적 세계시민성	종종 국제 개발로 나타나는 권력, 자본의 형태, 노동, 자원과 인간의 조건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	환경적 세계시민성	자연환경과 관련된 인간의 행동 변화를 옹호하는 데 초점,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로 명명
문화적 세계시민성	예술, 미디어, 언어, 과학, 기술의 세계화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사회구성원을 결속시키고 구분하는 상징들에 초점	정신적 세계시민성	인간관계에서 비과학적이고 측정이 불가능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배려, 사랑, 정신적 그리고 감정적 연결과 관련된 공리(公理)에 대한 헌신을 옹호

이와 같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점은 매우 다양하다. 한편 서로 대립되거나 상충되는 관점과 개념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또한 세계시민성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거나 진화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듯이 세계시민성 개념의 다양성과 가변성의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과 가변성의 특징 때문에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교육 현장의 혼선을 염두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이 국제이해교육, 평화·인권교육, 다문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글로벌교육 등의 용어와 혼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17) 본 표는 Oxley & Morris(2013: 306-319)의 연구를 이성희 외(2019: 24)에서 번역하여 제시한 표(세계시민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내용 중 핵심개념과 주안점을 발췌하였다.

2) 세계시민교육의 내용

세계시민교육은 세계라는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다. 세계시민교육에서는 한 국가라는 경계를 뛰어넘어서 지구촌과 그 안에 살아가는 각국 모든 사람, 세계인들의 삶과 그 환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공감적 태도,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실천 등을 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를 배우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지구라는 한 공간에서 상호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세계 시민들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상호 존중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유네스코학고네트워크)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개념틀을 제시하였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각국 현지의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교육의 보편적인 핵심 주제와 주요 학습 결과, 학습자질을 담은 개념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UNESCO, 2015a).

〈표 III-74〉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개념틀¹⁸⁾

학습범위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실천)적 영역
주요 학습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들은 주요지역, 국가 및 글로벌 이슈들 그리고 다양한 국가와 집단 간의 상호연계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 • 학습자들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익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들은 인권에 기반한 가치와 책무감을 공유함으로써 인류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경험 • 공감능력을 기르고, 연대감을 고취하며,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들은 보다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이 되도록 지역, 국가 및 지구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동기와 의지를 함양
학습자 주요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알고 비판적 문해력을 보유 <p>1. 지역, 국가 및 세계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양성 존중 <p>4. 정체성, 관계와 소속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 <p>7. 적절한 기술, 신념, 가치,</p>

18) 본 표는 이성희 외(1029)의 연구 p.29의 표에서 인용하였다.

	이슈, 거버넌스 시스템과 구조에 대해 앎 2. 세계와 지역 사안들의 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을 이해 3. 비판적 질문과 분석을 위한 기술을 개발	을 기르고 관리 5. 인권에 기반한 가치와 책임감을 공유 6.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키움	신념과 태도를 구현 8.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책임감을 보임 9. 공공선을 위한 동기와 의지를 개발
주제	1. 지역, 국가와 세계의 체계와 구조 2. 지역, 국가와 세계수준의 공동체의 상호작용과 연결에 미치는 이슈들 3. 근원적인 권력의 인수와 역할	4. 다양한 수준의 정체성 5. 다른 공동체와 이들의 상호 연결성 6.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	7. 개인적, 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 8.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9.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을 취하기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시민성을 교육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공동체와 보편적 인류에 대한 소속감을 일컬으며, 지역·국가·세계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위의 세계시민교육의 개념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의 핵심개념들을 중심으로 정책이나 교육과정, 교수·학습체계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세 차원의 핵심 개념은 세계시민교육의 목적, 학습 목표 및 역량을 정의하는 데 기초가 되고, 학습 평가에 있어 주요요인이 될 수 있다(UNESCO, 2015a). 세 가지 핵심개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III-75> 세계시민교육의 세 가지 영역에서의 핵심 개념

인지적 영역	지역사회·국가·지역·세계의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 및 사람들 간의 상호연계성·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 이해, 비판적 사고를 습득한다.
사회·정서적 영역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대 및 공감,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여 인류애를 함양한다
행동적 영역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국가·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줌으로써 변혁적인

교육을 달성하고자 한다. 세계시민교육은 ‘인권교육, 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이해교육 등 다른 분야에 이미 적용된 다양한 개념과 방법론을 활용한 다면적 접근법’을 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관 교육 분야의 공통적인 목적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모든 교육단계와 연령대를 포괄하는 평생교육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세계시민교육은 ‘형식적·비형식적 교육의 통합 접근,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을 통한 학습, 관습적·비관습적 참여 방법’을 필요로 한다 (UNESCO, 2014).

또한 유네스코(2015a)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세계·국가·지역의 체계 및 과정에서 발생하는 글로벌10 이슈와 상호연계,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한다.
2. 차이와 다양한 정체성(문화, 언어, 종교, 젠더, 인류보편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갈수록 다양해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발달시킨다.
3. 시민 문해력(civic literacy)에서 중요한 역량(비판적 탐구, 정보 기술, 미디어 문해력, 비판적 사고, 의사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평화구축능력, 개인적·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고 실제 삶에 적용한다.
4. 가치관과 신념을 탐구하고 인정하며, 그것이 사회정의와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 정치적·사회적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한다.
5.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 공감하고 보살피는 태도를 함양한다.
6. 젠더와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 종교, 연령 등에 기반한 차별 및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고, 공정성과 사회정의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한다.
7. 충분한 지식정보를 갖고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현안에 대하여 지역·국가·세계적 차원에서 참여하고 기여한다.

이와 같이 유네스코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영역이라는 세 가지 학습 영역에 기반하여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영역은 유네스코 보고서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종합보고서』에 소개된 학습의 네 가지 근간인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행동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

과 일치한다. 인지적 영역은 세계와 그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사고력의 영역이고, 사회·정서적 영역은 학습자가 정서적, 심리사회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달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가치, 태도, 사회적 기술, 행동적 영역은 행동, 수행, 실제 적용 및 참여를 포함한다.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을 핵심개념의 세 영역과 학습성과, 학습 주제, 학습자 특성 등을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III - 1〉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체계¹⁹⁾

19) 유네스코에서 번역 발간한 『세계시민교육: 학습 주제 및 학습 목표(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2015), p.33에서 인용하였다.

세계시민교육에서는 교수·학습 실천 차원에서 학습자 중심의 참여적, 포용적 교수·학습의 실천이 핵심적이다. 이러한 실천은 변화를 지향하는 세계시민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본질적인 사항이며,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깊고 넓은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기반학습, 참여프로젝트, 협력학습, 체험학습, 봉사 학습과 같은 정교한 교수·학습 활동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적인 교수·학습 실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UNESCO, 2015a).

1. 타인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상호작용 중심의 교실 환경과 학교 분위기를 조성한다(예: 성 평등, 포용성, 교실 규범에 대한 합의, 학생 의견, 자리배치, 공간 활용 등)
2. 문화적으로 관심을 보일 만한 주제를 독립적으로 혹은 상호작용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방안을 학습 목표에 알맞게 설정한다(예: 독립적·협동적 학습, 미디어 문해력)
3. 실제 과제를 수행한다(예: 아동 인권에 관한 전시, 평화구축 프로그램,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학생신문)
4. 국제성을 지향하는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그들의 지역 상황과 관련하여 세계에 어떻게 적응할지 이해하도록 한다(예: 다양한 자료와 미디어 활용, 비교와 다양성의 관점)
5. 학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교수 형태나 학습 목표와 일치하는 평가 전략을 사용한다(예: 자기성찰과 자기평가, 동료 피드백, 교사 평가, 저널, 포트폴리오)
6. 교실, 학교, 지역사회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사고의 폭을 넓혀가게 하는 등 학습자에게 다양한 맥락에서 학습경험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예: 지역사회 참여, 온라인상의 국제교류, 가상공동체)
7. 역할모델로서의 교사/교육자의 역할을 강조한다(예: 사회 현안의 최신 정보 파악, 지역사회 참여, 환경 및 공평성(equity) 관련 규범의 실천)
8. 특히 다문화 환경에서 학습자와 그 가족을 교수·학습의 자원으로 활용한다.

이와 같이 세계시민교육에서 도입된 일부 교수·학습 실천방안은 또한 의도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학습활동과 과제, 기대 역량 및 학습 목표가 서로 일관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학급 토론, 기사를 읽거나 영상을 본 후 질문에 대답하기와 같은 학습 활동은 비판적 사고와 사회적 기술 함양, 가치 탐구, 지식 습득, 실제적 역량 계발을 장려하고자 설계된 것이다. 또한 그룹별

조사, 이슈 분석, 문제기반학습, 사회적 행동 취하기와 같은 좀 더 복합적인 교수·학습 방안은 구체적으로 연결된 범주의 역량을 통합적으로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현실과 직결된 과제나 실제 활동(세계적 이슈 관련 연구 프로젝트, 지역사회 봉사활동,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전시, 온라인 국제청년포럼 등)은 세계시민교육 관련 역량 계발에 더욱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과 소셜 미디어는 교실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아이디어와 자원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의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영상, 휴대전화, 원격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 정보통신기술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예: 팟캐스트와 블로그 제작, 연구조사, 실생활 시나리오 활동, 다른 학습자와의 협력)을 세계시민교육에 도입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자들은 원격교육과 온라인 교육, 정보공유 플랫폼을 활용하여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역량을 계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계시민교육의 다양한 관점에서 체계화된 내용들은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세계시민교육 운영 사례²⁰⁾

세계시민교육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23년 8월 23일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주최한 ‘교양교육으로서의 세계시민교육 세미나’에서 소개된 동국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의 운영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국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교양교육의 영역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어떤 가치와 목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내용과 방법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현황을 제시할 것이다.

가) 동국대학교

동국대는 세계시민교육을 “빈곤, 인권, 환경, 평화 등의 글로벌 이슈에 관해 배우고 이를 통해 전 세계사람들에 대한 공감력을 높이고 세계시민으로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역할의식과 책임의식”을 교육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세계시민교육의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

20) 동국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의 세계시민교육 운영사례는 2023년 8월 23일 한국교양기초교육원과 본 연구팀이 공동 주최한 대학의 역사 세미나 <교양교육으로서의 세계시민교육>에서 발표한 동국대학교 남진숙 교수와 숙명여자대학교 김경아교수의 발표자료 등을 참조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하여 운영한다기보다는 교양교육에서 ‘글로벌시민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목이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동국대 학습역량 중에서 글로벌시민역량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하위 학습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나타난다.

〈표 III-76〉 동국대 글로벌시민역량 개념 정의 및 학습성과

역량	학습성과 내용	학습성과 하위 내용	평가방법 및 평가도구
글로벌시민역량	글로벌시민역량-글로벌 사회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사회의 경제, 환경, 보건, 안전, 인권, 평화 등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하며 사회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간접평가, 설문지
	인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갖고 공동체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세계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인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실천하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	간접평가, 설문지

동국대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체계적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시민교육에 해당하는 글로벌시민역량 함양과 관련하여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하고 있었다. 특히 교양교육과정에서 공통교양의 「전 지구적 사고와 문제」라는 대영역을 설정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며, 비교과 프로그램은 주로 언어와 글로벌 봉사 등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양 교과목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직접적인 명칭은 없으나, 그에 해당되는 교과목 개설 및 현황으로 2022년부터 2023년 2학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교양교육과정 대영역인 「전 지구적 사고와 과제」에 개설된 교과목들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영역에 개설된 모든 강좌를 수강하는 것은 아니며, 1개 강좌를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영역에 편성된 교과목들은 아래와 같다.

〈표 III-77〉 동국대 ‘전 지구적 사고와 과제’ 영역의 교양 교과목 구성

영역	이수 구분	대영역	중영역	편성 수	교과목 및 개설수		이수 학점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공통교양	필수 선택	전지구적 사고와 과제	21세기 시민	4	소통, 미디어, 윤리	3	2학점 (택1)	팀프로젝트	상대평가
					다문화사회의 삶	3		팀프로젝트	상대평가
					사랑, 우정, 관용	3		프로젝트	상대평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3		강의+토론	상대평가
			미래 위험 사회와 안전	4	미래인간과 위험사회	2		협동학습	절대평가
					시장경제와 위험사회	2		문제기반학습	절대평가
					과학기술과 위험사회	2		플립러닝	절대평가
					미래환경과 위험사회	2		문제기반학습	절대평가
			지역 연구	4	아메리카의 사회와 문화	3		강의	상대평가
					아시아의 사회와 문화	5			
					유럽의 사회와 문화	5		강의+발표	
					아프리카의 사회와 문화	6			

필수이수 영역인 공통교양으로 「전지구적 사고와 과제」라는 영역에 하위 범주로서 ‘21세기 시민’, ‘미래위험사회와 안전’, ‘지역연구’가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범주마다 4개의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소통, 미디어, 윤리>, <다문화사회의 삶>, <사랑, 우정, 관용>,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미래인간과 위험사회>, <시장경제와 위험사회>, <과학기술과 위험사회>, <미래환경과 위험사회>, <아메리카 사회와 문화>, <아시아의 사회와 문화>, <유럽의 사회와 문화>, <아프리카의 사회와 문화>가 세계시민교육의 성격을 가진 교과목들이다. 이 중에서 ‘지역연구’ 영역에 해당하는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사회와 문화 관련 과목들은 해당 지역 전공자가 가르치는 교과목으로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포괄적 범위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국대에서도 명확하게 세계시민교육의 범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교과목의 체계와 내용이 도출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21세기 시민’ 영역과 ‘미래위험사회와 안전’ 영역의 각각의 교과목의 강의개요와 강의목표에 나타난 주요 키워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78〉 동국대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과목 강의개요 및 강의목표 주요 키워드

교과목명	강의개요	강의목표
소통, 미디어, 윤리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민주 시민으로서 상호소통의 수단인 미디어 ... 공존과 유대를 위한 ...	21세기 시민의 핵심 덕목인 공존과 유대의 가치를 직접 경험, 실천 하는 기회
다문화 사회의 삶	전지구화 를 배경으로 다문화 사회의 제반 문제를 팀프로젝트 수행, 세계시민으로서 더불어 살기 덕목	더불어 살기의 덕목과 주체적 문제해결, 다문화 사회의 개념 이해
사랑, 우정, 관용	시민으로서 동시에 세계시민으로서 ... 사회와 지구촌이 당면한 다양한 이슈 를 자기 삶의 현장, 현실에서 찾은 뒤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프로젝트	개념을 배우고, 문제를 발견, 토론 상호 평가, 21세기 시민 으로 나아가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존엄한 인간의 삶 을 보장하는 이념원리로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국가와 시장의 바람직한 관계 ...	민주주의 라는 이념원리의 관점에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나아가 역사적 지평을 개척 ...
미래환경과 위험사회	위험사회의 도래가 가져올 개인의 변화에 대한 ... 미래 인간의 모습을 재정의, 융합적 사고를 통해 갈등 상황을 해결 ... 과학기술을 통한 인간의 향상과 미래 인간의 양면성	인공지능기술 의 발전으로 생겨날 미래 사회의 변화 양상과 문제, 정보 소통과 위험커뮤니케이션
경제와 위험사회	시장경제의 위험과 불안정성을 분석, 현실적 대안을 모색 하는 방식으로 진행	지속가능성 문제, 불평등 분배, 빈곤문제, 윤리문제 등 학생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
과학기술과 위험사회	과학기술 을 매개로 미래의 위험문제를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는 데 목적	신기술의 위험, 환경위험, 에너지문제, 전염병, 사회적 재난 등 미래의 위험
미래환경과 위험사회	위험사회, 기후위기 , 미래환경에 대한 예측, 인간의 실천적 노력과 변화, 확산, 운동 과 같은 유형 분야로 각 팀마다 세부 주제와 유형은 자유롭게 설정 가능	기후위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제 현실에서 실천 할 수 있는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

동국대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운영되는 교과목들의 강의개요와 강의목표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시민, 상호소통, 공존, 유대, 전지구화, 주체적 문제해결, 더불어 살기, 지구촌 당면 이슈, 21세기 시민, 존엄한 인간의 삶, 민주주의, 과학기술, 인공지능기술, 미래인간, 지속가능성, 환경, 에너지, 기후 위기’ 등의 키워드들이 등장한다. 이는 앞서 밝힌 동국대의 세계시민에 대한 기본전제인 “글로벌 이슈에 대해 세계시민으로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과 책임”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교과목 운영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 세계시민교육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 역시 글로벌시민역량 함양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다. 2023년 1학기 기준으로 글로벌시민역량 프로그램으로 약 11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고, 이 중에서는 외국인 학생 대상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과 내국인 학생 대상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많았다. 취업과 창업 교육, 해외탐방을 통한 글로벌시민역량 강화 비교과 프로그램들도 운영되고 있었으나, 실질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동국대에서는 1997년에 설립된 사회공헌센터를 통해 각종 봉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2010년부터 참사랑봉사단을 구성하여 국내외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해외봉사의 경우 정기적으로 봉사단을 파견하여 국제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글로벌리더 인재 양성,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21세기형 인재 양성, 저개발 국가(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베트남, 인도 등)에 대한 나눔과 자비를 베푸는 참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동국대의 대표적인 <동국 108리더스>는 2007년 첫 출범하여 현재까지 9기를 모집하여 활동 중인 학생역량개발 단체로 대표적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그룹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도덕적·도전적·창의적·국제적 리더를 양성, 배출하기 위하여 매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꿈꾸고 노력하는 3학년 학생들을 뽑아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동국 108리더스>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프로젝트 팀을 꾸려 단체 봉사활동, 리더십 교육, 창의성 교육, 진로탐색 교육 등 다양한 행사를 자체 기획하는 절차를 통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해외탐방 및 봉사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창업 육성 프로그램 등도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동국대의 세계시민교육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79〉 동국대 세계시민교육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기관	프로그램 유형	교육기간	목표
ESA영어경진대회	교양외국어 센터	공모전, 경진대회	2~7일 이내	공통교양 교육내용과 연계한 영어 발표 및 영어 글쓰기 프로그램으로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English Clinic	교양외국어 센터	상담 및 코칭	1일	학사과정 재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교수가 지도하는 예약제 영어학습 상담 프로그램
English Zone	교양외국어 센터	상담 및 코칭	1일	학사과정 재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정해진 주제에 관해 외국인 교수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영어학습 프로그램
TOPIK 튜터링	글로벌 학생팀	멘토링, 튜터링	15~30일 이내	한국어 및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자율 협동 튜터링 프로그램
글로벌 버디		멘토링, 튜터링	30~120일 이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적응력 강화 및 재학생의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재학생의 문화 및 언어 교류 프로그램
외국인 대상 논문작성법		특강	1일	외국인 대학원생의 한국어 논문 작성 기법 이해 및 향상을 위한 특강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캠프	1일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불교문화 체험 활동
외국인 유학생 창업프로그램		캠프	15~30일 이내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 역량 강화 및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취업프로그램		특강	1일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 및 성공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유학생 맞춤형 특강 및 캠프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프로그램		캠프	30~120일 이내	유학생 수업능력 제고 및 한국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온라인 한국어 특별과정
해외탐방		불교학과	해외연수	5~10일 이내

				화 탐방을 통한 글로벌 인재 성장 기틀 마련, 외국어 능력 제고
--	--	--	--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국대 세계시민교육 비교과 프로그램은 글로벌교육 성격의 언어교육으로서의 영어교육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및 적응,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세계시민교육의 프로그램이 언어교육 및 다문화 교육 차원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로그램의 주제가 전지구적 문제인 인권, 에너지, 환경, 기후, 다문화 등 보편적이고 다양한 범주를 포괄하지 못하고 다소 협소한 경향성이 있어, 세계시민교육의 주제와 이슈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동국대의 글로벌시민역량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과 범주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대는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교양 교과목을 대표적인 세계시민교육의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이 교과목은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기반하여 2005년부터 점진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온 교과목이다(김경아 외, 2020).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교양 교과목은 <숙명리더십>이라는 교과목을 2016년에 교과목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해왔다. 교양필수 2학점으로 운영되는 이 과목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이슈에 치중하는 일반적인 세계시민교육과 달리 대학생 시기 자신의 리더십 역량을 함양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양한 전 지구적 이슈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 양성에 목표를 둔다(김경아 외, 2021). 본 교과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양 교과목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교과목은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자기이해 부문, 관계 구축·공감과 소통·영향력·문제해결 등으로 구성된 리더십 역량 부문, 세계시민 윤리·사회정의와 인권·지속가능발전과 환경·다문화사회와 글로벌 파워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시티즌십 부문의 총 3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김경아 외, 2020). 이 교과목의 개요와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80〉 숙명여대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교과목 개요와 교육목표

구분	내용
교과목 개요	대학 신입생이 글로벌 공동체의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기성찰과 다양성, 인권, 정의 등 기본 소양을 익히고, 구체적 문제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시의에 맞는 이론적, 경험적 기회를 제공하는 교양필수 교과목이다.
교육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글로벌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의 '나'를 성찰함으로써 세계 속의 '나'를 이해한다. 2. 세계시민으로서 자기 역할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름을 이해한다. 3. 인권, 사회정의, 지속가능발전, 평화, 국제이해 등 세계시민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알아본다. 4. 글로벌 리더가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질을 이해한다. 5. 글로벌 공동체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목표와 비전을 수립한다.

교과목 개요와 교육목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전반적인 교육의 내용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자기이해와 자아성찰’, ‘공감과 소통, 영향력’, ‘문제해결’, ‘세계시민윤리’, ‘사회정의와 인권’, ‘지속가능발전과 환경’, ‘다문화사회와 글로벌 파워’ 등의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겠다. 평가방법은 자아성찰보고서(30점), 글로벌이슈보고서(40점), 수업참여도(10점), 출석(20점)으로 구성되며, 최종 성적은 P/F를 적용한다. 이렇게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교과목은 다양한 지구촌 이슈에 대한 공동체적 관점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글로벌 리더로서 스스로 어떻게 성장해갈지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김경아 외, 2020).

□ 세계시민교육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의 평가항목인 자아성찰보고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인 <미리쓰는 자서전> 공모전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또한 <시티즌십 페어(Citizenship Fair)>라는 비교과 프로그램과도 매 학기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시티즌십 페어는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교과목 수강자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전시회다. 세계시민으로서 주목해야 할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공유하여 시민의식 향상을 목표로 하는 대회이다. 구체적으로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범지구적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스스로 모색하는 기회 제공하고, 사회문

제 해결형 과제 수행을 통해 재학생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과 문제해결능력 제고하며 자율적 사고와 실천을 통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목적의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4) 세계시민교육 발전 방향

세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과 상호연계성(inter-connection)의 수준과 깊이가 더욱 복잡적이고 유기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교육 역시 국가 단위의 경계를 넘어 인권, 평화, 사회 정의, 다양성, 지속가능성 등 인류의 공통적 문제를 고민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 의식과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우리나라에도 제도권 교육에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시민교육이 적용되어 왔다. 유네스코에서 규정한 세계시민교육은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 가치 및 태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을 구안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기초 아래 한국 대학에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개발해 왔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세계시민교육은 빈곤, 인권, 평화, 지속가능발전 등 전지구적인 이슈를 이해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지구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식의 함양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의 가치와 본질을 기반으로 한국대학들의 세계시민교육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은 민족이나 국가 같은 특정 공동체의 영역을 넘어 ‘세계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전 지구적 문제와 이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참여와 연대 차원의 행동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 대학의 세계시민교육은 여전히 개념 정립이 미흡하며, 가치와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 정책과 대학 평가의 영향을 대학교육이 역량교육으로 한동안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과 많은 프로그램들이 세계시민교육으로 변모하거나,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교육의 차원에서 외국어 중심의 언어교육이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체험교육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양상은 ‘글로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세계시민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중층적이고 다원적인 개념과

특성을 무시한다. 따라서 글로벌 교육이 마치 세계시민교육의 전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오인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국제교류 활동이나 해외탐방과 같은 단순 체험 활동 자체가 세계시민교육과 무관한 것은 아니나, 이 자체가 세계시민교육으로 오인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은 단순히 개인의 글로벌 경쟁력이나 역량 제고만을 의미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세계시민교육 개념의 다양성과 중층성이 개념적 모호성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 그럴수록 세계시민교육의 가치와 개념 등에 대해 숙고하고 본질에 부합하는 교육내용과 방법들이 개발되고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세계시민교육이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제별, 대학별, 교수자별로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균형적인 글로벌 이슈를 선정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시민성에 대해 전통적 애국심을 강조하거나 국가시민성의 차원으로 한정된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지구 전체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세계시민성의 근본적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편 세계시민교육은 학생 스스로가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계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관심을 기반으로 서로 협력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참여, 연대하며 행동하도록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이다(김진희, 2022).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의 현장 즉,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시민사회를 망라하여 공동의 보편적 이슈에 대한 형식적, 비형식적 경험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마. 융복합교육

1) 융합과 융합 교육의 개념

학문은 분화, 이동, 교차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진화해 왔으며 이는 곧 학문이 고정된 어떤 일정한 형태를 갖는 실체가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임을 의미한다(송성수, 2017). 학문적 의미로서 ‘융합’은 학문간 경계를 뛰어넘는 융복합적 ‘사고’ 또는 융복합적 ‘학문’을 뜻하는 것인데, 이는 주로 대학에서의 융합 혹은 융합교육을 지칭할 때 활용된다. 융합의 학문적 개념은 두 개 이상의 전공 또는 교과 요소들이 함께 모아지는 것, 교과목 간 영역을 허물고 사회적으로 주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학습내용과 교과목을 구성하는 활동, 서로 다른 분야나 특정 학문의 경계를 넘어 두 가지 이

상의 영역을 결합하여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키는 과정 등을 의미한다(임정훈, 2020).

융합은 어떠한 요소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의미와 정의가 상이하며 수렴(convergence), 연합(fusion), 통섭(consilience) 등의 단어로도 표현된다. 국내에서는 융합교육 외에 통합교육 혹은 학제간 교육이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개념 모두 개별 교과목이나 전공, 혹은 학문 분야가 상호 ‘연계’되거나 ‘재구조화’된 형태로 교육이 진행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이중 융합교육과 관련하여 대학에서 학문을 융합하여 교육하고자 할 때 ‘학문 간의 관련성 정도’나 ‘학문이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통합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임정훈, 2020). 근래에는 과학기술 분야와의 결합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여 ‘융복합’보다 ‘융합’이라는 용어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최예정, 2011).

국내·외의 많은 대학들에서 융합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융합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목을 신설하고 있다. 이는 기술과 산업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대학이 육성해야 할 인재상도 함께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연재(2017)는 이러한 변화가 최근 많은 대학의 교육혁신 방향이 지식을 창의적으로 습득하는 과정의 탐색에 역점을 둘 뿐만 아니라, 평생 요구되는 자기형성능력의 힘을 주도적으로 기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융합교육 또는 융복합교육 교육과정, 교과목, 교수학습 방법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다. 홍병선(2011)은 기초적 창의적 지성능력과 총체적 종합적 사유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융합교과목 개발을 통한 융합교육을 예로 들었다. 융합교과목 개발과 융합전공 개설을 통한 융합교육은 학생들이 대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통섭(consilience)을 배양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며,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 학문 지식과 사유로는 창의적 사유와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융합교육이야말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융합교과목 개발의 목적을 “지식 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통섭적 사유능력, 정보 및 지식의 재창출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대학의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 실정에 맞는 적용 가능한 실천적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홍병선, 2011:152).

학문 간의 벽을 낮추는 융합적 교양교육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융합되어 있는 지식의 전수보다는 학생의 융합 역량의 양성에 방점을 두어 개별 대학의 상황과 특성을 담는 경우도 있다. 즉 교양 교육과정 개편을 계기로 기초학문의 성격을 갖추면서도 학제간 융합을 꾀할 수 있도록 인문학·수학·공학·경제학·철학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기초학문의 기본적인 문제와 방법론을 학습자들의 전공을 불문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양수연, 이다민, 2019).

최현철(2019)은 대학에서 융합교육이 융합전공이나 복수전공과 같은 전공단위에서가 아니라 교양교육 차원에서의 확산을 위해 융합, 교양교육과 융합교육, 융합교양교육의 개념을 재정리하고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양교육영역 구분 표준안을 토대로 교양교육의 융합형 영역, 융합교양교육 영역의 표준안을 주제와 학문단위별로 구별하여 제안하면서, 융합 교양교육에 있어 교육방법론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교육의 방향과 철학임을 강조하였다.

2) 대학의 융합교육 형태

김혜영(2013)은 융합 교육의 유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다전공 연합과정화 방법’과 ‘다학문 통합교과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다전공 연합과정화는 독립학문에 개별 교과목들을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이수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설치해 융합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다전공, 연계전공, 연합전공 등 별도의 전공이나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유형이다. 다학문 통합교과화는 다양한 학문의 내용을 한 교과목으로 통합해 개설하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 교수들이 코티칭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 다전공 연합과정화 방법보다 도입 장벽이 낮은 특성이 있다.

융합교육은 융합의 방식, 요소, 사고유형에 따라 그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신제한, 2013). 즉 융합의 ‘방식’에 따른 유형은 ‘주제중심형’, ‘요소중심형’, ‘개념중심형’, ‘문제해결중심형’ 구분되며, 융합 ‘요소’에 따른 유형은 ‘부분융합형’과 ‘전체융합형’으로, ‘사고유형’에 따른 유형은 ‘귀납형 방법’과 ‘연역적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융합 방식은 융합교육을 수행하고자 하는 교수자의 관심이나 역량, 교과목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지식 융합체를 형성하는 융합의 ‘방식’에 따른 구분인 ‘주제중심’, ‘요소중심’, ‘개념중심’, ‘문제해결중심’ 유형 분류가 활용하기 용이하다고 보았다.

융합교육은 주로 교육내용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에 집중

하지만, 대학에서의 융합교육은 교육내용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문제나 주제를 중심으로 한 융합 활동 또는 학습경험을 통한 학생 스스로의 내적 융합에 초점을 둘 수도 있다(허영주, 2013). 구체적인 유형으로 교과목 중심의 융합, 현장과제 혹은 문제중심의 융합, 학생중심의 융합으로 요약된다(임정훈, 2020). 이러한 유형의 융합은 유형에는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기반학습, 사례기반학습 등 다양한 교수방법이 동반되는 특징이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융합형 교과목이 과학과 예술, 경영학과 디자인 등 특정 영역이나 전공 간의 연합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해 허영주(2013)는 공학과 경영학, 디자인학의 융합에 대한 강조를 비판하면서 융합교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등 다양한 영역 간의 총체적 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3) 교양 융복합 교육내용

국내 대학에서 개발된 교양 융복합 교과목에서 나타나는 내용적 특성 중 하나는 다양한 학문 영역의 내용을 주제를 중심으로 한 교과목으로 통합한 것이다. M대학의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인디영화를 중심으로 예술 분야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기술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통해 철학적 이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교양 융합 교과목이다. ‘전쟁의 이해’ 교과목의 경우 인류사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전쟁에 관련된 고전을 통해 역사학, 정치학, 사회철학을 다루고, 문학서나 과학기술사의 저술을 융복합 교과목의 기본 학습교재로 선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홍병선, 2011). 마찬가지로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 영역을 접근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

S대학의 중핵과목인 ‘학문과 사고’는 인문·사회·이공·예술 4개 대영역을 다시 8개의 소영역 인문(문학/사학), 이공(수학/공학), 사회(경영/경제), 예술(미학, 철학/문화)으로 분류하고 대영역별로 토론하는 교과목으로 예술 대영역의 경우, 첫 번째 소영역인 미학 파트에서 ‘예술의 철학적 정의와 해석’을 이룬 강의로 학습하고 ‘동물도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의 글쓰기 과제를 부여받는다. 두 번째 소영역인 문화학 파트에서는 ‘대중문화의 정의와 비평적 관점’을 이룬 강의로 학습하고 ‘대중문화에 대한 검열은 정당한가?’와 같은 주제의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학문 분야별로 병렬적인 주제 배열을 글쓰기와 토론으로 융합하는 방식이다.

I대학의 교양기초과목인 ‘크로스오버 1: 인간의 탐색’의 경우에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면서 점차적으로 융합적인 사고 확장을 강화하는 소주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관계적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더불어 사는 관계 속의 인간’과 보다 확대된 개념의 관계인 ‘세계 안에서 인간의 위상과 공존의 문제’로 모듈을 구분하고 각각 윤리, 정치, 기술, 감정, 창의, 융합의 주제를 접목하고 있다.

이밖에 ‘르네상스 교양특강’ 교과목은 읽기, 쓰기, 말하기 통합을 통한 학제 간 소통을 목표로 예술, 과학, 철학, 문학 분야의 명사의 강연을 학습하나 소주제는 한국인들의 음악, 신경과학, 미래사회의 패러다임, 죽음, 기자의 세계와 같이 주제 간 유기적인 흐름을 찾아보기 어렵고 분절적인 특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융합적 사고 또는 융합 역량을 함양하는 것은 개별 학생의 몫으로 남겨진다.

〈표 III-81〉 교양 융합교과목 주제 및 내용

연구자	내용
서기자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케이드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 인디영화를 매개로 예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철학적 이슈에 접근 - 주제: 인디영화를 통해 본 소수자 - 소주제: 소수자의 정치학, 소수자의 사회학, 소수자의 경제학, 소수자의 미학, 소수자의 생태학, 소수자의 윤리학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르네상스 교양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 읽기, 쓰기, 말하기 통합을 통한 학제 간 소통 - 소주제: 한국인들의 음악 현재와 미래(예술 분야), 신경과학, 세상과 만나다(과학 분야), 유희와 침묵의 제국(역사 분야),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철학분야), 삶을 비추는 거울로서의 죽음(문학 분야), 기자의 세계(사회 분야)
정연재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로스오버 1: 인간의 탐색’ 교과목(교양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관계적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 더불어 사는 관계 속의 인간(윤리적 인간, 정치적 인간) - 세계 안에서 인간의 위상과 공존의 문제(기술적 인간, 감정적 인간, 창의적 인간) - 공부하는 인간, 융합적 인간

양수연·이다민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과 사고’ 교과목(중요 핵심 과목) - 인문·사회·이공·예술 4개 대영역/ 8개의 소영역(인문-문학/사학, 이공-수학/공학, 사회-경영/경제, 예술-미학(철학)/문화)으로 분류 - 문학, 역사, 인문토론, 예술, 문화, 예술토론, 수학, 공학, 이공토론, 경제, 경영, 사회토론
홍병선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의 이해’ 교과목 - 인류사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전쟁에 관련된 고전: 호머의 일리아드(역사학), 손자의 손자병법(정치학), 베르나르-앙리 레비의 전쟁의 목시록(사회철학) - 문학서: 그 많던 싱아는 누구 다 먹었을까(박완서), 광장(최인훈), 칼의 노래(김훈) 등 - 과학기술사의 저술: 무기의 역사 (찰스 바우델)

한편, 융복합교육 운영에 있어서 교수-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양수연과 이다민(2019)는 대학의 교양교과목으로 ‘학문과 사고’ 라는 중요핵심과목을 개발해 운영 시 강의, 발표, 토론, 논증적 글쓰기와 같은 교수방법 및 과제를 적용하고, 교수자는 팀티칭으로 참여하게 하며, 과제 채점도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 평가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융합 교과목에서 교수-학생-학습자료 간의 상호작용은 CANVAS와 같은 온라인 티칭 시스템을 통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는 교육 주제 또는 내용을 융합하는 것을 넘어서, 깊이 있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 교수학습 방법 및 학습 시스템까지 고려한 융합교과목의 예시이다.

임정훈(2020)은 융복합 교양교과목 공동 개발 및 운영 시 팀티칭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최근의 교양교육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융합 혹은 융복합 교과목을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업시수 배분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교수자 간의 충분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교육내용 구성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실제로 해당 융합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시 특정 교수자는 교수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팀티칭을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교수자들이 모여 교수요목과 수업설계안 및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운영도 같이 수행하는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융합교과목이 팀티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내용을 단순히 연결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으며, 여러 교수와 매칭된 교육내용의 병렬적 방식이 교수와 학생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허영주, 2013).

4)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사례²¹⁾

가) 인하대학교

□ 목표와 핵심 가치

인하대학교 융복합교육의 목적은 첫째, 융합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선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을 창출, 응용, 적용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융합교육의 핵심역량이 교육현장에서 구현되려면 명확한 교육목표와 방향이 필요하며, 교수내용, 방법, 평가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셋째, 융합 교과목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교수진도 융합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교수들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목표 아래, 융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융복합 교과목인 <크로스오버>를 중점교양(전교생 필수 지정) 영역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크로스오버 교과목의 목적은 자신의 전공과 다른 학문 분야를 교차 수강함으로써 창의 융복합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교과목은 융합과 교차의 정신을 기초교육에서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이공계 학생, ‘자연과학적 마인드’를 갖춘 인문사회계 학생을 육성하여 사회에 꼭 필요한 소통형 인재로 배출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을 담고 있다. 특히 크로스오버 교과목은 창의사고역량과 의사소통역량을 교과목 핵심역량으로 설정하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자연과학 교육은 대부분 대학에서 배분이수교과에 편성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때, 인문사회계열 학생에게 기초필수 교과목으로 <크로스오버 2: 자연의 탐색> 교과목을 수강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적 안목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표 III -82〉 크로스오버 교과목 내용

교과목 명	핵심 내용
크로스오버 1: 인간의 탐색	전계열 학생을 위한 인문학적 소양 교육
크로스오버 2: 자연의 탐색	인문사회계 학생을 위한 기초과학 소양 교육
크로스오버 3: 사회의 탐색	이공계 학생을 위한 사회과학 기초교육

21)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사례는 인하대학교 정연재 교수와 아주대학교 이진희 교수의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 교과목 운영 및 개설 현황

〈표 III-83〉 크로스오버 운영 및 개설 현황

구분	교과목 내용(예시)																				
교과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명: 크로스오버 1: 인간의 탐색 • 영역 및 이수학점: 중점교양, 2학점 • 수강대상: 전 계열 학생 • 핵심역량: 창의적사고역량, 의사소통역량 • 평가방식: 절대평가(P/F 방식) 																				
교과목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기반학습(Topic-based Learning): 일방적 지식전달형 수업을 지양하고, 자유로운 질문, 문제 제기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주제 중심 학습 지향 • 협력기반학습(Collaboration-based Learning): 주제별 조별 토론 및 협력 활동을 통해 지식의 공유와 협력적 창조를 위한 기틀 마련 • 학습자중심학습(Learner-centered Learning): 일방적 지식전달을 탈피하여, 학습자 스스로 내용을 습득하고, 관점을 형성하여, 입장(태도)을 정립해나가는 주도형 학습 지향 • 역량기반학습(Competency-based Learning):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창의사고역량과 의사소통역량을 증진시키는 학습 지향 																				
수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를 중심으로 주차별로 주제를 다루는 주제중심학습으로 진행 • 주제중심학습의 경우, 일상에서 접하는 주제, 사회에서 현안문제로 부각되는 이슈들로부터 쟁점을 도출하고, 이로부터 이론 탐색을 통한 심화학습으로 나아가는 상황식 수업 																				
평가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출석</th> <th>중간고사</th> <th>기말고사</th> <th>학습활동</th> <th>독후감</th> </tr> </thead> <tbody> <tr> <td>30%</td> <td>20%</td> <td>20%</td> <td>20%</td> <td>10%</td> </tr> </tbody> </table> • 출석, 중간 및 기말고사(대체과제), 독후감 점수를 합한 100점 가운데 60점 이상 취득할 경우 PASS를 원칙으로 함 •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① 전반부와 후반부 다룬 수업내용을 기반으로 ② 학생들의 사고를 증진시키는 방향의 문제를 출제하여 ③ 「크로스오버」 학습성과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을 지향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습활동	독후감	30%	20%	20%	20%	10%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습활동	독후감																	
30%	20%	20%	20%	10%																	
개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2022-1</th> <th>2022-2</th> <th>2023-1</th> <th>2023-2</th> </tr> </thead> <tbody> <tr> <td>수강생</td> <td>2,626명</td> <td>1,521명</td> <td>2,462명</td> <td>1,448명</td> </tr> <tr> <td>교수진</td> <td>9명</td> <td>10명</td> <td>10명</td> <td>9명</td> </tr> <tr> <td>분반수</td> <td>22개</td> <td>21개</td> <td>24개</td> <td>23개</td> </tr> </tbody> </table> 		2022-1	2022-2	2023-1	2023-2	수강생	2,626명	1,521명	2,462명	1,448명	교수진	9명	10명	10명	9명	분반수	22개	21개	24개	23개
	2022-1	2022-2	2023-1	2023-2																	
수강생	2,626명	1,521명	2,462명	1,448명																	
교수진	9명	10명	10명	9명																	
분반수	22개	21개	24개	23개																	

□ 교과목 주제 및 내용

- **대주제:** 크로스오버 교과목은 4개의 대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84〉 크로스오버 대주제

대주제	내용/취지
제1부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적 특성 및 정체성에 대한 탐구
제2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바람직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공존의 인문정신 탐색
제3부 인간과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삶, 좋은 삶을 위한 인간 가치 탐구
제4부 과학기술과 미래	포스트휴먼시대/과학기술시대의 인간의 조건 탐색

- **세부주제:** 4개의 대주제는 18개의 세부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85〉 크로스오버 세부주제

구분(대주제)	주제(장)
제1부 인간의 본질	1장 인간이란 무엇인가?
	2장 인간의 자기이해는 왜 중요한가?
	3장 인간의 정신과 몸
	4장 죽음이란 무엇인가?
제2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5장 윤리적 인간: 윤리적 허무주의와 회의주의를 넘어서
	6장 정의로운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7장 섹스, 젠더, 에로스
	8장 경쟁과 협력
제3부 인간과 풍요로운 삶	9장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10장 역사적 인간: 역사는 인간이 만든다
	11장 인간의 심미성: 문화예술과 인간
	12장 종교적 인간
제4부 과학기술과 미래	13장 죽음이란 무엇인가?
	14장 감정적 인간
	15장 인간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16장 초연결사회: 사이버 세계 내 자유의 확대와 축소
	17장 인간과 환경: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18장 호모 테크니쿠스: 포스트휴먼 인간의 미래

□ **교육성과 및 향후 발전 계획**

크로스오버 교과목 수업평가 결과, 교과목 핵심역량 지표는 최근 2년간 지속 상승했으며²²⁾ 교과 내용의 경우 수강생들의 학습 만족도가 높았다. 다만 교과목이 전계열 학생 대상의 중점교양 교과목으로 편성되었으므로 향후 ‘주제중심 모듈형 교육모델’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식 전수형이 아닌 협력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강화하고자 교재 개발 등 운영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런티어 학부대학은 중점교양 영역 크로스오버 교과목의 전면 개편을 통해 포스트휴먼 시대 테크놀로지와 인간 가치(human value)를 정교하게 탐색하는 교양 Flagship 교과목으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융합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학문간 횡단과 연결을 촉진하는 ‘융합형 주제 중심의 교과내용 개편(총 8주제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융합 주제별 콘텐츠 DB화를 통해 학기마다 필요한 콘텐츠를 영역별로 선정하여 유연하고 개방적인 모듈형 융합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융합적 사고능력 배양에 역점을 둔 크로스오버형 주제중심학습(Crossover-Theme based Learning) 방법론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III-2> 인하대학교 융합교육모델(안)

22) 1. 창의사고역량: 2022-1(4.54점) ~ 2023-2(4.61점)
2. 의사소통역량: 2022-1(4.52점) ~ 2023-2(4.61점)

나) 아주대학교

□ 목표와 핵심 가치

아주대학교 융복합교육의 목표는 학생 주도성과 연계하여, 주도적이고 통합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역별 교양에서도 이와같은 융복합적 사고를 중요한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강의 페어링의 경우, 문제해결보다는 문제 발견 또는 재정의에 초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즉, 다양한 관점에서 기존의 문제를 재규정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창의적 사고 훈련을 학생주도 융복합 교육과 결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교과목 개설 및 운영 현황

「강의페어링」이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강의에서 학습한 지식, 방법, 기술 등을 활용하여 하나의 과제(아이디어)를 생성하고 해결하는 융복합 혹은 강의 통합 활동 수업을 말한다. 즉, 이미 수강한 교과목이나, 이번 학기에 수강 중인 교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하여 두 개의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이나 방법론을 융합 후 결과물을 산출하는 자기주도적 교과목이다. 2015년 기존 교과목을 중심으로 강의페어링을 개설한 이후 2017년부터는 강의페어링을 1학점 교과로 개설, 2018년부터는 강의페어링 1, 강의페어링 2, 강의페어링 3 강좌를 확대 개설하여 학생들이 원하면 3번에 걸쳐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의페어링은 3가지 요소, 즉 ‘기존 수업에 기초한 융복합’, ‘학생주도성’, ‘문제 발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아주대학교의 학생 연구 프로그램(예: 학부생 연구, 파란학기 등) 전공영역에서 캡스톤 형태의 학부생 연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강의페어링의 장점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문제발견을 통해 융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수업 만족도 및 주도적 학습 경험, 융복합 학습 경험 등에서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표 III-86〉 강의페어링 교과목 개요

구분	내용
교과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명: 강의페어링 • 영역 및 이수학점: 교양선택, 1학점 • 교과목 편성: 강의페어링1, 강의페어링2, 강의페어링3 • 교수-학습: 학생주도적 연구 프로젝트, 지도교수와 4회 면담실시, 포스터 전시회 참여(의무사항은 아님, 성적평가 시 반영) • 평가방식: 절대평가

5) 융복합교육의 발전 방향

융복합교육은 다양한 통합방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의 통합으로 볼 수 있는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접근방식은 보통 개별 전공이 병렬적으로 나열되며 교과 내용이 원형 그대로 유지된다(박주호, 이종호, 2013). 각 학문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팀티칭을 하더라도 교수자의 협업보다는 개별 수업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융복합 교과목 개발에 자주 활용되며, 이와 유사한 교과목들이 많지는 않지만 개설되고 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융복합교육은 교과목 모듈로 구성되는 교육과정 체계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모듈을 구성하는 교과목 군이 여러 학문 분야로 구성될 수 있고 개별 교과목 내용이 여러 학문 분야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복수의 모듈을 수강함으로써 융복합적 사고 역량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다학문적 접근방식을 통해 대학은 교과목 단위에서 융복합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교과목 단위가 아닌 학문의 대주제를 기반으로 통합적 사고를 유도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통합과정을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접근방식이라고 하며 ‘주제 중심’ 과 같이 넓은 영역의 교육과정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말한다(박주호, 이종호, 2013). 이번 연구에서 융복합교육 사례로 제시했던 인하대학교 <크로스오버> 교과목이 간학문적 접근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 현장에서는 다학문적 접근방식과 간학문적 접근방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간학문적 접근방식은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 부록의 ‘주제 중심형 자유학예 교육과정 예시’ 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교양수업을 통해 인간의 삶을 맥락적 상황(정치·경제·사회·문화)에 녹여내어 통합적 사고를 확장하겠다

는 의지로 보인다. 향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대주제 중심의 교양교육과정 설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대학과 협업하여 대주제 교양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표 III-87〉 주제중심형 자유학예 교육과정 예시²³⁾

주제중심형 교육과정	영역
현실 전체의 지적 조망을 위한 분류	① 자연 및 과학 ② 기술의 본성 및 성과 ③ 인간의 본성 및 조건 ④ 문화현상과 현대문명 ⑤ 사회적 현실 ⑥ 역사적 현실 ⑦ 인륜성 탐구와 도덕적 추론 ⑧ 종교적 가치 ⑨ 미적 가치
인간에 대한 성찰에서 세계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는 분류	① 인간의 본성과 삶의 조건 ② 종교적 가치와 미적 가치 ③ 경제생활과 정치 공동체 ④ 사회 현실과 역사적 맥락 ⑤ 문화의 본질과 다원적 세계 ⑥ 자연현상과 과학적 탐구 ⑦ 과학기술의 발전과 현대문명

상위 수준의 통합적 사고를 기대한다면 가장 높은 단계의 통합과정인 초학문적(transdisciplinary) 접근방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초학문적 접근방식의 융복합교육은 전공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구조적 모델이 창출되는 과정을 통해 구현된다(박주호, 이종호, 2013). 학생 스스로 실생활의 복잡한 문제를 찾고 학습을 위한 주제를 설정하며 다양한 학문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통합적 사고를 기대할 수 있다. 이때 융복합교육은 교과 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교과간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차운경, 안성호, 주미경, 함승환, 2016). 최근 대학 특성화를 위한 학과구조, 학사제도 개편 등 정부 당국의 요구는 바로 초학문적 접근방식의 융복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기대와 대학 현장에서의 차이(gap)를 어떻게 극복할

23) 대학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부록(p.19)

것인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물론 이번 연구에서 융복합교육 사례로 제시한 아주대학교의 <강의 페어링>은 초학문적 접근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학문적/간학문적/초학문적 융복합교육이 대학 교육과정에서 실현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낮은 단계의 융복합교육을 초학문적 접근방식의 융복합교육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 및 학사제도의 유연화가 요구되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년(학습 수준)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식의 융복합교육을 제공하여(예: 저학년→다학문적/간학문적 융복합교육: 고학년→초학문적 융복합교육) 단계별로 경험하도록 하거나 대주제 중심 모듈 체계를 개발하여 교과과정을 입체화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상위단계의 융복합교육은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과정’이 핵심이므로 단일 전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들며 필요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사구조 및 제도의 유연화는 융복합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 요소가 될 것이다.

대주제 중심 모듈 체계 예시

1. 대주제: 인류역사와 불평등
 - 1) 지식심화: 사회학, 종교학, 역사학 관점에서 교과목 구성
 - 2) 지식적용: 대주제 + 전공 = 프로젝트
 - 3) 지식활용: 현장 친화적 체험

I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대학의 교양기초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고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연구진은 문헌연구를 통해 교육통계(2022) 기준 종합대학 190개교 가운데 140개 대학의 대학 요람과 교양교육과정 편람표 및 이수체제도 등을 확보하여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구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60개 대학의 2022학년도 교양 교과목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조사연구는 2001년 「학문분야평가인정제: 교양교육분야 평가」 이후 가장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한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1년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설립 이후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기존의 교양교육 현황조사 결과가 안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논의 결과와 정책적 제언은 기존의 어떤 연구보다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제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첫째,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목표 문제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대학의 교양교육 목표가 시대변화와 사회 요구에 따라 변경되거나 새롭게 수립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주체적 인간의 형성이라고 하는 교양기초교육 본래의 목적보다는 창의·융합·미래사회의 문제해결이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도구적인 목적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교육을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내지 도구로 간주하는 관점은 결국 교육이 도구적 인간을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점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공동체 의식과 시민정신의 함양이라는 대학의 교양기초교육 목표가 과거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난 것 역시 그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개인과 조직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공동선과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를 몰각하는 개인이나 사회는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주장과 가치가 우리의 삶을 혼돈 속으로 몰아갈수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교양기초교육이 스스로 짐을 지겠다고 한 과제라는 점에서 대학의 교양기초교육 목표를 새삼 재고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한다.

둘째, 교양 이수학점의 문제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한 140개 대학의 평균 졸업 요구학점은 평균 129.42학점이었고, 그 가운데 교양 이수학점은 평균 34.60학점으로 졸업 요구학점의 26.82%였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대학의 졸업 요구학점이 줄어들면서 교양 이수학점 또한 줄어들었지만, 졸업 요구학점 대비 교양 이수학점 비율은 동일했다. 그러나 졸업 요구학점의 3분의 1 이상을 교양기초 교육과정에서 이수하게 하는 미국 대학의 경우와 견주어 보면 한국 대학의 교양기초 교육과정 이수학점은 지극히 낮은 편이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제는 단순한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소양을 갖춘 스페셜 제너럴리스트다. 스페셜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폭넓은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지원해야 한다. 예측불가능한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어떤 문제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헤쳐 나갈 수 있는 제네릭 스킬(generic skills)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소질에 맞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충분히 실험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교양기초교육이 폭넓게 갖추어지고 깊이 있게 제공되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23년 12월에 공개된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안)에 따르면, 교양교육 이수학점을 기존의 졸업 요구학점의 30% 내외에서 25% 내외로 축소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지표는 대학의 교양 이수학점을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하도록 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이는 무전공 입학 확대하고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 대학 및 전공 학과(간) 장벽 허물기를 유도하는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교양기초 교육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교양 이수학점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은 전공 기초교육을 위한 교과목이 일부를 점하고 있고, 취업 및 창업 교육을 위한 교과목이 다른 한쪽을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교양기초 교육의 주인이 없었기 때문이고,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편견과 오해가 뿌리 깊기 때문이다. 개별 대학 내에서의 교양 이수학점 확대 논의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 격이다.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 실현을 위해서도 교양의 이수학점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최소한의 교양 이수학점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양질의 교양기초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꿈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양교육과정 구성의 편향성 문제이다. 이번 연구결과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60개 대학에서 개설하는 39,890개의 교양 교과목 가운데 교양기초교육의 본령에 해당하는 자유학예교육을 위한 교과목(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 교과목)은 9,031개 교과목으로 전체 교양 교과목의 22.64%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기초문해교육 가운데 의사소통Ⅱ(영어를 비롯한 외국어교육)에 개설되는 8,921개 교과목(22.36%)과 유사한 규모이다. 교양기초교육의 본령이라 할 자유학예교육 전체에 투여되는 자원이 영어교육 하나에 투여되는 자원과 유사한 것이 한국 대학의 교양기초교육 현실인 것이다.

교양교육과정 구성의 편향성 문제는 특히 자연과학 분야에 개설되는 교양 교과목 수가 전체 교양 교과목의 3.0%에 불과하다는 사실, 기초문해교육을 위한 교양 교과목은 전체 교양 교과목의 47.6%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상 기초문해교육은 의사소통 I, II가 66%를 차지하고 사고 교육을 위한 교과목은 4%에 불과하다는 사실, 체험소양교육의 본질에 해당하는 정서적·사회적·신체적 체험 교육은 연성화한 채 전체 체험소양교육 교과목의 절반 가까이 대학 적응 및 진로 교육에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통해 거듭 확인할 수 있다. 교양교육과정의 구성 자체가 한편으로 심각하게 뒤틀어지고 본말이 전도된 형국이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현실인 것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교양교육과정의 편향성을 바로 잡는 일, 빈사 상태에 빠진 기초과학·수학 교육과 사고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성, 융복합 사회에서 대학교육도 학과 간,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융복합교육을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특히 직업생태계 변화에 따라 대학의 학사구조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신입생을 무전공, 무학과로 선발하고 전공의 경계를 허물어 학생들이 스스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개혁을 가속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실제 대학 신입생부터 저학년 시기에 해당하는 교육체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의 교양교육 체계가 신입생 무전공 입학 및 융복합교육의 체제 도입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면서 위상을 정립할지, 혹은 교양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변모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해야 할 시기다. 특히 기초문해교육 및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이 새로운 융복합 교육 체제 속에서 어떠한 모형으로 적용하는가에 대한 연구개발 및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융복합과 통섭의 시대에 대학교육의 융복합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는

학문과 전공의 경계만 허물어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무전공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경계를 허물되, 학문의 토대인 기초학문들을 집중 편성하여 이를 학생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중요하다.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을 통해 학문 간 장벽을 뛰어넘는 융복합 교과목들을 폭넓게 경험함으로써 기초교육의 기반을 다지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교양교육이 아니라 환경과 구조의 변화에 따른 유연하고 유기적인 교양교육과정과 운영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양교육의 편성 및 이수방식을 대학 전 학년에 걸쳐서 전공에 관계 없이 적용되도록 체계를 바꾸고, 특히 전공과 교양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난 통합적 교육으로서 교양교육의 새로운 운영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의 사회를 살아가는 미래 인재들이 전 지구적 세계 속에서 인류 보편의 문제들을 규정하고 해결하는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즉 세계 시민성을 교육하는 이른바, 세계시민교육이다. 고등교육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지만 세계시민교육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중층성의 특성 때문에, 이를 대학교육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대학 차원에서 각각 나름대로 세계시민교육을 해석하여 국제화 교육, 다문화 교육, 언어 교육 등에 치중된 교육을 세계시민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이 고등교육 차원에서 어떠한 교육내용들을 다루고, 어떤 교육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 정책적,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V. 참고문헌

- 가네코 모토히사 지음, 김미란 옮김(2008), 『대학의 교육력』, 북코리아.
- 강창동(2012), 「한국의 대학 교양교육의 현황과 특징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8-2, 안암교육학회.
- 권태현(2023), 「인공지능 시대의 글쓰기와 작문 교육의 방향 탐색-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83, 한민족문화학회.
- 기혜선(2023), 「대학생의 챗GPT 활용 글쓰기 경험 탐색」, 『문화와 융합』 45-9, 한국문화융합학회.
- 김경아·김수진·윤희정(2020), 「대학의 인성기반 교양교육 현황 및 방향 모색: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을 중심으로」, 『교양학연구』 12, 중앙대학교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 김경아·김지은·윤희정(2021),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교양교과목의 질 향상을 위한 인식 및 교육 요구 분석: 여대생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5-2, 한국교양교육학회.
- 김미영(2020),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글쓰기 강좌의 원격화상수업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책-2020학년도 1학기 홍익대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강좌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120,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김세준(2021), 「언택트 시대의 글쓰기 클리닉 운영의 과제-성균관대학교 글쓰기 클리닉을 대상으로-」, 『리터러시 연구』 12-6, 한국리터러시학회.
- 김소륜(2021),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과제-글쓰기 교과목의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2-3, 한국리터러시학회.
- 김진희(2022), 「세계시민교육, 거대 담론을 넘어 교육자의 일상 속 실천으로」, 『서울교육』 247, <https://webzine-serii.re.kr/>, 2024년 1월 25일 접속.
- 김현정(2012), 「대학 ‘글쓰기’ 교과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우리어문연구』 43, 우리어문학회.
- 김현정(2020), 「국내 주요 대학 글쓰기 교육의 전개 양상과 발전 방향」, 『교양교육연구』 14-5, 한국교양교육학회.
- 김혜영(2013), 「융합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융합교육의 방향과 기초융합교과 설계에 대한 제언」, 『교양교육연구』 7-2, 한국교양교육학회.
- 나은미(2008),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 현황 분석-과목 개설 현황 및 교재를 중심

- 으로], 『우리어문연구』 32, 우리어문학회.
- 남진숙(2013), 「글쓰기 첨삭의 효과적인 교수학습법」, 『사고와 표현』 6-2, 한국사고와표현학회.
- 박선영(2021), 「대학생을 위한 성찰적 글쓰기 연구-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박정하(2013), 「대학 글쓰기 교육 이대로 좋은가-문제점과 과제-」, 『사고와 표현』 6-2, 한국사고와표현학회.
- 박주호 외(2013),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연구(Ⅱ)』,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박주호 · 이종호(2013), 「융복합 교육 실증연구의 체계적 메타 분석」, 『아시아 교육연구』 14-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박철성(2021), 『변혁기의 대학교육과 교양교육의 역할과 가치』,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백윤경·김정숙(2023),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코로나19 전후 대학 글쓰기 교육 운영 현황 분석과 시사점-2017~2023 KCI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98, 국제어문학회.
- 변기용 외(2015), 『잘 가르치는 대학의 특징과 성공요인』, 학지사.
- 변기용 외(2016), 『잘 가르치는 대학의 특징과 성공요인 2』, 학지사.
- 서기자(2013), 「융복합 교양교과목 개발과 효과에 대한 고찰」, 『교양교육연구』 7-3, 한국교양교육학회.
- 서정혁(2006), 「대학의 교양교육과 글쓰기 교육」, 『독서연구』 15, 한국독서학회.
- 손달임(2023), 「교양 글쓰기 수업에서 ChatGPT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 『사고와 표현』 16-2, 한국사고와표현학회.
- 손동현 외(2012),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손윤락(2019), 「‘세계명작세미나’-공통교양 고전 읽기 교육의 확대와 그 명암」, 『변화의 시대, 지속가능한 교양교육(Ⅰ)』, 2019학년도 한국교양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송성수(2017), 「산업혁명의 역사적 전개와 4차 산업혁명론의 위상」, 『과학기술학연구』 17-2, 한국과학기술학회.
- 송하석(2023), 「디지털 시대의 교양교육 - 철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디지털시대,

- 교양교육 혁신의 좌표를 묻다』(제9회 숙명여대 교양교육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 신재한(2013), 『STEAM 융합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신종호 외(2022), 『대학 교양교육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안서현·윤국희(2021), 「코로나19 시기 대학 입학생의 글쓰기 경험에 대한 FGI 연구 -과제 수행 단계별 특성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42-3,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양수연·이다민(2019),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융합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수원대학교 <학문과 사고> 과목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3-3, 한국교양교육학회.
- 오선경(2023), 「대학 교양 글쓰기에서의 챗GPT 활용 사례와 학습자 인식 연구」, 『교양교육연구』 17-3, 한국교양교육학회.
- 요시다 순야 지음, 서재길 옮김(2014), 『대학이란 무엇인가』, 글항아리.
- 유기웅 외(2014),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교양교육 현황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asp.unesco.or.kr/세계시민교육>, 2024년 1월 25일 접속.
- 윤승준 외(2019),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윤승준(2021), 「대학평가와 교양교육 -학문분야평가인정제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까지」, 『융합교양연구』 9-2,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연구센터.
- 윤인선(2023), 「생성형 AI 시대의 교양교육으로서 글쓰기 교육과 리터러시 역량」, 『리터러시 연구』 14-4, 한국리터러시학회.
- 이상임 외(2017), 『대학교양기초교육 백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이성희·김미숙·정바울·박영·조운정·송수희(2015), 『세계시민교육의 실태와 실천 제』, 한국교육개발원.
- 이연주 외(2020), 『대학 소양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이윤빈(2022),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 양상 -전국 4년제 대학 소속교원 110명의 설문응답결과를 중심으로」, 『작문연구』 53, 한국작문학회.
- 이윤빈(2023), 「대학생 필자의 글쓰기 과정에서 챗GPT에 대한 질문 양상 연구-쓰기 수준별 필자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7-4, 한국교양교육학회.

- 이재현(2009), 「‘독서와 토론’ 교육 10년의 역사와 전망」, 『사고와 표현』 2-2, 한국사고와표현학회.
- 이재현(2015), 「우리나라 대학의 글쓰기 교과 운영 실태와 중소규모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글쓰기 교과 운영 방안」, 『작문연구』 27, 한국작문학회.
- 이하준·이종하(2014),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교육의 방향 탐색」, 『교양교육연구』 8-5, 한국교양교육학회.
- 이황직(2011), 「고전읽기를 통한 교양교육의 혁신-숙명여대의 “인문학독서토론” 강좌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26, 한국독서학회.
- 임정훈(2020), 「대학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팀티칭 교수법의 적용 가능성 탐색」, 『교육혁신연구』 30-3,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 정승원 외(2020),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표준모델을 적용한 4년제 대학 교양기초 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교양교육연구』 14-5, 한국교양교육학회.
- 정연재(2017), 「창의융복합적 사고 함양을 위한 융합교육 방안 연구 ‘크로스오버 1: 인간의탐색’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6, 한국교양교육학회.
- 정희모(2005),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방향」, 『작문연구』 1, 한국작문학회.
- 지현배(2017), 「온라인 클리닉 시스템을 활용한 침삭지도의 전략」, 『교양교육연구』 11-6, 한국교양교육학회.
- 차윤경·안성호·주미경·함승환(2016) 「융복합교육의 확장적 재개념화 가능성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9-1, 한국다문화교육학회.
- 차지영(2022), 「고전 읽기와 소집단 토의 수업의 역사성과 그 비판적 수용-A대학의 고전읽기와 소집단 토의 수업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4,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최예정(2011), 「계열필수과목으로서의 융합형 교양교과목 운영현황 연구」, 『교양교육연구』 5-2, 한국교양교육학회.
- 최윤경·한수영(2021), 「고전읽기 관련 교양교육 사례연구의 현황과 진단」, 『교양학연구』 16,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 최종덕(2014), 「글로벌 시민교육의 쟁점과 과제」, 『시민교육연구』 46-4.
- 최현철(2019), 「융합교양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하여」, 『교양교육연구』 13-5, 한국교양교육학회.
- 한경구·김중훈·이규영·조대훈(2015), 『SDGs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추진 방안』, 서울: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 한승희·고영상·이재준·이은정(2019), 『국내 평생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이행현황 연구』, 서울: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행교육원.
- 허영주(2013), 「대학 융합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탐색」, 『교육종합연구』 11-1, 교육종합연구소.
- 홍병선(2011), 「융합교육을 통한 기초교양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교양논총』 4, 중앙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 홍성기(2019), 「교양교육 강화의 사회적 배경」, 『교양학연구』 9, 중앙대학교 다빈치 미래교양연구소.
- Oxley, L. & Morris, P. (2013). Global citizenship: a typology for distinguishing its multiple conception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61(3), 301-325.
- UN. (2012).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New York, NY: UN.
- UNESCO(2014).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twenty-first century. Paris: UNESCO
- UNESCO(2015a).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Paris: UNESCO.
- UNESCO(2015b). Rethinking education: Towards a global common good? Paris: UNESCO

VI. 부록

1. 대학 교양기초교육 구성 및 현황 조사 설문 문항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p>안녕하십니까?</p> <p>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p> <p>본 설문은 우리나라 4년제 일반대학의 교양교육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대학의 교양교육 담당기관 현황, 교양교육과정 편성내용, 교양교육과정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합니다.</p> <p>본 설문문항은 1.대학기본정보 2.교양교육과정 구성 및 학점 3. 교양교과목 리스트 4. 학생지원프로그램 등 총 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p> <p>귀 대학의 현황은 국가 및 대학 교양교육 정책 수립과 교양교육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p> <p>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p> <p>2023년 7월</p> <p>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학교양교육 현황조사 연구팀 드림</p>
<p># 조사 결과는 「통계법」제 33조에 따라 통계,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귀 대학의 응답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p> <p># 설문지는 교양교육 전담 직원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p>

1. 대학 기본 정보

대학명

1-1. 설립유형

①국립 ②공립 ③사립

1-2. 학교소재지(캠퍼스의 경우 별도로 소재지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세종	⑧강원	⑨경기
⑩경남	⑩경북	⑫전남	⑬전북	⑭충남
⑮충북	⑯제주			

1-3. 대학규모(재학생 수 기준)

①2천명 미만	②2천명 이상~5천명미만	③ 5천명 이상~1만명미만
④1만명 이상~2만명 미만	⑤2만명 이상	

1-4. 귀 대학에는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1-5. 위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 전담조직의 명칭을 기입해주시시오(교양대학, 교양교육원, 교양센터 등)

명칭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1-6. 전담조직의 부서장의 위상을 체크해주시시오

교무위원급(처장, 학장, 원장)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교양교육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1-8. 위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모두 기입해주시시오

명칭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2. 교양 교육과정 구성 및 학점

2-1. 교육과정 구성(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 여부(예: 구성되어 있으면 체크)

전공교육	교양교육	일반선택

2-2. 교육과정 학점을 기술해주시시오(예: 교양 36학점 등 숫자 기입)

이수학점	전공	교양	기타(선택)	졸업학점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2-3. 교양교육과정 구성 학점을 기술해주시시오(예시: 의사소통 12학점 등 세부영역 및 숫자 기입)

교양교육 영역	세부영역명	학점
기초교양		
중핵교양 (균형교양)		
자유교양 (일반교양)		

→ 세부영역 예시

교양교육 영역	세부영역
기초교양	의사소통
	글로벌
	정보문해 기초수학과학
중핵교양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자유교양	1학년세미나
	진로설계 사회봉사

2. 대학 교양교육 구성 및 현황조사 대학 명단

번호	대학명	설립유형	소재지
1	가야대학교(김해)	사립	경남
2	가천대학교	사립	경기
3	가톨릭관동대학교	사립	강원
4	가톨릭대학교	사립	경기
5	강남대학교	사립	경기
6	강릉원주대학교	국립	강원
7	강서대학교	사립	서울
8	강원대학교	국립	강원
9	건국대학교(글로컬)	사립	충북
10	건양대학교	사립	충남
11	경기대학교	사립	경기
12	경남대학교	사립	경남
13	경북대학교	국립	대구
14	경상국립대학교	국립	경남
15	경성대학교	사립	부산
16	경운대학교	사립	경북
17	경일대학교	사립	경북
18	경희대학교	사립	서울
19	계명대학교	사립	대구
20	고려대학교(세종)	사립	세종
21	공주대학교	국립	충남
22	광운대학교	사립	서울
23	광주과학기술원	특별법법인	광주
24	광주대학교	사립	광주
25	광주여자대학교	사립	광주
26	국민대학교	사립	서울
27	군산대학교	국립	전북
28	극동대학교	사립	충북
29	김천대학교	사립	경북
30	남부대학교	사립	광주
31	남서울대학교	사립	충남
32	단국대학교	사립	경기
33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립	경북

34	대구대학교	사립	경북
35	대구예술대학교	사립	경북
36	대구한의대학교	사립	경북
37	대전대학교	사립	대전
38	대전신학대학교	사립	대전
39	대진대학교	사립	경기
40	덕성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41	동국대학교	사립	서울
42	동덕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43	동명대학교	사립	부산
44	동서대학교	사립	부산
45	동신대학교	사립	전남
46	동아대학교	사립	부산
47	동의대학교	사립	부산
48	루터대학교	사립	경기
49	명지대학교	사립	경기
50	목원대학교	사립	대전
51	목포가톨릭대학교	사립	전남
52	목포대학교	국립	전남
53	목포해양대학교	국립	전남
54	배재대학교	사립	대전
55	백석대학교	사립	충남
56	부경대학교	국립	부산
57	부산가톨릭대학교	사립	부산
58	부산외국어대학교	사립	부산
59	부산장신대학교	사립	경남
60	삼육대학교	사립	서울
61	상명대학교	사립	서울
62	상지대학교	사립	강원
63	서강대학교	사립	서울
64	서경대학교	사립	서울
6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	서울
66	서울대학교	국립대법인	서울
67	서울시립대학교	공립	서울
68	서울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69	서원대학교	사립	충북
70	선문대학교	사립	충남
71	성공회대학교	사립	서울

72	성균관대학교	사립	서울
73	성신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74	세명대학교	사립	충북
75	세종대학교	사립	서울
76	수원대학교	사립	경기
77	숙명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78	순천대학교	국립	전남
79	순천향대학교	사립	충남
80	송실대학교	사립	서울
81	신라대학교	사립	부산
82	신한대학교	사립	경기
83	아주대학교	사립	경기
84	안동대학교	국립	경북
85	안양대학교	사립	경기
86	연세대학교	사립	서울
87	영남대학교	사립	경북
88	영산대학교	사립	경남
89	우석대학교	사립	전북
90	우송대학교	사립	대전
91	울산대학교	사립	울산
92	원광대학교	사립	전북
93	위덕대학교	사립	경북
94	을지대학교	사립	대전
95	이화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96	인제대학교	사립	경남
97	인하대학교	사립	인천
98	장로회신학대학교	사립	서울
99	전남대학교	국립	광주
100	전북대학교	국립	전북
101	전주대학교	사립	전북
102	제주대학교	국립	제주
103	조선대학교	사립	광주
104	중부대학교	사립	충남
105	중앙대학교	사립	서울
106	중원대학교	사립	충북
107	차의과학대학교	사립	경기
108	창신대학교	사립	경남
109	창원대학교	국립	경남

110	청주대학교	사립	충북
111	총신대학교	사립	서울
112	추계예술대학교	사립	서울
113	충남대학교	국립	대전
114	충북대학교	국립	충북
115	포항공과대학교	사립	경북
116	한경국립대학교	국립	경기
117	한국공학대학교	사립	경기
118	한국교원대학교	국립	충북
119	한국교통대학교	국립	충북
12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사립	충남
121	한국성서대학교	사립	서울
122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립	서울
123	한국체육대학교	국립	서울
124	한국항공대학교	사립	경기
125	한국해양대학교	국립	부산
126	한남대학교	사립	대전
127	한동대학교	사립	경북
128	한라대학교	사립	강원
129	한림대학교	사립	강원
130	한밭대학교	국립	대전
131	한성대학교	사립	서울
132	한세대학교	사립	경기
133	한신대학교	사립	경기
134	한양대학교	사립	서울
135	협성대학교	사립	경기
136	호남대학교	사립	광주
137	호남신학대학교	사립	광주
138	호서대학교	사립	충남
139	홍익대학교	사립	서울
140	화성의과학대학교	사립	경기

3. 대학 교양교육 교과목 분석 대상 대학 명단

번호	대학명	설립유형	소재지
1	강남대학교	사립	경기
2	강릉원주대학교	국립	강원
3	강서대학교	사립	서울
4	경남대학교	사립	경남
5	경성대학교	사립	부산
6	경일대학교	사립	경북
7	충남대학교	국립	대전
8	고려대학교	사립	세종
9	안양대학교	사립	경기
10	한성대학교	사립	서울
11	광운대학교	사립	서울
12	극동대학교	사립	충북
13	남부대학교	사립	광주
14	한라대학교	사립	강원
15	단국대학교	사립	경기
16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립	경북
17	대전대학교	사립	대전
18	덕성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19	동신대학교	사립	전남
20	위덕대학교	사립	경북
21	한국해양대학교	국립	부산
22	화성의과학대학교	사립	경기
23	대전신학대학교	사립	대전
24	동서대학교	사립	부산
25	동아대학교	사립	부산
26	루터대학교	사립	경기
27	부산외국어대학교	사립	부산
28	서울대학교	국립대법인	서울
29	경운대학교	사립	경북
30	한림대학교	사립	강원

번호	대학명	설립유형	소재지
31	협성대학교	사립	경기
32	대구한의대학교	사립	경북
33	부산가톨릭대학교	사립	부산
34	서울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35	성공회대학교	사립	서울
36	성신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37	한국공학대학교	사립	경기
38	충북대학교	국립	충북
39	순천대학교	국립	전남
40	송실대학교	사립	서울
41	신라대학교	사립	부산
42	아주대학교	사립	경기
43	장신대학교	사립	경남
44	대진대학교	사립	경기
45	연세대학교	사립	서울
46	우송대학교	사립	대전
47	원광대학교	사립	전북
48	제주대학교	국립	제주
49	중부대학교	사립	충남
50	중앙대학교	사립	서울
51	포항공과대학교	사립	경북
52	한국체육대학교	국립	서울
53	동명대학교	사립	부산
54	삼육대학교	사립	서울
55	인제대학교	사립	경남
56	중원대학교	사립	충북
57	차의과학대학교	사립	경기
58	창신대학교	사립	경남
59	총신대학교	사립	서울
6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사립	충남

한국 대학의 교양 기초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실태

2023년 12월 31일 인쇄

202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셋길606 대성디폴리스A-23층

전화 02) 6919-3951~4

인쇄처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7 경대인쇄사

전화 055) 224-0480

※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무료

93370



9 791166 962899

ISBN 979-11-6696-289-9